星武
제37호
2008. 7.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http://www.kafaaa.or.kr

미래가치를 캐는 사람들

FUTURE BASE

www.kores.or.kr

지난 40년 동안 국가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에너지 및 산업원료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온 대한광업진흥공사가 이제 'W.I.T.H. KORES 2020' 비전을 대내외에 선포하고 Global TOP 광업메이저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대한민국 자원부국을 향한 끝없는 도전!

자원강국 호주에서, 미지의 땅 아프리카에서, 고산병이 엄습하는 페루에서…
대한광업진흥공사는 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니켈 등 국가경제 발전에 꼭 필요한 에너지 및 산업원료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자원첨병이 되어 전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자원을 찾아 끝없이 달려가는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민국 자원부국의 꿈을 현실로 바꿉니다.

KORES

www.mma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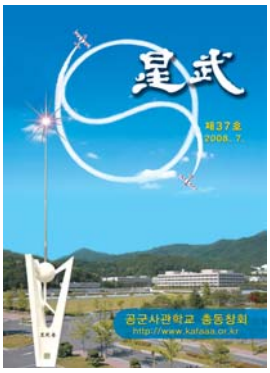
새로운 얼굴로
새로운 내일을 열겠습니다!

새로운 CI와 함께 더 새로워진 군인공제회가 되겠습니다

군인 ·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통해 군의 전력향상에 기여해온 군인공제회!
더욱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회원복지와 함께 국가 경제발전에 공헌하면서
선진기업을 지향하는 군인공제회가 되겠습니다.
처음약속 그대로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군인공제회를 지켜봐 주십시오.

군인공제회
MILITARY MUTUAL AID ASSOCIATION

軍 군인 Military | 人 풍부한 인적자원 Man Power | 共 사업의 다양성 Multi | 濟 신뢰와 협동 Mutual | 會 조직력과 결집력 Members



표지사진

星武 Contents

공 군 소 식

모 교 소 식

총동창회 소식

홈커밍 행사

회원기고

물의 신비와 그 소리	정해영	40
동기생 안창일 박사의 구제 헌신	김영환	41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전승우	46
회귀본능	명정수	52
푸른(Blue)색 찬가	윤용현	57
조직문화와 학교풍토	이재강	62
刻舟求劍(각주구검)의 리더십을 경계함	최병운	65
버리고 비워야 새로 채울 수 있다	금기연	72
국방안보분야 이명박 정부의 과제	송대성	80
한 · 미동맹의 평가와 함의	윤동현	86
독일에 살면서	황인영	90
"항공관제"는 무슨 일을 하는가?	김흥천	97
아르빌 전개임무 회고	박선옥	102
파란 하늘을 Y염색체 없이 난다는 것	하정미	105
제5차 한 · 일 군수관리자 회의 안내 소감	이명길	108
행복의 심리	안횡균	111
내 삶은 아름다운가?	정민남	119
노년기 취미생활, 국궁	이영희	124
하늘 담긴 연못	이영순	128
비가 오는데…	이봉길	129
예비역 동창생활 閑談	엄익준	132
골프와 바람	송인수	141
유럽여행	김성덕	147
이런 '마무리'는 어떨까요?	최광섭	155

'07 공군을 빛낸 사람들

'08 자랑스러운 공사인

발행일자 2008년 7월(제37호)
발행인 공사총동창회장
발행처 공사총동창회
전화 02-823-1091 (군) 923-7570
편집 · 디자인 · 인쇄 공군교재창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사총동창회의 공식 견해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옮겨온 글

누가 이기기 위한 대화인가? | 162
낡은 묵주 한 개 | 167
성경의 묘약 | 169
인생예찬 | 170
마음을 일깨우는 명상의 글 | 172
초심 잃지 않고 사는 지혜 | 173
산행의 육하원칙 | 174

홈커밍 행사 열병·분열

동문이 펴낸 책 소개

늙은 전투조종사의 가슴은 아직도 뜨겁다 박재성 | 176
일본제국군 권석근 | 177
예방외교 장호근 | 178
秒의 사나이 그리고 나의 조종사 생활 정용진 | 179

총장·예비역 단체장 오찬

각 기생/지회 동정

6~16기 사관 동정 | 180
지회 동정(대한, 아시아나항공) | 186

총동창회 알림

총동창회 정기총회 | 190
평생회비 적립현황 | 196
공사재단 발전기금 현황 | 201
전역자 현황 | 203
결혼/부음 | 206
주소변경 | 207
기수별 동기생회 임원 | 209
편집후기/기고안내 | 211

총동창회기 이양

2007년 공군을 빛낸 인물

공군은 지난 2007년 한해 동안 공군의 위상을 선양하고, 조직 발전에 이바지한 자랑스러운 공군인을 선정하고 2008년 1월 17일 공군회관에서 시상식을 거행했다(2001년 1회→2007년 7회째).

◈ 『2007년 공군을 빛낸 인물』 수상자 명단

부 문	소 속	계급	성 명
전투력 발전(도전)	**[단체]제203비행교육대대**		
희생 · 봉사(헌신)	제73기상전대	상사	오 흔 석
신지식 · 정보화(전문성)	중앙전산소	중위	윤 종 성
조직운영 발전(팀워크)	**[단체]군수사령부 경영혁신팀**		
문화 · 체육	**[단체]공군본부 정책홍보실 브랜드T/F**		
특 별 상	**[단체]Rainbow Project 추진팀**		

특히 이번 '특별상'은 지난해 창군 이래 최대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건강한 공군'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Rainbow Project의 성과와 의미를 되짚어 보고, 2008년 Soaring Eagle Project 추진을 통해 '경쟁력 있는 공군' 완성의 결의를 다지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2007년 공군 최우수 조종사에 안성찬 소령

공군제20전투비행단 제120전투비행대대 안성찬 소령(공사 40기, 주기종 KF-16)이 '창공의 MVP' 『2007 공군 최우수 조종사』로 선발되었다.

'79년부터 실시된 이 선발제도는 일선 비행단에서 근무하는 전 조종사를 대상으로 한해 동안 비행기량은 물론 비행성과, 전문지식 수준, 체력 및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하는 제도이다.

보라매 공중사격대회 우승자인 'TOP GUN'과는 달리 『최우수 조종사』는 1년 동안 모든 임무수행 분야에 걸쳐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조종사에게 수여된다. **TOP GUN이 올림픽 사격부문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것이라고** 비유한다면 **『최우수 조종사』는 국가별 전체 순위에서 종합 1등을 거둔 격이다.** 즉, **『최우수 조종사』는 가장 가치 있는 조종사를 상징하는 것으로 공군의 MVP(Most Valuable Pilot)라고 표현할 수 있다.**

공군소식

대한민국 하늘 최강의 女전사 하정미 대위

여성 최초 KF-16 전투조종사가 된 공군제20전투비행단 하정미 대위는 여성으로서의 한계를 뛰어넘어 1년 여에 걸친 고난도 KF-16 기종 전환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써, 당당히 '대한민국 여성 KF-16 전투조종사 1호' 호칭을 얻게 되었다.

아울러, 한반도에서 가장 빨리 날 수 있는 여성이자 막강한 정밀유도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여성으로서,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하는 최강의 女전사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번 하 대위의 쾌거는 지난 '02년 공군이 최초의 여성 조종사를 배출한 지 5년 만에 거둔 성과로서, 다시 한 번 공군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

더욱이 하정미 대위는 "오래 전부터 꿈꾸어 오던 KF-16 전투조종사가 되어 매우 기쁘고, 또한 여성 전투기 조종사로서 처음으로 도전하여 성취해 냈다는데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 Falcon Family의 일원으로서 부여받은 모든 임무를 멋지고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당당한 전투조종사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참모총장 예비역 단체장들과의 오찬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 공군참모총장 김은기 대장은 원로 선배들이 중심인 공군 예비역 단체장들을 초청하여 그 뜻을 기리고 예비역 각 단체가 현역과 예비역 간의 중간에 위치하여 큰 가교역할을 담당함이 군 발전과 예비역 각 단체의 발전을 기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이어서 공본 정책실장의 공군 4대 사업을 알려줌으로 현재 우리 공군의 추진 업무도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

4대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최근 5년간 항공기 소음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공군은 자체적으로 소음 저감 대책을 적극 시행 중이며, 군 소음 특별법의 조기 입법화를 추진 중에 있음.
2. 조종사 전역인원 급증에 따라 인력운영에 애로점이 많아 민항사 채용연령 상향조정 협조(40~45세) 등 핵심전력(조종사)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인력운영 문제점 해소중임.
3. 국방부 주관으로 3군 복지단 통합에는 인력,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조직은 통합한다는데 동의하나, 체력단련장 및 공군회관 운영 체계 등은 현행대로 운영하여 복지기금의 수익이 이용자와 해당부대의 수혜로 연결되어야 함이 공군의 입장임.
4. 한국공군의 세계 최초 디지털 훈련체계로 혁신하여 운영 중인 비행훈련 체계는 훈련시간 20%, 비용 30%, 절감과 비행기량 40% 증진의 효과가 있음이 판명되어 일부국가에서 그 체계를 활용할 조종사 양성의사를 피력하고 있으며 한국 국내 비행훈련 여건악화(공역 협소, 항적 증가, 연료비용 증가)에 따라 효율/실질적 훈련방안 마련이 대두되어 국제 軍 비행훈련센터 컨소시엄 IMFTCC(International Military Flight Training Center Consortium)을 추진하고 있음.

공군소식

공군 항공과학高 최초 여학생 입학!

軍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고교과정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에 처음으로 여학생이 입학하였다.

2008년 3월 3일(월) 14:00 진주 공군교육사령부 연병장에서 거행된 제40기 공군항공과학고 입학식에 15명의 여학생이 입학한 것이다.

이들 15명의 여학생은 지난 해 실시된 '08년도 입시전형에서 무려 51:1(남자 21:1)에 달하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당히 합격했다.

공군은 여성의 사회적 역할증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우수자원 확보를 위해 2020년까지 전체 병력 중 여군 인력을 6%까지 늘려갈 예정이며, 이의 일환으로 기술부사관 분야의 여성전문가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해 최초로 항공과학고에 여성 신입생을 모집하여 지난 10월, 15명의 여학생을 최종 선발하였다.

또한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은 금지한다'는 합리적 훈육관리를 위해 양성평등의식 내재화를 위한 훈육요원 교육을 통해 여성훈육간부로 장교와 부사관 1명을 별도로 선발 배치하여 '이성간 윤리', '양성평등의식' 교육을 확대 편성키로 하였다.

우주인 이소연 공군 명예조종사 되다

우리 공군은 험난한 교육과 신체적 훈련을 극복하고 대우주를 활보하고 돌아온 한국의 위대한 여성 우주인 이소연 박사와 항공우주군을 지향하는 공군의 의지를 최초 우주인과 공유하기 위해 대한민국 공군 명예조종사로 위촉하였다.

한편, 이소연 박사는 "공군 명예조종사로 위촉해주신 김은기 총장님과 공군 장병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부족하지만 우주를 다녀온 경험을 바탕으로 공군이 항공 우주군으로 도약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모교소식

제60기 사관생도 입교식 거행

21세기 항공우주시대의 주역이 될 제60기 공군사관생도 입교식이 2월 29일 오전 10시, 황원동(공사 24기, 중장) 공사 교장을 비롯한 신입생 학부모와 친지, 선배 사관생도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군사관학교 성무 대연병장에서 성대히 거행됐다.

15명의 여생도와 태국에서 위탁 교육생을 포함한 167명의 생도들은 지난 1월 25일 예비생도로 가입교하여 혹한 속에서도 5주간에 걸쳐 실시된 가입교 훈련을 무사히 마쳤으며, 이날의 입교식을 통해 '예비'라는 이름을 벗고 정식 사관생도로서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신입 생도들은 이 훈련 과정을 통해 군인으로서의 기본자세와 성공적인 생도생활을 위한 기초 소양을 갖추게 되었다.

제56기 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식 거행

공군사관학교 제56기 졸업 및 임관식이 3월 21일 오후 2시 공군사관학교 성무 대연병장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14명의 여생도와 태국 위탁교육 생도를 포함한 156명의 56기 졸업생들은, 재학 중 전공에 따라 각각 이학사, 문학사, 공학사 학위는 물론, 전원 군사학사 학위를 함께 수여받았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양준모 소위가 전체 수석의 영광을 차지해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정소원 소위가 할아버지 정진섭(공사 3기, 조종, '04년 작고) 예비역 대령과 아버지 정기영(공사 30기) 대령의 뒤를 이어 임관하여 공사 개교 최초로 3대 동문 가족이 탄생하였다.

이번 졸업 및 임관식에는 최신예 전투기 F-15K, 국산 초음속 훈련기 T-50을 비롯해 KF-16, F-4 등 공군의 주력 전투기들이 공중분열을 펼쳤으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양국 공군의 각별한 우정을 과시하는 차원에서 美 공군 F-16 4대가 공사 졸업식 최초로 축하 비행에 참가하였다.

모교소식

공군사관학교 – 국방과학연구소 교류협력 체결

공군사관학교(교장 : 황원동 중장)는 1월 8일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교류협력 협약서를 체결하고 학·연 교류 촉진을 다짐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공사·ADD는 항공기 체계개발사업과 풍동실험을 비롯한 핵심기술 분야에서 보다 활발한 연구 교류를 통해 과학기술 발전을 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사 장병 및 생도, 군무원 태안반도 방제작업 참여

1월 22~23일 공군사관학교 생도, 장병 및 군무원이 충남 태안군 모항리 방제작업 현장을 찾았다.

군은 사고 발생시부터 많은 지원인력과 장비를 동원하고 있으나 현역 사관생도가 방제작업에 참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22일 방제작업 지원에 나선 180여 명의 공사생도들은 국가적 재난에 따른 범 공군 차원의 방제지원 계획에 따라 이날부터 시작되는 동계 휴가도 반납하고 방제작업에 나서게 되었다.

또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23일에는 공사 장병 및 군무원 360여 명이 태안군을 찾아 주민들의 부족한 일손을 돕기도 하였다.

제30회 스페이스 챌린지(모형항공기대회) 2008 개최

항공우주시대를 이끌어갈 미래 주역들의 축제인 '제30회 공군참모총장배 스페이스 챌린지 2008' 본선대회가 5월 18일(일) 공군사관학교(충북 청원군 소재)에서 개최되었다.

특히, 올해 대회부터 활동영역을 '우주'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공군의 의지를 온 국민과 함께하기 위해 명칭을 기존의 모형항공기대회에서 「스페이스 챌린지」로 변경하였으며, 종목도 자유비행(고무동력기, 글라이더)과 동력비행(유·무선 조종기 등) 부문 이외에 물로켓 경기를 신설하여 의미를 더하였다.

자유비행, 동력비행, 물로켓 각 부문 금·은·동 수상자에게는 공군참모총장상이 수여되었으며, 다수의 입상자를 배출한 우수 지도교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이와 함께 공군발전협회에서는 대회 유공자에게 별도의 공로상을 수여하였다. 공군발전협회에서는 매년 단체 공로상과 개인 공로상을 정기적으로 수여할 계획이다.

모교소식

美 공군 문선단 Tops in Blue, 韓 공군 장병 위해 공사에서 공연

팀 전원이 현역으로 '53년 창설 후, 매년 전 세계를 돌며 위문공연을 펼치는 美 공군 문선단 'Tops in Blue' 팀의 공연이 1월 28일 공군사관학교 성무문화관에서 개최되었다.

구성원들은 매년 실시되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약 30여 명이 선발되며, 이렇게 선발된 장병들은 수개월간의 집중 훈련을 통해 춤과 노래 등의 공연진을 비롯하여 음향, 조명, 모니터 테크니션까지 도맡아 하나의 공연을 완성한다.

이번 공군사관학교 공연은, 美 공군 창설 60주년을 맞아 특별히 준비한 공연으로써, 한국 공군 장병들과 그 가족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공연을 총 기획한 알랙스 루이스(Alexander Ruiz) 대위는 "한국 공군 장병들을 위해 공연하게 되어 기쁘다"며 "언어와 국적을 뛰어넘어 음악을 통해 함께 할 수 있는 공연을 선보여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사 총동창회장상 수여

지난 3월 21일 공사 56기 졸업식 2부 행사로 진행된 임관식에서 공사 총동창회 김주식 회장이 조해광 소위에게 총동창회장상을 수여하였다.

수상자는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동기생 중에서도 신망이 높아 동기회장으로 56기생을 대표하여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임관 후 무기정비 분야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부상으로는 순금 메달(10돈)을 수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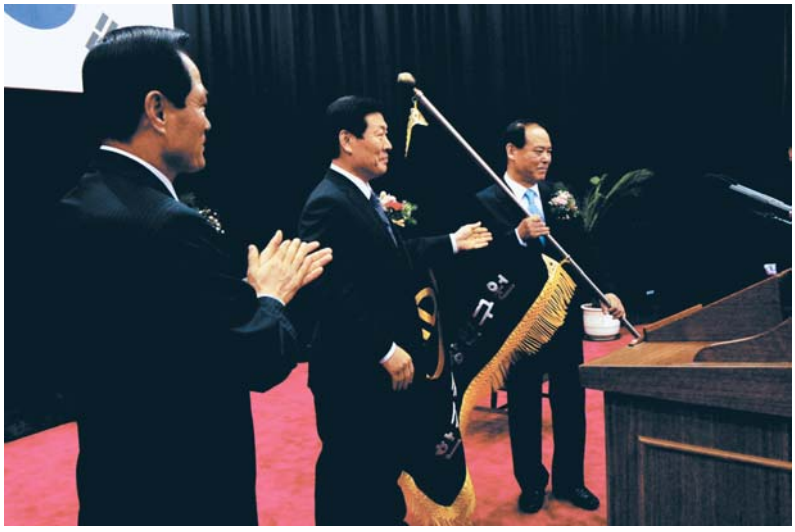
임관식 피날레는 53기 이상원 중위가 윤나리 소위와 신상헌, 윤정한 소위가 동문과 그 가족들의 축하 속에 약혼을 알려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고, 공사교장의 선물을 받기도 하였다.

비행단 방문

공사 총동창회에서는 후배 현역회원 동문들에게 총동창회 설립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그에 걸맞는 참여의식을 고취키 위해 지난 2007년 9월 12일에 제20전투비행단을 방문하였고, 2008년 5월 27일에는 제19전투비행단을 방문하였다.

각 비행단의 부대현황을 청취하고, 전비태세를 최상으로 유지하면서 열심히 훈련하는 장병들의 모습은 마음 든든하게 하였으며, 특히 비상대기실 후배 조종사들의 비상처치에 대한 확고한 지식과 신념은 선배들에게 조국안보의 굳건함을 인식시켜주는 좋은 방문이 되었다.

KIDA 신임원장 취임



공사 19기 김구섭 박사가 공사동문으로는 물론, 공군 출신으로서 최초로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제10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김 신임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21세기 선진국방 구현을 위한 정책대안 개발의 중심기관이자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발전시키는데 혼신의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하며 "조직 · 인력과 예산을 다시 점검해 비효율적 시스템을 과감히 정비함과 동시에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수요자가 원하는 실용적인 연구 과제를 우선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가안보와 국방발전에 기여하는 KIDA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김 신임 원장은 센터 중심의 자율적 책임운영체제 정착 등을 통해 모두가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활기찬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KAL 후배 동문들과의 모임

15차년도 주요역점 업무인 공사 총동창회 동참 적극 권유의 일환으로 대한항공 후배 동문들과의 모임을 2008. 4. 2.(수) 수원비행장 체력단련장에서 가졌다.

운영기수인 15기와 19~34기까지 모두 16명이 참석하여 대한항공 동문 활동사항과 공사 총동창회의 운영 방향 등 발전 방향을 서로 얘기하였고, 대한항공 공사동문회장 정회균 기장이 대한항공 보유 747 모형항공기를 총동창회장에게 기증하여 대한항공의 홍보도 잊지 않았다.

국방부 장관과의 만찬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4월 21일 18시에 이상희 국방장관과의 만찬을 국방회관에서 가졌다.

이날 모임은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오명 총회장의 주선으로 이루어졌고, 군 발전의 근간은 각 군 총동창회로부터 시작됨과 각 군 사관학교 활동사항과 후생사업 및 건의사항 등을 폭넓게 논의하였다.

이 모임에는 이상희 국방장관(육 26기), 김종천 국방차관(육 28기), 오명 육사 총동창회장(육 18기), 이지두 해사 총동창회장(해 19기), 김주식 공사 총동창회장(공 15기) 및 사무총장들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성무지를 빛내주신 분들

1기 김영환

1기 정해영

1기 최규순

3기 전승우

8기 윤석문

10기 이은봉

11기 명영남

12기 배기준

12기 정민남

15기 김성덕

15기 명정수

15기 안횡균

15기 엄익준

15기 최광섭

15기 황인영

17기 송대성

17기 이문호

17기 장호근

18기 구정회

18기 이봉길

19기 이영순

20기 이영희

21기 금기연

21기 윤동현

22기 최병운

24기 이재강

25기 강대희

25기 윤용현

29기 이명길

31기 김흥천

31기 채관석

32기 송인수

48기 박선옥

50기 하정미

51기 권 율

51기 이선미

자랑스러운 공사인 : 20기 사관 이 재 명 박사

공사 총동창회는 제15차 정기총회에서 제2회 '자랑스러운 공사인'으로 선정된 **20기 사관 이재명** 회원에게 기념패를 증정하였다.

그는 공군사관학교 교수/항공우주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 중 생도교육 및 여러 연구 활성화에 공헌을 하였고, 대한민국 공군의 노후 기본훈련기를 국산 독자개발한 KT-1으로 적기에 교체케하여 한국공군 조종사 양성계획 정상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한국의 항공우주산업분야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 1991~1999 :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훈련지원기인 **KTX-1 체계 개발 연구단장**으로서

○ 대한민국 최초로 국산 독자개발 훈련지원기인 KT/0-1 개발 주역

○ 국내 최초로 국산항공기 감항인증용 시험비행과 비행계측시설 및 장비를 사천기지에 설치함으로 군용기 감항인증체계 구축

○ 그 공로로 국방장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장려금 7천만원** 포상과 더불어 국가로부터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 받음.

◈ 2000~2005 :

○ **KT-1B를 인도네시아** 공군 요구조건에 충족하는 수출용으로 개발 **12대**를 **수출**하였고,

○ XKT-1(신규 해외수출 모델시범기)의 성공적 개발로, **터키 공군에 55대** 수출 추진, 이를 제작 수출함에 크게 공헌함.

공사 총동창회 정기총회

공사 총동창회는 2008년 6월 19일 공군회관에서 200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주요업무 및 결산보고와 총동창회 발전에 대한 많은 의견들을 교환하였다('총동창회 알림' 참조).

제16차년도 공사 총동창회장으로는 박성국 장군을 선임하였다. 이로써 총동창회 업무는 제16차 운영기수가 맡게 되었으며, 총동창회 발전을 위하여 제16차 운영기수의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된다.

제16차년도 총동창회 운영임원

회　　장 : 박성국

부 회 장 : 주창성, 강무송, 권명남, 김회동, 배충정, 양길수, 이상렬, 이재기, 임정빈, 장진수, 정해창, 최동철, 최명상, 함종하

감　　사 : 김헌석, 강명식

사무총장 : 박영기

후　　원 : 공사 16기 사관 일동

이 임 사

존경하는 선후배 동창회원님! 그리고 15기 성익회원 여러분!

저희 15기 사관이 15차년도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운영을 맡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6기 사관에게 인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1년간 저희 15차 운영기수가 총동창회 운영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해주신 선후배 동창회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각 기수의 회장단님들과 15차년도 이사님 기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5차년도 운영기수는 1년 전 운영을 맡으면서 다짐드렸던 바와같이 총동창회원님들이 공사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동창회 활동에도 좀더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여건과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우선 현역회원들에 대해서는 총동창회의 기본목적과 매년 1개 기수가 전담하여 운영할 수밖에 없는 운영체계상의 현주소에 대해 명확한 이해와 관심을 촉구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공본 및 작사와 비행단 방문기회가 있을 때마다 총동창회 관련 홍보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공본 방문시에는 본부지역에 근무하는 각 기수의 대표들과 별도 오찬만남의 자리를 만들어 대화와 설명을 해주는 기회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예비역 회원님들에 대해서는 공사 동문회원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공사동문회원들을 중점대상으로 하여, 합동등산 및 운동, 송년정기총회 등에 함께 참가하는 활동을 통해 모두가 공사총동창회원임을 재인식시켜주고 적극 참여하는 분위기도 고양시켰습니다.

또한, 15차 운영기수와 생도생활을 함께했던 선후배 7개 기수회원님들과의 합동등산을 통해 인접기수 회원간의 친목도모는 물론 서로가 끈끈한 인연으로 맺어진 공사인임을 재확인하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15차년도의 주요 역점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예비역동창회원 명부'는 자료수집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은 있었지만 각 기수별 회장단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완벽하진 못하지만 기본 목적달성 수준에는 어느 정도 도달된 것 같으며, 회원님들 간의 교류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됩니다.

이제 15차년도 총동창회 운영임무를 마치면서, 아쉽게도 해야 할 모든 일들을 깔끔하게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16차 후배기수에게 넘기게 되어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입니다.

다행히 훌륭한 인품과 능력을 갖춘 박성국 신임회장에게 16차 운영을 인계하게 되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16기 사관 모든 분들과 함께 총동창회를 더욱 발전시킬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지난 1년간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신 선후배 동창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15차 운영기수인, 성익회원님들과 직접 땀 흘리며 온 정성을 다해 주신 최영상 사무총장과 김평람, 최광섭 성무지 편집위원께도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6월 19일

이임 총동창회장 **김 주 식**

취 임 사

존경하는 공군사관학교 선후배 동창여러분!

금번 공사 총동창회의 16차년도 운영과 총동창회직을 저희 16기와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저와 저희 16기 일동은 영광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15차년도 운영을 훌륭하게 수행해 오신 김주식 회장님과 15기 선배 회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공군사관학교는 금년도 56기가 졸업하면서 개교 이래 8,500여 명의 동창회원을 배출하였습니다. 그동안 이들은 공군이 오늘의 모습으로 성장해 오는 동안 많은 기여와 헌신을 해 왔으며,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공방어 임무에 매진하면서 보다 나은 우리 공군의 미래상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총동창회에서도 그동안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상호간의 친목활동 및 상부상조를 통해 모교와 공군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총동창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와 공군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선후배 회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8년 6월 19일

신임 총동창회장 **박 성 국**

축 사

존경하는 1기 사관 최규순 회장님과 역대 참모총장님!
그리고 함께 자리해 주신 공사 총동창회 회원 여러분!

먼저,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2008년도 정기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우리 공군과 총동창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활동을 하시고 이임하시는 김주식 회장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신임 회장으로 추대되신 박성국 장군님께 충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모교와 공군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회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총동창회 회원 여러분!

현재 우리 공군은 급변하는 미래 안보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창조와 실용의 시대정신과 도전, 헌신, 전문성, 팀워크의 공군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강도 높은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완벽한 영공방위태세 유지를 근간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믿음직하고 강한 공군, 연합·합동 전장을 주도하는 항공우주군 건설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이면 60주년, 갑년(甲年)의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 우리 공군사관학교는 명실상부 공군의 백년대계를 책임진 호국간성의 요람으로서, 우리 공군의 원대한 비전을 선도해 나갈 『정예 공군장교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우수 사관생도 선발에서부터 교육 운영체계 개선, 교수 및 훈육요원 자질향상, 교육훈련환경 개선에 이르기까지, 사관생도들이 앞으로 훌륭한 공중지휘관이자 군사전문가로 성장하여 대한민국의 하늘을 드높이는 으뜸인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역들의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 회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총동창회가 더욱 더 발전하길 기원드리며, 현역에 있는 저희도 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미력한 힘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뜻깊은 정기총회 개최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회원 여러분의 건안하심과 박성국 신임 회장님이 이끄시는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6월 19일

공군사관학교장 공군중장 **황 원 동**

공사 총동창회 홈커밍 행사

계절의 여왕 5월! 대지는 푸르름으로 가득하고 하늘은 높고 맑았다.

사방팔방 주변이 온통 푸르름으로 가득한 공군사관학교 교정의 한가운데 사관생도, 현역, 예비역 성무인이 한데 모였다.

2008년 5월 16일(금) 오늘은 임관 50주년을 맞이한 공사 6기 사관을 비롯하여 30주년, 20주년, 10주년을 맞는 26기, 36기, 46기 졸업생들을 여타 1기부터 56기에 이르는 동문들이 성무인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선후배간 화합의 정을 나누고 모교의 발전을 위한 뜻깊은 날이 되었다.

홈커밍 행사는 선후배들이 모교에서 만나서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발전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자는 취지하에 12기 사관이 총동창회를 운영하던 2005년에 최초로 개최하였다. 다음해에 13기 사관 때에 학사일정과 성대한 행사를 고려, 임관기념 행사와 통합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였다. 금년 총동창회 운영기수인 15기 사관은 좀더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전 졸업생이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하에 예비역 졸업생 중심행사에서 현역 졸업생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동참을 유도하고 사관생도들도 즐거운 날이 되도록 고려하였다.

'08 홈커밍 행사에는 가족을 포함하여 약 1,200여 명의 졸업생들이 참가하였다. 행사는 오전 10시 선후배 영접으로 시작하여 사관학교장, 총동창회장 및 임원단이 성무관 입구에서 회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이어 학교현황과 교육진흥재단 운영현황 보고가 있었으며, 도보로 성무연병장으로

이동하여 제1부 행사를 거행하였다.

약사 보고, 교장의 환영사, 6기 사관 동기회장의 축사, 그리고 총동창회장 축사, 열병과 분열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열병에는 선두 차에 6기 회장과 총동창회장이, 후미 차에 26기·36기, 46기 회장이 탑승하였으며, 36기생 참석자 전원도 차량을 따라 열병하였고, 분열도 전 사관생도뿐만 아니라 임관 20주년을 맞이한 36기 사관 현역 및 예비역이 참여하는 이벤트가 진행되어 현역 생도들과 방불한 분열은 참석자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 진행되었다.

계속해서 항공기 T-103기의 공중퍼레이드와 KT-1 공중기동에 이어서 공군특전요원의 공중낙하로 홈커밍데이의 대미를 장식해 주었다.

사관학교에서 준비한 하늘관 3층 오찬장에는 졸업생 선후배 기수와 사관학교 지휘관 참모가 한 자리에 모여 6기 사관 졸업 및 임관 50주년을 축하하는 1기 사관 최규순 회장의 건배로 오찬을 시작하여, 즐겁고 뜻있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멀리 해외에서 오신 6기 선배님들을 위하여 총동창회에서는 공군사관학교의 전경을 담은 큰 사진을 증정하였다.

제2부 행사는 각 기생별 계획에 의거 동기생과 가족들만의 오붓한 시간으로 이어졌다. 6기 사관은 17비행단과 독립기념관을 방문 후 공군회관에서 여흥을 곁드린 자축만찬으로 50주년 기념 대행사를 마무리지었다.

26기생은 당일 일부는 사관학교/17비행단 체력단련장에서 운동을, 일부는 시내관광 후 만찬을 가졌으며, 36기생은 당일 생도식당에서 전 생도와 오찬을 함께 하고 특강을 실시하였으며, 동기회 후에 만찬을 하였고, 46기생은 시내 호텔에서 오찬을 하고 동기회를 하므로 행사를 마무리지었다.

한편, 1기생은 전세 관광버스를 준비하여 초정약수터에서 온천욕과 만찬을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귀경하였고, 운영기수인 15기생은 관광버스로 부부동반하여 청남대와 천안 독립기념관을 탐방하고 상경, 양재역 근처에 있는 오미가 한식당에서 만찬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얼마 남지않은 15차년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여 총동창회의 발전과 성무인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하였다.

이날 졸업 및 임관 50주년 기념일을 맞는 6기생 동기회는 금일봉을 공사발전기금으로 기탁하였으며, 30주년, 20주년과 10주년 졸업 및 임관 기념일을 맞은 26기, 36기와 46기 사관도 모교발전기금을 기탁하여 모교를 사랑하는 선배들의 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원로 선배님 및 임관기념기수를 제외한 7기에서 55기생 45개 기수는 일금 900만원(각 기수 20만원씩)을 모아 사관생도들도 즐거운 날이 되도록 특별 다과 지원에 동참하였다.

사관학교에서는 기념 모자를 만들어 모든 참가 회원들에게 선물하였다.

환 영 사

존경하는 김주식 총동창회장님, 그리고 1기 선배님들을 비롯한 선후배 동창회원님과 가족 여러분!

오늘 홈커밍데이 행사를 맞아 모교 성무대를 방문하신 선배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오늘 6기 선배님부터 60기 신입생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선후배간의 화합과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에 임관 50주년을 맞이하신 6기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그간 공군과 국가발전을 위해 애쓰셨던 고귀한 희생정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임관 30주년을 맞은 26기, 20주년을 맞은 36기, 그리고 10주년을 맞은 46기 동창회원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총동창회원 여러분!

금년으로 우리 공군사관학교는 개교 59주년을 맞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9년 전인 1949년 6월, 김포의 황량한 들판에서 창설되어 이제는 21세기 항공우주시대를 이끌어갈 국내 유수의 군사교육기관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학교가 이와 같은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후배 양성에 대한 사명감과 조국에 대한 희생정신을 가진 선배님들, 그리고 동창회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선배님들께 재삼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 우리 성무대의 전 장병은 지난 59년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교훈 삼아 대한민국의 하늘을 드높일 으뜸인재 양성을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끝으로, 오늘 하루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모교에서의 시간을 뜻깊고 보람 있게 보내시기 바라며 행사에 참석한 모든 동창회원님들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5월 16일

공군사관학교장 공군중장 **황 원 동**

경 축 사

생동감이 넘치는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이하여, 2008년도 공군사관학교 모교방문 행사를 마련하여 주신 교장 황원동 장군과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6기 사관 임관 50주년, 26기 사관 30주년, 36기 사관 20주년, 46기 사관 10주년 임관기념 초청행사를 주관하여 주신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김주식 회장과 사무총장께 4개 기생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선배님들께서 많이 참석하셔서 후배들의 임관기념 행사를 축하 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신데 대하여 무한한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친애하는 사관생도 여러분!

늠름하고 씩씩하며 패기에 넘치는 사관생도 여러분을 이곳 성무대에서 직접 대하고 보니, 반세기 전 진해 가교사에서의 사관생도시절을 회상하게 합니다.

당시 교훈인 '武勇'을 되새기며 지성과 비전, 그리고 이를 받쳐줄 불굴의 의지와 강인한 체력을 연마하였던 생도생활을 돌이켜보게도 합니다.

50주년인 1958년에 임관한 76명의 우리 6기 사관은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고귀한 책무를 부여받고 공사인으로서의 명예와 긍지를 가슴깊이 새기며,

공군의 일원으로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각자 부여받은 사명을 완수하여 온 지난 세월의 삶을 회고하건대, 참으로 가슴 벅찬 감회와 무한한 보람과 감사함을 느끼게 합니다.

친애하는 공사생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공사인이며 또한 영원한 선후배이고, 공군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영원한 공군인입니다.

오늘의 이 자리는 50년 세월 시공을 넘어 현재로 압축한 시간의 자리이고 다시 50년, 백년으로 이어져 공사인이 끝없이 펼쳐 나갈 미래에 대해 선후배가 함께 약속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미래 항공우주시대를 선도하며 정예 공군장교로 도약할 공사인의 앞날에 우리 모두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의 영광되고 감격스러운 행사를 마련하여 주신 황원동 교장께 다시 감사드리며, 공사인의 영원한 고향, 공군사관학교의 무한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5월 16일

6기 사관 대표 **이 방 택**

축 사

존경하는 선후배 동창회원 여러분!

특히 영광스러운 임관 50주년을 맞이하신 6기 선배님과 30주년, 20주년, 10주년을 맞이한 26기, 36기, 46기 후배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사관생도 여러분!

오늘 이토록 뜻깊은 홈커밍 행사를 맞이하여 우리는 성무인으로서의 얼을 심어주고, 다듬고, 가꾸어주는 공사인의 요람인 이곳 성무대에서 모교와 공군발전을 위해 그간 5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헌신해 오신 1기 사관님을 위시한 원로선배님들로부터 향후 항공우주시대의 우리 공군을 이끌어갈 주역이 되기 위해 금년에 입교한 60기 사관 생도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무인들과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축제의 한마당을 펼쳤습니다.

먼저 졸업 및 임관 50주년을 맞이하신 6기 선배님들께 충심으로 경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사랑하는 26기, 36기, 46기 후배님들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무인의 홈커밍 행사는 임관기념을 자축하고 선후배간의 친목도모와 모교발전을 위한 자유토론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총동창회에서는 보다 많은 선후배 회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두루 참여하는 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특히 현역과 예비역 회원님들 간의 대화의 장을 좀더 넓혀주기 위해 가능한 많은 현역 회원님들의 참여를 권장하고 독려하였으며, 이에 현역 회원님들도 기본임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호응해줌으로써 그런 대로의 성황을 이루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임관기념기수 회원님들 중심의 참여수준으로서 우리 성무인 모두가 공감하고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우리 모두의 계속적인 노력을 통해 해결해야 할 하나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축제모임이 실질적인 선후배간 상호존중과 사랑을 바탕으로 한 친목도모는 물론 향후 우리 공군을 이끌어갈 주역들을 양성하는 우리의 모교가 더욱 발전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기를 함께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6기 선배님과 26기, 36기, 46기 후배님들의 뜻깊은 임관기념을 축하드리고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사랑하는 사관생도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끝으로, 이와 같은 성대한 축제의 장을 마련해 주신 학교장 황원동 장군과 장병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5월 16일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 **김 주 식**

물의 신비와 그 소리

1기 사관 정해영

만양(萬樣) 변하는 물의 신비
수평을 찾아 낮아지는 소리
시내가 되고 강물이 되어
생명을 노래하며 바다에 이르고
망망대해에 수평선을 그어 하나가 되누나!
저마다의 가치와 평등을 찾아 헤매는 소리

수증기는 물위로 피어오른다
파란 하늘로 비상하는 소리
안개가 되고 구름이 되어
창공을 자유자재로 떠다니며
청운의 꿈을 일구어 가듯 번개 치누나!
입신양명의 기상과 패기를 부리는 소리

비는 마구 뛰어 내린다
허공에서 냅다 떨어지는 소리
산야를 적시고 논밭에 스며
온갖 생명체를 자라게 하고
생태계를 살찌워 고루 영글게 하누나!
만물과 사람들의 생명을 노래하는 소리

흰눈은 속절없이 펄펄 내린다
빙산의 삭풍(朔風)을 타고 오는 소리
추운 겨울철을 골라 내린다
음산한 대지를 말끔히 뒤 덮어
백옥 같은 아가페 사랑으로 감싸누나!
영혼을 부르실 때 흰옷으로 갈아입는 소리

동기생 안창일 박사의 구제 헌신

1기 사관 **김영환**

마태복음 : 6장 3~4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공사 1기 사관이며 원로의사인 당년 80세의 안창일 박사는 다니엘 복지원에서 정신지체인들의 의료를 담당하고 계신다.

다니엘 복지원은 정신지체인 약 100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전임의사가 상주하여야 한다는 법규에 의하여, 안창일 박사가 바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물론 보수가 없는 자원봉사이며 강한 봉사정신으로 근무하고 있다.

안 박사는 필자와 같이 공사 1기 사관으로 임관하여 같이 근무하다가 신병관계로 제대를 하였다. 그 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였고, 1976년 5월 경희대 의과대학 교수, 1986년 11월 경희의료원 원장으로 근무하다가 1994년 2월에 정년퇴직을 하였다. 정년퇴직 후 수원에 있는 동수원병원에서 의료봉사를 한동안 하였으며, 1998년 3월 의사로서의 봉직을 끝내고 집에서 소일하겠다고 하는 소식을 나누었다. 그 후 소식이 뜸하여 "동기생들과의 교류를 위한 시간을 한번 갖자"고 요청하였으나 "하는 일이 있어 시간내기가 어렵다"고 하는 게 아닌가.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의사일 끝나고 어디에서 돈벌이하는 것 아닌가 하고 짐작을 하였으나 무엇 하느냐고 물어 볼 수가 없어서 그런대로 또 수년을 지나게 되었다. 몇 년이 지나서야 안 박사는 입을 열었고 그 동안 다니엘 복지원에서 일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주었다.

필자 생각에 "의사 공부한 사람들은 참 좋겠다. 나이 먹어서도 돈벌이하는 기회가 많으니"라고 여기고 있다가 어느 날 서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약속 일자는 닥쳐왔다. 그러나 안 박사는 그 날 하루 전에 약속 일자를 변경하자고 요청하였다. 그 이유인즉 정부기관에서 실시하는 다니엘 복지원 정기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니 의사가 무슨 감사를 받느냐"고 반문한 바, 안 박사는 "본인이 다니엘 복지원 전임 의사로서 등록이 되어 있으며 전임 의사의 상주와 근무상태 여부가 중요한 감사 대상"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안 박사가 복지원에서 보수도 안 받고, 여러 의사가 있는 가운데 파트타임 자원봉사도 아니고, 혼자 단독으로 근무하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안 박사는 "복지원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무슨 보수냐"고 하면서, "다른 의사는 없고 본인 혼자서 복지원 전체를 전담하여 자원봉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고 보니 최근 수년 동안 정상 출퇴근을 하면서 그 일을 하느라 "일이 있어 늘상 바쁘다"고 이야기를 해 왔던 것 같다. 오직 일에 쫓기느라 자신의 근황을 동기들에게 전해 주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복지원에서 그동안 의료 봉사를 어떻게 해 왔다든지, 하는 일에 대해 즐겁다던가 괴롭다던가에 관해 일체 말이 없었던 것이어서,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한마디도 이야기를

하지 않은 가운데 수년 동안을 봉사하였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의 행적에 대해 감탄하던 중에 필자에게 문득 생각이 난 것이 서두에 제시된 "마태복음 6장 3절의 성경말씀"이었고 이 분이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였다. 필자는 동기생으로서 어떻게 해서라도 안 박사가 은밀히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분이라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되었다. 동시에 이 세상, 돈도 있고 능력도 있으면서 이와 같은 복지원을 돕겠다는 사람이 많지 않고, 조금 돕는 사람들은 대단히 크게 돕고 있다고 외식(外食)하는 이가 적지 않아서 우리들 공사 동창만이라도 "마태복음 6장 3절"의 성경말씀의 본 뜻을 새로이 기억하여 이 사회의 빛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써 보았다.

부가하여 다니엘 복지원 이사장님이 필자와 만난 자리에서 전하는 이야기에 의하면, 전혀 모르는 어떤 사람이 "복지원에 기부를 하고자 하는데 적은 돈도 받느냐고" 전화 문의를 하기에 "당연히 소액이라도 감사히 받겠다"고 하였더니 2, 3일 후에 어느 젊은이가 와서 "돈을 전하고자 왔으며 영수증을 써 달라"고 하기에 "돈 보낸 분 앞으로 영수증을 써야 할 터이니 그분의 성명, 주소를 알려 달라"고 하였던 바 "자기 이름으로 하여 주시고 그 분에게는 심부름 확실히 전하였다는 증거가 있으면 된다"고 하여 돈 보낸 분의 주소, 성명을 모르고 돈을 접수하고 보니 8천만 원이었다고 한다.

이런 분도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 세상에 안 박사와 같은 분도 계시니 성경 말씀대로 몸소 은밀히 구제를 실천하는 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 모두가 그렇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안 박사 성격으로 보아서 아마도 의료 봉사하는 것 외에도 은밀히 복지원을 지원하는 무엇인가가 또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끝으로 안 박사가 필자에게 말한 걱정거리가 있는데 그것은 본인이 나이가 들다 보니 의사로서 환자 진료를 하는데 실수를 할까봐 걱정이 되고 있으며 의사의

회원기고

실수는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명간에 결단을 내려야 할 터인데 복지원 이사장이 "아무 일 없을 터이니 계속 부탁드린다"고해서 고민이라고 하였다(다니엘 복지원 요청으로 향후 5년간 계속 근무할 것을 약속함).

혹시 안 박사님을 아시는 분들 중에서 이 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확실히 아시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 안 박사님은 "모두들 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좋아요, 오직 하나님만은 알고 계실 테니까요."라고 하시며 오늘도 조용히 그의 길을 가고 있다.

* 불변의 세 가지 *

1. 제행무상(諸行無常)

태어나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
하늘, 부모, 남편, 아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막아주지 못하고, 대신 가지 못하고, 함께 가지 못한다.
하루하루 촌음을 아끼고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외길이다.

2. 회자정리(會者定離)

만나면 헤어짐이 세상사의 법칙이다.
영원히 움켜쥐고 싶지만 하나 둘 모두 내 곁을 떠나간다.
끄달리고 집착하고 놓고 싶지 않는 그 마음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며 만병의 시초이니
마음을 새털같이 가볍게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3. 원증회고(怨憎會苦)

미운 사람 혹은 피하고 싶은 것들과 반드시 만나게 된다.
원수, 가해자, 아픔을 준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며,
가난, 불행, 병고, 이별, 죽음 등 내가 바라지 않은 일도 종종 나를 찾아온다.
현명하고 지혜롭고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은 능히 헤쳐 나가지만
우둔하고 어리석고 매사에 소극적인 사람은 파도에 휩쓸리나니
늘 마음을 비우고 베풀며 살아가야지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3기 사관 전승우

1954년 11월 1일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공군 소위로 임관한 후 군수, 교육 및 연구 분야에서 공군의 전 생활을 보냈다.

소위시절에 한 · 미 방위계획에 의한 도미교육을 받았으며 소령 때 2차 도미교육 기회도 가졌었다.

두 차례에 걸쳐서 공군의 특기화 정비제도의 기지정비와 창 정비 교육과정을 이수한 셈이며 이것을 인연으로 하여 공군기교단 기술학교의 정비교관 실장을 역임한 바 있다.

정비교육대 정비교관실은 기술적으로 전문화되어 있는 공군 정비사의 특기별 교육을 실시한다.

여기에 봉직하는 교관은 모두가 미 공군의 특기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다. 그곳에서 교관으로 일을 하면서 '교육은 성장'이라는 목표아래 한국 공군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비장교 및 하사관의 교육 · 훈련을 위해 노력하였고 공군 전술항공기의 기종 전환과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과과정의 편성에 기여하였으며 요소별 교육내용의 양과 질을 개선하여 공군이 요구하는 수준의 정비사 양성을 목표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전 과정에 걸쳐 교육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평가로 학술 및 기술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고 학술 · 기술 교육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관과 교육방법의 개선, 그리고 교과내용의 확충 및 교관의 교육기법과 의사전달 능력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기술학교 교관 재임 중 마침 군공창 군수장교 요원의 위탁교육 시험에 응시하여 연세대 대학원 경영학과 석사과정을 이수하게 되었으며 당시 각 군에서 선발된 2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했다.

등록금은 국방부 군수국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충당하였으며 이 위탁교육은 두 팀으로 나눠 일부는 고려대 대학원에, 다른 일부는 연세대 대학원 경영학과에 취학하였다.

이 과정은 일반 학생들과 군 위탁교육의 혼합형임을 감안하였는지 정규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충실히 진행되었다.

처음 들어가서 1학기 동안은 대학원 교육을 받으면서 일반대학 학부에 가서 학과별 기초과목을 이수케 하였고 시험평가를 받도록 하였다.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공군의 직무에서 벗어난 자유스러운 학생 신분으로 매일 강의에 출석하다시피 하였고 강의시간 외의 여유시간에는 도서관에서 연구하며 예습, 복습하는 여유있는 시간을 보냈다. 대학캠퍼스의 자유스러운 면학의 분위기를 만끽하면서 공군사관학교 출신으로서의 긴장된 군 복무시절과는 달리 부드러운 마음자세로 생활할 수 있었다.

연대 캠퍼스에서의 자유스러운 생활은 너무 빨리 지나갔다.

대학원 석사과정의 학위논문 제목은 '대한민국 공군항공창의 공정관리에 대한 고찰' 이었다.

초급장교시절 공군항공창 기술연구소 조사연구실장과 창 본부 생산관리실 계획과장의 경력, 그리고 도미교육의 경험으로 무난히 학위를 취득했다고 생각된다.

대학의 자유스러운 분위기에 젖어있었던 탓인지 공군의 규칙적인 생활로 복귀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공군에 복귀하였을 때 공군본부의 경영관리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공군대학에 자원관리과정이 설치되어 전 공군의 대령급 지휘관 참모의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었다.

그 교육과정의 교관요원으로 미국 대학원에서 위탁교육을 이수한 중령 및 소령급 장교들로 팀이 구성되었으며 나도 이 팀의 한 사람으로 활동하였다.

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나 자신이 공군에 기여한 바에 대하여 지금도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공군 기교단 기술학교 정비교관실장으로 정비장교 및 하사관의 교육에 임하면서 보다 나은 교과과정의 편성을 위해 진력하였던 지난날의 일을 회고해 보면 공군을 위해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공헌을 하자고 스스로 다짐하며 생활을 했던 것 같다.

중령으로 진급한 후 국방부 기획국 및 합참본부 기획과에 보임되어 국방부에서 경력과 경험을 쌓았으며 국방부와 공군본부와의 유기적인 관련성과 그 유대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특히 기획제도 면에서 상·하급 기관 간의 지휘 및 경영관리체제의 원활한 협조체제의 유지와 상호보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공군본부 기획국 자원관리 연구관으로 있을 때 본부의 일에 너무 열중하다 보니 앞으로 먹고 살 일이 걱정되었다.

사회에 나가서 잘 연결이 안될 경우 취업이 안될 수도 있으므로 무슨 자격증이라도 하나 마련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세무사 자격 취득을 위하여 이력서와 학력증명서를 첨부한 서류를 재정경제부에 제출, 인정을 받아서 자격증을 얻었으며 예편 후 세무사가 나의 두 번째 직업이 되었다.

공군의 초급장교 시절 항공창에 근무할 때의 혈기왕성한 젊음, 그 열의와 성실, 그리고 근무의욕 등 지나간 날들을 조용히 생각해보면 그 당시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백춘득 대령, 한형대 준장 두 분이 항공창의 지휘관일 때 두 차례에 걸쳐서 표창장을 받았는데 표창의 내용이 간단한 몇 자의 글이 아니라 타자지 1매에 이르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이었다.

이것이 동기가 되어 보다 헌신하는 마음으로 근무에 임하게 되었고 실무에 관해 보다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하여 많은 교육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능력개발과 자질향상을 도모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다. 지금도 그 때의 표창장을 세무사 앨범수첩에 고이 간직하고 있으며 과거를 되짚어 볼 때마다 지난 초급장교 시절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지휘관에 대하여 경의와 감사하는 마음이 앞선다.

이렇게 나는 젊음을 불태웠던 공군에서의 21년간의 복무를 마치고 명예스럽게 공군중령으로 예편하게 되었다.

공군시절 건군 20주년에 건군기장을 받아 많은 감회를 느꼈으며 과학기술로 선진화할 한국공군의 현대화는 끊임없이 이룩되어야 하기에 후배들의 피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리라 당부한다.

● 사우디아라비아 시절

1976년 2월 24일, 21년간의 공군생활을 접고 사우디아라비아 주재 미국 빈넬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다.

빈넬사의 한국 지사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시험에 응시하여 선발이 되었고 빈넬회사의 재산관리(Real Property)의 직책을 부여받았다.

이 회사는 미 국방부의 정책에 의거 사우디아라비아 국방경비대의 현대화 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인 리야드(Riyard)에 있으면서 국방경비대의 교육 및 기술지원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 회사의 종업원으로 한국인이 많이 채용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 회사의 임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대미외교와 중요한 관계가 있다.

미국에 있어 사우디아라비아의 기름자원의 획득은 중요하며 미국의 산유량만으로는 수요충족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자원에 수입의 많은 양을 의존하고 있었다.

한국도 유류의 공급을 사우디아라비아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현대에 와서 유전자원으로 부국이 되어 오일달러가 넘쳐나는 풍족한 나라가 되었으나 원래는 양떼의 유목민으로 오아시스를 찾아 헤매던 빈약한 나라였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양고기를 일상음식으로 많이 섭취하고 있다.

사막의 양떼는 비가 오지 않는 사막에서 자라는 선인장과 같은 뻣뻣한 풀을 먹고 사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양떼들은 영양 많은 부드러운 풀을 먹으며 자란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풍토병을 이야기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강우량이 거의 없어 바람이 불면 모래가 날아다닐 정도로 기후조건이 나쁜 곳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책상 위에 모래가 가득히 쌓여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러한 풍토병으로 장수하기 어려운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다.

미국 빈넬회사는 사원들에게 일년에 한 번 정기휴가를 주었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고대문명의 발상지인 이집트를 관광하게 되었다.

당시 이집트 수도 카이로(Cairo)의 내셔널호텔(National Hotel)에 여장을 풀고 이집트에 온 여러 나라의 관광객과 함께 카이로 수도 근교로 버스에 몸을 싣고 관광에 나섰다.

카이로(Cairo)의 인구는 340만명이며 알렉산드리아(Alexandria)에 215만, 기자(Giza)에 210만명이 살고 있다고 한다.

버스를 타고 나일(Nile)강을 지나면서 고대문명의 발상지로 고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그 나일강의 역사에 젖고 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강폭은 한강에 비해 좀 좁은 듯 했으나 물이 맑지 않고 누런색(황색)이며 강물의 깊이가 한강과는 다르고 수량이 많지 않은 것 같았다.

나일강 유역의 농경지에서 농부들이 소를 몰고 농사짓는 풍경을 볼 수 있었다. 이집트(Egypt)는 농업기술이 발달하여 농산물을 2모작, 3모작하고, 솜(棉花)재배가 유명하며 미국이나 구라파로 수출을 한다.

이집트는 기원전 4000년경 파라오(Phrao)시대에 이미 문명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나일강을 지나 피라미드를 구경하였다.

나는 피라미드가 한두 개 정도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서보니 적은 피라미드를 합치면

열개도 넘지 않는가!

피라미드는 이집트 제왕의 무덤으로 거기에 안장하면 부활하여 다시 제왕이 된다는 믿음의 상징이며 사방 2미터 정도 크기의 돌을 보기 좋게 깎고 다듬어서 만든 축성물이기도 하다. 피라미드 옆에 스핑크스가 있다.

이 석상은 피라미드를 수호하기 위해 4500년 전에 노란 돌(황색)로 만들었으며 이제는 풍화작용으로 많이 일그러져 있었다.

나는 2박 3일의 이집트 관광을 끝마치고 빈넬회사의 숙소로 돌아왔으며 사우디아라비아 빈넬회사에 3년간 봉직하고 돌아왔다. 특히 감회가 깊은 것은 사우디아라비아 주재 빈넬회사의 총 지배인이었던 존 호프링(Jhon Hoefling) 장군인데 이분은 웨스트포인트 출신의 미 육군 예비역 소장으로 한국전쟁 시 보병 소총 중대장으로 참전한 바 있는 역전의 용사이기도 하다. 그 분은 한국참전의 인연 때문이었는지 내게 약간의 상금과 함께 공로 표창장(Meritorious Awards), 그리고 감사장(Appreciation Awards)을 수여하였다.

나는 웨스트포인트 출신인 장군의 투철한 국가관과 충성심에 대하여 뜨거운 존경심을 갖고 있으며 장군의 건강과 영광, 그리고 장수를 하느님께 기원하고 있다.

● 세무사 시절

1979년 1월 20일, 세무사회에 등록하고 세무사로 개업을 하여 23년을 보냈다.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사무소를 차리고 사무장, 여직원 4~5명과 함께 새롭게 출발을 했었다.

연세대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한 학력과 경험으로 대학원 케이스 세무사가 되었으므로 세법에 좀 어두워 초기에는 업무수행에 미숙한 점이 다소 있었다.

세무회계는 초기에 종합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주로 다루며 국세청의 업무방식이 과세제도에서 자기계산, 자가 납부의 민주세정으로 전환함에 따라 관련세제 역시 점차 현대화되어 가고 있다.

세무사의 직무는 국세청과 납세자의 중간에서 교량의 역할을 하여 적정하고 공평한 납세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며, 복잡한 세무행정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세법에 정통해야 하고 관련법규에 정통해야 함은 주지의 사실임을 어찌 모르겠는가?

그러나 사무장, 임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직무를 수행하다 보니 20여 년간의 세무사 업무를 대과없이 마칠 수 있었고 2001년 12월 31일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세무사로 활동하는 동안 한국 세무사 석사회 표창과 거북이 상을 받았으며 한국전쟁에 참전하고 자유민주주의와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을 한 사람들에게 주는 참전용사증서를 받아 특히 감개가 무량하였다.

그리고 보니 1954년 11월 1일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공군 소위로 임관한 후 한국공군에서 21년, 세무사로 23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국방경비대의 현대화 계획에 3년, 따라서 2002년 6월 4일까지 도합 47년간 현역으로 일을 한 셈이다.

돌이켜보면 23년간의 세무사 업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광주서중학교(구육년제) 선배이신 변호사 겸 세무사 임영득 회장께서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은덕이라 생각하며 이 기회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이다.

회원기고

회귀본능

15기 사관 명정수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부모를 못 마땅해 하다가 나이가 들고 노인의 대열에 끼게 되면서 자기부모에 대한 경외감과 과거의 부모에 대한 자신의 처신에 대해 후회를 하게 되곤 한다. 이것은 대자연의 회귀본능에 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달이 30일에 걸쳐 지구 주위를 계속 맴돌고,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365일에 걸쳐 빙글빙글 돌고, 태양계가 수 억년을 걸쳐 은하세계를 반복적으로 이동하고, 또 가깝게는 일년생에서부터 다년생에 이르기까지 식물이 싹터서 성장하여 다시 씨를 남기면 그 씨가 다시 생장하여 같은 과정을 밟는 등, 이러한 것은 모두 자연의 회귀의 법칙이다. 인간 역시 생로병사의 반복적인 과정을 거쳐 가고 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은 물론,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은 회귀본능을 가지고 있다. 사람은 태어난 곳을 항상 가장 편안하고, 평화롭고, 이상적인 곳으로 무의식중에 느끼며 살아간다. 밑바탕에 깔린 이러한 회귀본능은 우리의 삶에 많은 근본적이며 특징적인 본성을 심어준다.

때로는 과거를 무조건 미화하는 형태로, 또는 과거를 돌아보고 동경하며 현재에 대한 적응을 거부하는 현실적인 무능력의 형태로 현실도태에 이르는 경우도 많이 나타난다. 대개의 경우, 아무리 불행한 현실에 처해 있는 사람도 과거에 좋았던 기억을 되살릴 수 있고, 또 아무리 행복한 상태에 있는 사람도 내면적으로는 과거의 아련하게 더 좋았던 추억을 가지고

있다. 현실에서는 힘들고 어려웠던 일일수록 과거의 일로 되어 돌이켜 볼 때는 더 뿌듯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게 되는 것도 이러한 경우이다.

더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어렸을 적에 그림 같은 시골마을 동네의 양지녘에 가까운 뒤편으로 나지막한 산과 돌담을 등지고 먼 앞산으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보며 일어나고, 앞마당에서 개구쟁이 짓을 하며 뛰어 놀고, 논 밭길을 걸어 학교를 다녔던 사람이면 지금 그렇게 소중하고 값진 마음의 자산은 어느 누구의 재산이나 자부심 못지않게 크고 확실한 유산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유년기 시대정신 속으로 들어간 유산은 일생을 정신적으로 넉넉하고, 여유 있고, 새로운 도전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성숙한 천성을 심어주어 청년기로의 안정적인 발전을 유도해 준다.

나는 등산을 즐겨하여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꼭 등산을 한다. 그런데 등산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대방동에 위치했던 공군사관학교를 거쳐 간 많은 사람들에게 관악산은 매우 힘든 곳, 나아가서는 지긋지긋하여 생각하기조차 싫은 곳으로 기억되고 있을 것이다. 일년에 봄, 가을에 걸쳐 두 번씩 있었던, 대방동 공사에서 신림동을 거쳐 관악산 정상을 넘어 연주암에 40여 명의 편대별로 집합했던 관악산 강행군은 생도생활을 하며 가장 힘들었던 과정 중의 하나였다. 후에는

사망자까지 생겨 좀 조정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역시 어려운 과정 중의 하나였다. 그때 기록을 보면 편대 전원이 1시간 15분 정도에 도착하면 우승을 하곤 했다. 지금 산에 다니며 보니까 산을 잘 타서 빨리 가는 사람이 2시간 30분 내지 3시간 정도는 걸릴 것을 1시간대에 주파한 것이었다.

정말 사관생도의 체력은 대단한 것이다. 그리고 좋아하건 그렇지 않건 관악산 강행군은 모든 사람에게 무척 신경이 쓰이는 생도생활 과정이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산을 좋아하지 않고 관악산 강행군을 지긋지긋해 하시던 과거의 연세 드신 대방동 공군사관학교 출신 70대 노인들이 관악산아래 서울대 입구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어떤 기수는 매일 아침마다 모여서 가벼운 등산과 산책, 환담을 한다는 것이다.

그 당시에는 관악산 정상에서 어디가 멋있게 보이는지, 원효 대사가 경치의 아름다움과 바위의 우람함에 자리를 정하고 불공을 드렸다는 연주대가 어디에 있는지 그렇게 여러 번 오면서도 느끼지 못했었는데, 지금 정상에서 보이는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 품에 안긴 서울과, 연주대를 배경으로 보이는 한강을 따라 펼쳐지는 서울의 경치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생로병사의 과정을 밟으면서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의 정신적인 유산들을 만들어 가며 대개는 각자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간다. 그러나 특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기의 자산을 공유시킬 수 있도록 예술이라는 형태로 표현하여 더 가치를 발휘시키는 생을 살아가기도 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역, 국가의 차이에 관계없이 사관학교라는 곳은 가장 엄격한 교육과 엄격한 규율을 적용하며 젊은이들을 교육시키는 곳이다. 특히 "사관"이라는 말은 그래서 여러 가지의 경우에 붙여서 그 의미를 강조하곤 한다. 물론 대표적인 것이 "정규사관학교"지만 다음으로 많이 알려지는 곳이 "간호사관학교"일 것 같다. "스파르타식" 교육이라는 직설적인 표현이 더 적합한 "사관학교식" 교육이라는 말도 흔히 강조된다.

정규사관학교라 불리는 육 · 해 · 공군사관학교는 그 교육이나 생활에 있어서 가장 힘든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교육을 받을 당시에는 가장 힘들어하고 또 다시는 그러한 과정은 근처에도 안 가겠다고 다짐하던 사관학교 출신들 가운데 많은 수가 자기의 힘들었던 사관학교에 대하여 가장 많은 애착과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니 한술 더 떠서 향수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 이유는 어렵고, 정의로운 교육을 받은 것에 대한 자부심이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거쳐 성장, 발전하며 사회로 진출해온 많은 사람들을 관찰하면 흥미로운 결과를 일부 얻을 수 있다. 어려웠던 과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자기 자신의 인생역정의 중요자산인 정신문화의 보따리 속에 긍정적인 포장으로 곱게 간직한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욱 더 아름답고 바람직한 자산으로 불어나서 대부분의 경우 현실적인 삶과 생활에서 성공적인 경우로 관찰된다. 이러한 현상은 한발 짝 물러서서 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다. 과거를 힘들고 부정적인 측면에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래를 향한 도전에서 실패적인 요소에 중심을 두고 실패를 면하기 위한 노력이 중심적인 노력이 되기 때문에 목적하는 지향점이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에 조건부로 설정이 됨으로써 조우하지 않게 될 실패의 요소도 일단 부딪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필요이상의 조치를 한 후에야 다음 과정을 향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긍정적인 관념을 가지고 살아오는 사람들은 성공적인 측면에 목표를 설정하고 뛰어가기 때문에 실패의 요소가 되는 장애물들을 부지불식간에 뛰어넘어 성공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삶의 과정은 우리가 노년의 사람들을 볼 때 그 얼굴에 찌들려 산 사람과 마음을 느긋하게 긍정적으로 산 사람을 확연히 구별할 수 있도록 해준다.

얼굴에 온화한 느낌과 평안이 깃든 사람은 과거나 현재에 대한 불만을 긍정적인 자세로 소화하며 살아온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남들이 보아도 우선 긴장감을 느끼게 한다.

특히 정규사관학교와 같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극복해 내기 힘든 과정을 거친 사람들의 경우 긍정적인 삶을 영위한 사람과 부정적인 삶을 영위한 사람들의 인생노년이 밖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회귀본능이 강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기도 하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니까 인생과정에 가장 강한 자극을 받았던 곳일수록 자기에게 긍정적으로 많은 것을 준 곳으로 생각하니 그리워지고 동경하게 되는 과거가 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과거는 아름다운 추억이요, 그리워하며 다시 돌아가 볼만한 추억이다.

나쁜 과거를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순수한 현실에 전적으로 기대어 사는 동물들의 회귀본능은 인간이 본받아야 할 좋은 삶의 방식이다.

*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말 *

많은 말 중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말은 격려의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격려의 말을 예술이라고 표현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불편과 원망의 말, 상처 주는 말 대신에,
좋은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합시다.

격려는 기적을 낳습니다. 격려는 "그렇지" 하고 일어서게 합니다.
격려하면 받는 사람의 기쁨이 크지만, 격려하는 사람도 기쁨이 남습니다.
격려는 꽃과 같아서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에게 향기를 남깁니다.

– 좋은 글 중에서 –

푸른(Blue)색 찬가

25기 사관 **윤용현**

우주인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바라보면 파랗다고 한다.

푸른 하늘을 창공(蒼空)이라 하고 뭉게뭉게 피어나는 흰 구름을 백운(白雲)이라 한다. 백운(白雲)을 지나가는 나그네에 빗대지만 청산(靑山)은 주인에 비유하는 한편, 청운(靑雲)은 높은 지위나 벼슬을 뜻한다.

입신출세하려는 꿈을 청운의 꿈이라 하고, 속된 세상에서 벗어나려는 고결한 의지를 청운의 뜻을 세웠다고 말하며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높은 사람을 청운지사(靑雲之士)라 말한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미래의 밝은 모습을 그려 보는 설계도인 청사진(靑寫眞, blue print) 속에서 우리의 청년(靑年)들을 발견하게 된다.

아무튼 청년(靑年)은 모두 푸른 빛깔이요,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이다.

청년(靑年)은 바로 우리 사관생도와 젊은 위관급(尉官級)장교에 해당된다. 그래서 청운(靑雲)의 뜻을 품은 청년(靑年)은 청사(靑史)를 빛낼 수 있어야 한다.

청출어람(靑出於藍)이란 쪽에서 나온 물감이 쪽보다 더 푸르다는 뜻으로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는 말이다. 제자가 스승보다 나아야 희망이 있고 우리의 미래가 밝다.

백안시(白眼視)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남을 업신여기거나 냉대하여 흘겨보는 뜻이지만 청안시(靑眼視)는 남을 기쁜 마음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푸른 제복의 대명사는 군인을 뜻하는데 육군을 초록색으로 나타낸다면 공군은 푸른색으로 그린다. 미국의 대통령관저는 백악관(白堊館 : White House)이지만 우리나라 대통령관저는 청와대(靑瓦臺, Blue House)다.

푸른색 기와로 단장을 해서 청와대라 한다. 우리나라 국기의 태극 문양도 반은 청색(靑色)이다.

회원기고

교통신호도 원래는 녹색(green color)이지만 우리는 청신호(靑信號)라고 할 뿐 아니라, 앞일에 대한 순조로운 빌미를 뜻하는 말이다.

그래서 청신호가 켜져 있다고 하면 모든 일이 막힘없이 잘 풀리는 것을 뜻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나라 대표색도 푸른색이라 할 만하다. 우리나라 김위찬 교수가 쓴 책 "블루오션 전략(Blue Ocean Strategy)"이라는 책은 세계적 경영전략서로 알려져 있다.

이 책은 프랑스 유럽경영대학원 '인시아드'의 한국인 김위찬 교수와 르네 마보안(Renee Mauborgne) 교수가 1990년대 중반부터 연구해 온 가치혁신(value innovation) 이론을 집대성한 기업 경영전략론이다.

2005년 2월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 출판사에서 출간하자마자 세계적 베스트셀러로 주목받으며 26개 언어로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번역 출간되었다.

한국에서도 삼성전자(주)와 LG그룹이 블루오션전략을 경영전략으로 도입할 것을 선언하면서 정계 · 재계 지도자들의 필독서가 되었다.

블루오션(푸른 바다)이란 수많은 경쟁자들로 우글거리는 레드오션(red ocean : 붉은 바다)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경쟁자들이 없는 무경쟁시장을 의미한다.

기업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경쟁시장이 아니라, 경쟁이 없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블루오션 전략은 산업혁명 이래로 기업들이 끊임없이 거듭해 온 경쟁의 원리에서 벗어나, 발상의 전환을 통해 고객이 모르던 전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한다는 전략이다.

이 새로운 시장은 차별화와 저비용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기업과 고객 모두에게 가치의 비약적 증진을 제공하는 시장으로, 다른 기업과 경쟁할 필요가 없는 무경쟁 시장이다. 쉽게 말해 기존의 치열한 경쟁시장 속에서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매력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시장, 곧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내는 전략을 말한다.

이러한 경영 전략은 시장원리뿐만 아니라 국제 외교나 국방, 인간관계에서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는 Win-Win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시장경제원리에서 보면 상대를 이기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Win-Lose게임이나, 너 죽고 나죽자는 무모한 Lose-Lose게임을 피하는 영리하고 지혜로운 선택이 아닐 수 없다.

증권시장에서 우량주를 블루칩(blue chip)이라 한다. 주식시장에서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경기변동에 강한 대형우량주이다.

오랜 기간 안정적인 이익창출과 배당지급을 실행해 온 수익성 · 성장성 · 안정성이 높은 종목으로 비교적 고가(高價)이며 시장점유율이 높은 업종대표주를 일컫는 말이다.

블루칩(blue chip)의 기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유력한데, 카지노에서 포커게임에 돈 대신 사용되는 흰색 · 붉은색 · 파란색 칩 가운데 파란색이 가장 고가로 사용된 데서 유래되었다는 설과 미국의 소[牛]시장에서 유래되었다는 설로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미국 뉴욕의 월가(Wall Street)는 원래 유명한 소시장으로 정기적으로 열리는 황소품평회에서 가장 좋은 품종으로 뽑힌 소에게 파란색 천을 둘러주었는데, 황소는 월가의 강세장을 상징하는 심벌로서 우량주라는 뜻으로 생겨났다고 한다.

귀족혈통을 영어로 blue blood라고 한다. 우리 사관학교 212비행대대는 전투조종사가 되기 위한 첫 관문이다. 여기에 조종사 회관인 청조(靑鳥)회관이 있다. 파랑새(bluebird)를 청조(靑鳥)라고 하는데 반가운 사자(使者)나 편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려움을 이기고 입신출세한 사람을 파랑새의 꿈을 이루었다고 한다.

그와 반대 의미로 파랑새 증후군(Bluebird Syndrome)이라는 말이 있다. 벨기에의 작가 마테를링크의 동화 〈파랑새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비현실적인 계획과 희망으로 장래의 행복만을 몽상하면서 현재의 할 일에 정열을 느끼지 않는 증후군을 이르는 말로써 주인공 치르치르와 미치르가 파랑새를 찾아 헤매면서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좀 더 이상적인 일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젊은이들을 표현한 말이다.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증후군은 경계해야 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상상의 동물인 용(龍) 중에서 푸른색을 띤 청룡(靑龍)이 있다.

우리 사관생도들의 생도대 편제는 4개 중대로 되어 있는데 3중대 중대마크가 전통적으로 청룡(靑龍)이다. 1중대는 호랑이인 백호(白虎), 2중대는 붉은 봉황인 주작(朱雀), 4중대는 거북을 뜻하는 현무(玄武)다. 청룡(靑龍)은 백호(白虎), 주작(朱雀), 현무(玄武)와 더불어 하늘에 있는 사신(四神)의 하나이며, 동방(東方)의 수호신으로 삼고 있다. 서방(西方)은 백호, 남방(南方)은 주작, 그리고 북방(北方)의 수호신은 현무다. 고대에서는 사신(四神)과 결부시켜 동 · 서 · 남 · 북에 각각 청(靑龍) · 백(白虎) · 주(朱雀) · 흑(玄武)의 네 가지 색을 배치했다. 이는 만주 지안현[輯安縣] 퉁거우[通溝]에 있는 광개토대왕의 고분(古墳) 벽에 걸린 사신도에서도 볼 수 있다.

청룡(靑龍)이란 말은 연호(年號)나 기(旗) · 강(江) · 교(橋) · 산(山) · 도(刀) 등 말의 머리에 붙여 쓰기도 한다. 칼(刀) 중에서도 청룡도(靑龍刀)는 옛 중국에서 보병과 기병들이 육전과 수전에서

사용했던 칼이다.

날은 반달 모양이고 칼 등의 중간에 딴 갈래가 있어 이중의 상모를 달도록 구멍이 있고 밑은 용(龍)의 아가리를 물린 형태의 칼이다. 매우 위용을 자랑했던 칼이다.

또한 말을 잘 타는 사람을 청룡이라고도 한다. 옛날 무사(武士)에게는 말을 잘 타는 것이 필수였으며 말을 타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장교의 반열에 오를 수가 없었다. 무관 선발 시험에서는 말 타기를 통과해야 본 시험인 필답고사를 치를 수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형편이 어려워 말을 탈 기회를 갖지 못했던 사람은 장교시험을 보기 전에 부사관으로 입문하여 말 타기를 익힌 다음에 장교 시험에 응시했다고 한다.

옛날에 장교가 되기 위해서 말 타기를 잘해야 하듯이 요즘에는 훌륭한 공군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잘 타야 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함을 느낀다.

필자는 사관생도들에게 항공역학과 비행역학을 주로 강의한다.

어떻게 하면 비행기를 잘 조종하도록 원리와 이론을 터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한다. 청출어람이란 말처럼 지금의 후배 사관생도들은 매우 훌륭하다. 모두 전국에서 우수한 인재들만 모였다.

많은 대학 교수들이 우리 사관생도들의 우수성과 건전함에 부러움을 금치 못한다. 나로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청조처럼 여겨진다.

청운의 뜻을 품고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하여 저 푸른 하늘을 나는 파랑새가 되어 공군의 블루칩으로서 나름대로의 청사진을 마음껏 펼쳤으면 한다. 푸른색(blue color)은 분명 우리 공군의 컬러이다.

우리 공군은 건강한 공군 만들기의 일환으로 Rainbow Project를 추진하고 있다. Rainbow color 중 Blue 색상은 안정, 믿음, 희망을 의미하고 Rainbow Airforce Campaign은 항공기의 운영률 제고, 과학화된 비행훈련, 기능 중심의 군수 조직 개선을 통한 안정적 전투력 유지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BLUE라는 단어에 다음과 같은 의미를 부여해 본다.

Bravery(용기), Loyalty(충성), Unity(단결), Effort(노력)

회원기고

조직문화와 학교풍토

24기 사관 이재강

한 조직의 풍토(風土)는 모든 조직적 요인들과 조직 구성원의 개성적 특징들의 조합이라 한다. 개인의 심리적 특성으로 성격이 있듯이 한 사회체제 또는 집단의 성격으로 문화 내지 풍토가 있다는 말이다.

다른 사회체제와 마찬가지로, 교육체제들이 풍토 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주목되어 왔다. 각 학교는 각기 독특한 풍토를 갖고 있으며, 그것은 소속 학생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하위문화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랜 기간을 통해 한 집단은 그 집단 안에 의의 있는 고유문화를 형성함으로써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특성을 지니게 된다.

학교풍토(學校風土 : school climate)에 대한 담론은 비단 학문 세계에서만 회자되는 것은 아니다. 비록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에 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일상에서 그럴듯한 타당성에 근거한 구전을 통해 학교풍토가 회자되곤 하는데, 우리나라 사학의 명문 '가' 대학과 '나' 대학의 경우가 그렇다.

일례로, 졸업 후 사회진출에 있어서 같은 정치학과 출신이라도 '가' 대학 출신은 주로 언론인, 기자 등으로 진출하는데 반해, '나' 대학 출신은 의회 의원이나 기업의 CEO가 많다는 이야기가 있다.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체계적인 연구결과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두 학교의 학생들이 각기 다른 학교풍토에서 기인하는 서로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수긍하는 편이다.

일본의 경우, 실학주의와 경세실업가적(經世實業家的) 품행과 정신을 도야하는 게이오 대학(慶應義塾) 출신은 경제관료 및 금융계 진출이 두드러지고, 학문의 독립과 정당적 정치지향의 와세다 대학(早稻田大學) 출신은 정계진출이 현저하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과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의 진출 경향이 다르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과 예일 대학 출신의 성향이 다르며, 중국의 베이징 대학(北京大學)과

칭화 대학(清華大學)이 차이도 현저한데, 이를 굳이 학문적 용어를 빌려 표현하면 학교풍토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민간대학이 그렇다면 각 군의 정규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는 어떠한가? 사관학교라는 학교체제는 각 군의 필요에 따라, 소정의 교육목표 아래 교육내용과 교육활동이 규정되는 규범조직이기 때문에 풍토나 문화에 대한 인식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규범적 견지에서 보기 쉽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겉으로 드러난 명시적 교육과정(manifest curriculum)만으로 배출되는 졸업생의 성향을 이해하기 힘든 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의 역사적 전통, 입교자원의 특성, 학교의 물리적 환경과 지역사회의 특수성, 지휘관들의 리더십, 동문회의 영향, 민군관계에서의 상호작용 등 보이지 않는 잠재적 교육과정(hidden curriculum)에 의해 형성되는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겉으로 드러난 교육과정만으로 설명하기 힘든 조직의 특성이 각 군 사관학교 학교풍토에서 발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Westpoint)와 해군사관학교인 아나폴리스(Annapolis), 그리고 공군사관학교인 콜로라도스프링스(Colorado springs)의 집단적 성격에 영향을 주는 학교풍토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인 화랑대, 해군사관학교인 옥포대, 그리고 공군사관학교인 성무대의 학교풍토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일도 군대사회학적으로 의미 있을 것으로 본다.

우리 공군은 조직의 지휘원리로서 도전, 헌신, 전문성, 그리고 팀워크를 핵심가치로 설정하여 선포하고, 장차 공군이 요구하는 장교의 상을 윤리인, 세계인, 전문인, 창조인, 그리고 이들을 아우르는 동역인(同役人)으로 상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공군 조직에 내재하고 있는 특성을 그대로 옮어낸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부족하기 쉬운 가치를 앞으로 더욱 보완해야 한다는 당위의 뜻으로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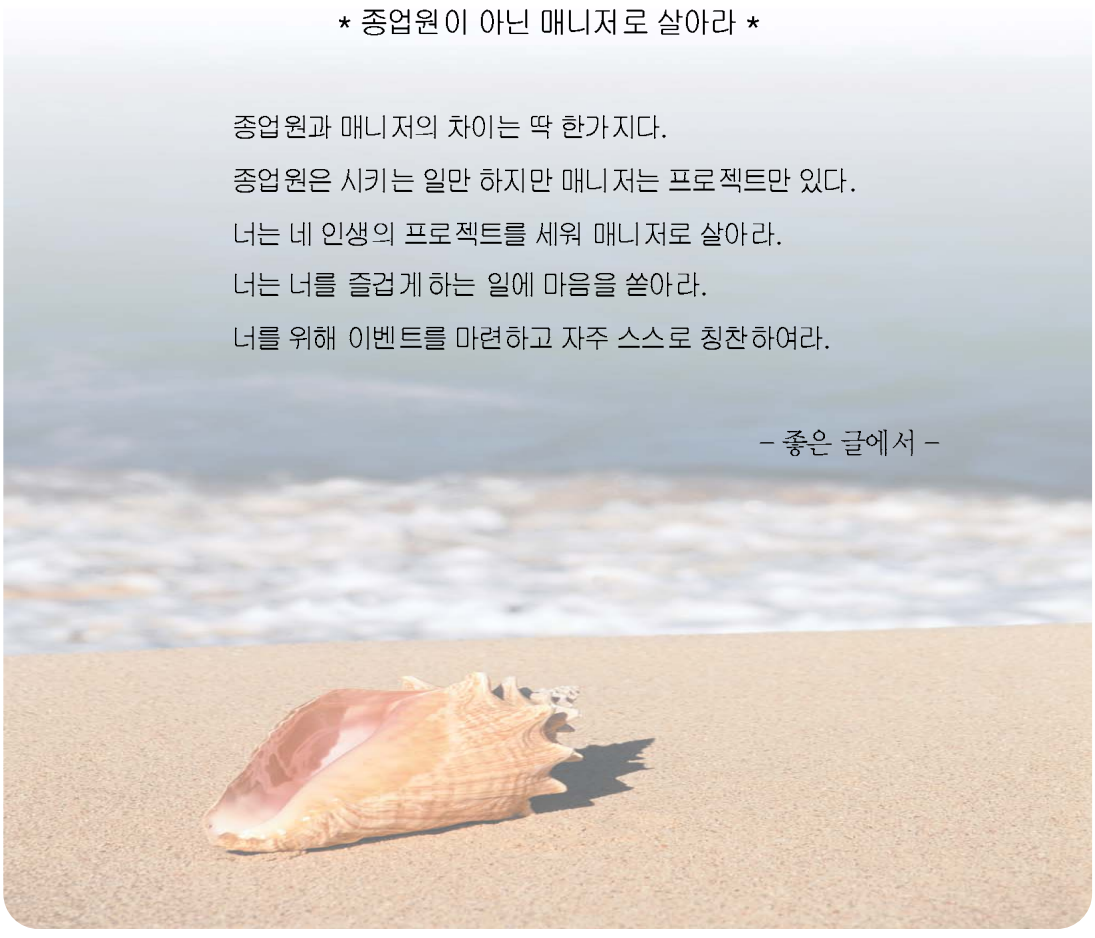
공군의 조직문화 또는 조직풍토에 대한 외부의 평가는 대체로 관대한 편이다. 한 비공식 연구에 의하면, 일반 사회인이 보는 공군 조직의 문화주제어로는 '국제신사', '개방성과 진취성', '준수한 용모', '능통한 영어구사 능력', '신체적 건강', '희생정신' 등 긍정적인 것들이 많다. 그러나 조직 내부로 돌아오면, 그러한 세간의 평가에 자족하지 않고 우리의 조직풍토를 발전적으로 염려하는 이도 없지 않다. 지나치게 전문화된 조직문화를 기능적으로 역할분담이 뚜렷한 야구에 비유하여, 경기자가 비교적 비슷한 기능을 발휘하며 공통의 목표 아래 혼연일체가 되는 축구에 비해 단결력 형성에 취약하다 하기도 하고, 치밀함과 정교함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구성원이 지니고 있는 잠재력을 적분(積分)하기보다는 미분(微分)하는 경향이 있다고 수학용어를 써서 우려하기도 한다.

회원기고

공군사관학교가 문을 연지 어언 60개 성상!

인생으로 보면 갑년(甲年)에 해당하는 지천명(知天命)의 유구한 세월이다. 공군사관학교 졸업생인 성무인(星武人)들은 초창기 경항공기 몇 대로 출발하여, 목숨 바쳐 누란의 위기에 처한 국가를 구한 우리 공군의 '신념(信念)의 조인(鳥人)'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 막강의 공군으로 성장하는 데에 주역을 담당해 왔으며, 지금은 장차 항공우주군으로의 도약을 꿈꾸며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고 있다. 이제는 전체사회의 맥락 속에서 성무인의 역할을 재조명할 때이다. 물리적 차원의 하늘에서 사회적 차원의 하늘로 넓혀갈 때이며, 국가 차원에서의 문화와 조직 풍토를 생각할 때다.

35년 9개월의 대부분을 성무대에서 보낸 성무인으로서 우리가 배출해 온 성무인들의 모습을 애써 그려본다. 새삼스레 그들에게 영향을 끼쳤을 공군의 조직문화와 공군사관학교의 학교풍토를 생각해 본다.



刻舟求劍(각주구검)의 리더십을 경계함

22기 사관 **최병운**

오래 전에 〈상도(商道)〉라는 제목의 소설을 읽은 적이 있다. 돈을 버는 일에도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소설로 기억된다. 얼마 전 우리나라의 대기업 SS의 일은 그러한 점에서 아쉬움을 남기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 글은 돈을 버는 도리에 관해서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 소설의 저자 최인호 선생은 그의 이력에 언제나 그가 공군병장으로 제대한 것을 빠트리지 않고 적어놓고 있다. 그런 그가 나는 좋아서 종종 그의 소설을 구입해서 보고, 가족들과 형제들에게도 읽도록 권한다. 이 소설은 의주 거상 이상옥이 상인으로서 금도의 마음으로 지키려 했던 도리를 〈계영배(戒盈盃)〉라는 상징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 계영배란 문자 그대로 '가득 참을 경계하는 술잔'이다. 이상옥은 그의 방에 백옥처럼 희지도 않고 청자처럼 영롱하지도 않은 질박한 술잔을 하나 두고 애지중지하였다. 그가 이룬 재물에 비하면 이 술잔은 보잘 것 없는 작은 것이었지만 그에게 계영배는 넘어서는 안 될 장엄한 도(道)의 세계를 담고 있었다. 그 잔은 아무리 술을 부어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잔이다.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인간의 욕심을 가득 채우려고 애쓰지 말라는 경계의 회초리였다. 사람은 누구나가 한 가지 정도의 삶의 원칙을 가지고 있듯이 나에게 계영배는 각주구검의 어리석은 짓을 경계하는 교훈을 주고 있다.

각주구검은 보통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각주구검(刻舟求劍)의 리더십은 무슨 일을 하거나 인간관계에서 집착과 독선에 빠지게 하는 고정관념을 경계하는 계영배이다. 각주구검의 고사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면서 칼을 물에 빠트렸는데 칼이 빠진 위치를 뱃머리에 표시해 두었다가 나중에 표시된 배의 밑 물속에서 칼을 찾으려 했다는 이야기이다. 누가 들어도 우습고 어리석은 행동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에 빠진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선하거나 악하거나 유식하거나 무식하거나 상관없이 고정된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오히려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더 쉽게 각주구검의 오류에 빠진다고 한다.

비행착각 버티고(vertigo)는 조종사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고정관념의 작용이다. 항공우주의료원의 전문가에 의하면, 조종사가 버티고에 들어간 것을 인식만 하여도 사고의 80~90%는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 필자는 누구라도 버티고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경계심이 합리적인 우리 공군문화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고 믿고 있다. 전문가들의 고정관념에 관한 사례는 단연 20세기 가장 위대한 업적 중의 하나로 평가되는 헬리코박터균과 그 치료법의 발견에 얽힌 사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균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1982년 호주에 있는 한 병원의 병리학자 로빈 워런과 내과 수련의 배리 마셜 박사다. 유제품 선전에도 등장하는 그들은 처음 이 균의 실체를 학계에 발표하려고 했지만 학계의 전문가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문가들이 수십 년 동안 연구해도 규명하지 못한 위염과 궤양의 원인을 일개 수련의가 발견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위산 속에서 어떠한 균도 살 수 없다는 학계의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그들은 20년 이상을 연구에만 몰두하였고, 그 치료법을 발견한 공로로 2005년 노벨 생리학상과 의학상을 받았다.

사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념은 양날의 칼처럼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사람들이 살면서 배우고 경험하고 익힌 관념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혜의 주머니이며 그 속에 있는 '생각과 꾀'이다. 이러한 지혜의 관념이 없다면 사람들은 세상의 많은 정보를 판단해서 상황에 적합한 행동의 묘수를 찾아낼 수 없다. 이러한 생각의 힘은 바둑의 급수처럼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고정관념이 자신의 관념과 '다르면' 편견이라고 비난한다. 상대방도 나의 그러한 관념을 편견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러한 고정관념의 폐해는 자기 자신의 생각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의 유일한 근거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에 있다.

아주 오래 전에 내가 정석 몇 개를 외워 형에게 바둑을 배우던 시절의 일이다. 나는 형이 내가 아는 정석대로 돌을 두지 않으면 '왜 정석대로 두지 않느냐' 고 마구 화를 낸 웃기는 일이 있었다. 내가 모르는 바둑의 수는 바둑이 아니라는 투정이었다. 또한 나는 종종 자녀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마치 나의 말에는 절대로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말한다. 마음 착한 아이들은 아버지의 말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듣는다. 그러나 나는 마음속에서 또 다른 내가 "너의 생각이 애들이 살아가는 유일한 해법이 아니지 않느냐, 애들의 세상이 다르고 너의 세상이 다른데 그렇게 외통수로 말하는냐?" 라고 반문하는 소리를 듣곤 했다. 마음의 그 소리는 각주구검의 계영배가 나에게 경고하는 꽤나 매서운 목소리였다.

퇴화를 거부하는 사람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달도 차면 기울고, 성하면 쇠하는 것은 인간도 피해 갈 수 없는 자연법칙이라고 한다. 인간의 문명을 이러한 퇴화의 법칙을 거부한 투쟁의 결과라고 하는데 이치를 곰곰이 따져보면 수긍이 간다. 사이버네틱스의 원조 노버트 위너는 2차 대전 당시 대공포가 공중의 표적을 맞추는 과정을 교신과 제어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커뮤니케이션이론을 정립한 천재 수학자이다. 그는 사격과 폭격을 할 때 목표로부터 벗어난 왜곡된 정보를 수정하지 않고 낡은 정보에 따라 사격을 계속한다면 결코 표적을 맞출 수 없으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낡은 고정관념에 기인하는 퇴화의 법칙에 맞서 투쟁할 것을 강조하였다. 나는 퇴화의 자연법칙에 순응하기보다는 이에 맞서 투쟁하는 역리(逆理)의 노력이 진보의 동력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퇴화의 자연법칙에 대항하며 역리의 삶을 사는 평범한 사람을 수없이 본다. 공원마다 산책로마다 걷고 달리고 뛰는 사람들, 그리고 건강관리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9988 1234' 를 모토로 육체의 퇴화를 거부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나보다 젊어 보이는 선배님들의 넘치는 활력이 어찌 그냥 이루어진 것이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신의 퇴화와 투쟁하지 않으려는 나의 게으름에 종종 두려움을 느낀다. TV볼륨은 예전보다 두 치를 높여야 하고, 눈도 흐릿하게 보이며, 머릿속의 단어가 입으로 금방 튀어나오지 않는다. 치매인가 하는 생각도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고정관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다. 긴 이야기이지만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그 두려움은 이제 그만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슬픔을 주지 않고, 원망이 생기게 하고 싶지 않은 간절한 소망을 스스로 무너뜨릴 때의 후회에 대한 두려움이다. 얼마나 더 후회하며 살아야한다는 말인가? 내가 각주구검의 리더십을 경계함은 진실로 이것 때문이다.

회원기고

나의 계영배

나는 진보의 신기함을 두 가지 축에서 생각하곤 한다. 한 축은 나의 관념을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다. 이것은 극진에 이르려는 것이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대안이 되는 또 다른 축은 다른 사람의 관념으로부터 지혜와 꾀를 빌리는 것이다. 먼저, 스스로 고정관념의 수준을 바둑의 치수처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은 책을 읽고, 사색하고, 과거의 삶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군자(君子)처럼 표변(豹變)하고자 하는 것이다. 군자표변(君子豹變)의 표변이라는 말은 종종 지조 없는 사람들이 시류에 따라 곡학아세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는 사람들을 조롱하기 위하여 사용하지만 군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원래의 뜻은 표범의 털 빛깔과 무늬가 아름답게 변하는 것처럼 군자의 언행이 과거의 모자람을 탈피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아름답게 변모하는 것을 칭찬할 때 사용하는 말이다. 이것이 어찌 노력 없이 그냥 이루어지겠는가?

다음으로, 더 유용한 대안은 나와 다른 관념을 가진 사람의 꾀주머니에서 그의 지혜를 빌리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편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로부터 정성어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오래 전의 이야기이지만 리더십의 진수를 보여주는 말이 있다.

크라이슬러의 CEO였던 로버트 이튼(Robert Eaton)이 최고 경영자가 된 후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은 없으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 말이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알 수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준만큼 회사를 성장시킬 것인지 아니면 자기보다 더 잘 알고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의 협력을 구하여 높은 성과를 성취하도록 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다. 경험적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90%의 지도자는 자기의 명령과 지시대로만 할 것을 부하에게 강요한다고 한다.

나는 예전과 달리 이제 준엄한 명령보다는 다른 사람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살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협력은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중국의 사기에 있는 말이다. 智者千慮必有一失, 愚者千慮必有一得은 잘 아는 사람도 한 번의 실수는 있으니 완벽할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더러는 잘 하는 일이

있으니 우매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이다. '지자일실'과 '우자일득'으로 줄여서 사용하는 이 말은 교만과 겸손을 설명하는 구절로 유명하다. 다른 사람과 대화 중에 나는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우자일득의 겸손에서 무서운 내공의 힘을 느끼며, "세상의 이치가 내 손안에 있소이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의 지자일실의 교만에서 깃털보다 가벼운 천박함을 본다. 천박함은 상대방의 말을 미리부터 틀렸다고 단정하거나 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가치가 없는 것처럼 말하는 각주구검의 어리석음과 교만에서 흘러나온 악취와 같은 것이다.

어떻게 하면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우자일득의 생각에서 내가 실천하는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나는 나의 고정관념을 의심한다.

나는 언제부터인가 "비판하지 말라. 무릇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게 된다"는 비판의 부메랑을 경계하게 되었다. 이것은 바둑 8급의 나의 고정관념으로 프로 9단의 수읽기를 논하는 것과 같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의 편견 위에 세워질 결실을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 종종 이러 저러한 소문과 확인되지 않은 일에 관하여 나의 의견을 묻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 나는 사실에 관하여 좀 더 확인될 때까지 판단을 보류함으로써 부화뇌동의 많은 오류와 무고하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었다.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판단보류의 30초 룰'은 무슨 일을 할 때 결심하기 전에 30초만 더 생각하여도 실수를 현저히 줄일 수 있다는 리더십 교훈에서 얻은 것이다. 손만 잘 씻어도 감기의 60%는 예방할 수 있다는 임상실험과 같다. 그러나 확신에 찬 자신의 관념을 편견일 수 있다고 의심하는 것은 굉장히 불안하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보면 의외로 마음이 평안하다.

둘째, 나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존중한다.

대화의 상호주의는 '대접받기 원하면 먼저 대접하라'는 황금률을 적용하는 것이다. 나의 관념이 존중되기를 원한다면 조건 없이 상대방의 의견을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 비난과 논쟁이 어디에서 오는지 말할 필요는 없다. 요즈음 리더십에서 배려니 존중이니 하는 말은 기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관념과 생각과 가치를 있는 그대로 관대하게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집안의 손자와 손녀가 거시기 뭐시기라고 말해도 그 진위를 따지지

않고 즐겁기만 하다. 대화의 즐거움은 상대방의 생각을 인정하는 것에서 나온다. 이것은 서로 다른 의견을 융합하면 더 좋은 의견이 나오기 때문이며, 리더의 위대한 성취는 훈수를 종합해서 묘수(妙手)를 찾는 것이다. 내가 현역시절 부서의 부하직원을 인선할 때 주무 담당자에게 나와 같은 사람은 나 하나로 족하니 나 같지 않은 사람을 선임하라고 주문한 적이 있었다. 내가 리더십에 능했기 때문이 아니라 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잘 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이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의 부서에 보임된 터프한 후배들은 내가 잘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을 앞장서서 충실하게 잘 처리하곤 했다.

셋째, 나는 상대방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융합하려고 한다.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며, 이것을 잘 하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라고 한다. 보통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조금 고려하는 것이 아량 있는 일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은 자기의 생각이 전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조삼모사일 수 있지만 나는 상대방의 생각이 주류이고 거기에 나의 생각을 조금 보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하든지 리더십의 발휘는 물과 기름처럼 융합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의견을 융합하여 최적의 해법을 찾아내는 것이지 나와 다른 것을 찾아내어 버리는 것이 아니다. 보통사람들은 세상의 이치가 음양의 조화라고 말은 하면서 실제로 음은 양을, 양은 음을 내치고 배척하려고만 한다. 요즈음 서양학자들은 문제해결에서 동양의 음양사상을 적용하여 많은 아이디어를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리더십의 위기와 리더의 부재라는 말은 자리를 차고 앉아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의견을 융합할 줄 아는 리더가 없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족한 융합의 리더십을 지적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융합시키는 것이 쉽다면 이 세상에 어찌 리더가 없다고 하겠는가?

맺음의 말

내가 테니스를 잘 하지 못하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정다운 벗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가 테니스 레슨을 받고 있는지 이제 일 년이 다 되어간다. 테니스 레슨은 신체의 퇴화를 저지할 심사도 있고 골프를 자주 할 수 없기 때문에 운동의 대안으로 시작하였다. 20분 레슨에 숨이 꽉 차서 중간에 서너 번 쉬기도 한다. 그래도 이것을 얼마간 계속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진득히 실천해야 한다는 계영배의 교훈 때문이기도 하다.

이렇게 나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어쩌면 독자들의 눈을 어지럽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나로 하여금 스스로 말한 것으로부터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려는 나의 책략이기도 하다. 이렇게라도 앞에서 언급한 것들을 지키고 행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독자의 삶에 일호라도 참고가 된다면 나에게는 큰 기쁨이 될 것 같다.

계영배! 돈을 버는 일에도 지켜야 할 도리가 있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넘어서는 안 될 도가 있다. 피할 수 없는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면, 그리고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하고, 내가 사랑 받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도 사랑 받는 것이 마땅하며, 내가 배려와 존중을 받아야 한다면 다른 사람도 배려와 존중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이 도의 세계는 각주구검과 같은 어리석음과 교만으로부터 해방된 아름다운 세계일 것이다. 그런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이 한 없이 부럽다.

성 냄(禍)

화내는 사람이 언제나 손해를 본다.
화내는 사람은 자기를 죽이고 남을 죽이며
아무도 가깝게 오지 않아서 늘 외롭고 쓸쓸하다.

– 인생의 덕목 –

버리고 비워야 새로 채울 수 있다

21기 사관 금기연

큰 변화를 기대하거나 심기일전할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을 즐겨 인용합니다. 정권이 바뀌고 조직의 쇄신을 강조할 때도 자주 인용되는 말이지요. 그러나 이 말을 그대로 개인에게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무엇을 새로 시작한다고 해서 몸까지 바꿀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저는 "버리고 비워야 새로 얻고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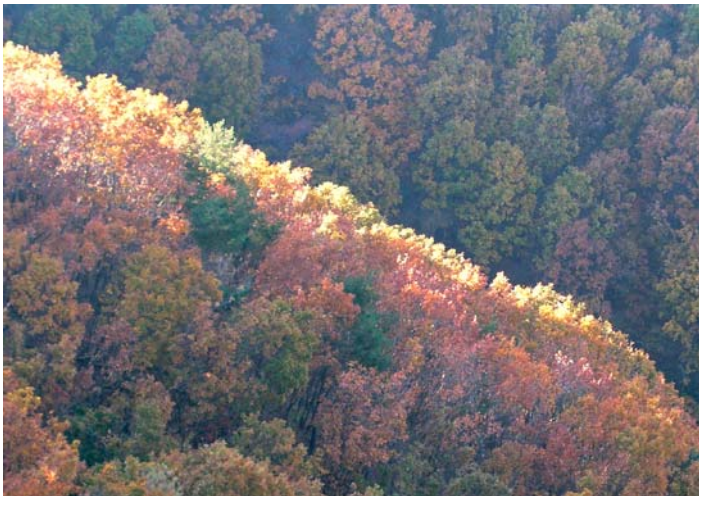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살고 있는 한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가보 도자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어린 손자의 손이 그 가보 도자기에 들어가서는 아무리 용을 써도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침내 할아버지가 용단을 내렸습니다. 손자의 손을 빼내기 위해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소중한 도자기를 망치로 깨트린 것입니다. 손자는 도자기 안에서 주먹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먹을 펴자 사탕이 있었습니다. 그 사탕을 놓치지 않으려고 주먹을 쥐고 있었기에 도자기에 들어간 손이 나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철없는 아이의 어리석은 짓거리라 하기엔 너무나도 손실이 큽니다. 사실 어린 아이들만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에서 몇 십 년을 지냈고, 나이 들어 손자까지 둔 우리들도 어리석기로는 어린 아이들에 못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면 알아듣고 그대로 행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알아도 그대로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름대로의 생각도 있겠지만 이제껏 몸에 배인, 낡은 습관과 생각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혹시 "쉰에 죽고 백에 묻힌다"는 말을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물론, 없을 것입니다. 필자가 최근에 생각해 낸 말로서 출판을 준비 중인 책에서만 언급하였기 때문이지요. 무슨 뜻이냐고요? 나이 50에 은퇴해서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100 근처에서 하늘나라로 가는, 평균연령이 늘어난 요즈음 노인의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즈음은 많은 사람들이 소위 사오정이라고 하여 쉰도 되기 전에 퇴직을 강요당합니다. 그리고는 적당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뚜렷이 무엇인가 할 것이 없다 보니 편안함을 쫓게 되고, 새로 힘들여 노력해야 하는 일은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 나이에 새로 무엇을 시작하기가 두렵고, 세상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지요. 도전하고 창조하는 정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쉰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학과 제도의 발달에 힘입어 목숨은 모질게도 이어집니다. 팔십을 훌쩍 넘어 머지않아 백까지는 모두가 살게 될 것입니다. 백에 묻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쉰에 이미 죽은 다음 실제로 묻히기까지 50년을 허송세월로 보내는 것은 개인이나 주변의 안타까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와 국가에 크나큰 손실이자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백에 묻히기까지 50년을 그냥 그렇게 보내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새로운 선택이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껏 몸에 배인 것을 버리고 새로운 무엇을 찾아 나서는 용기를 내기가 그리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험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하지 않고 이전과 같은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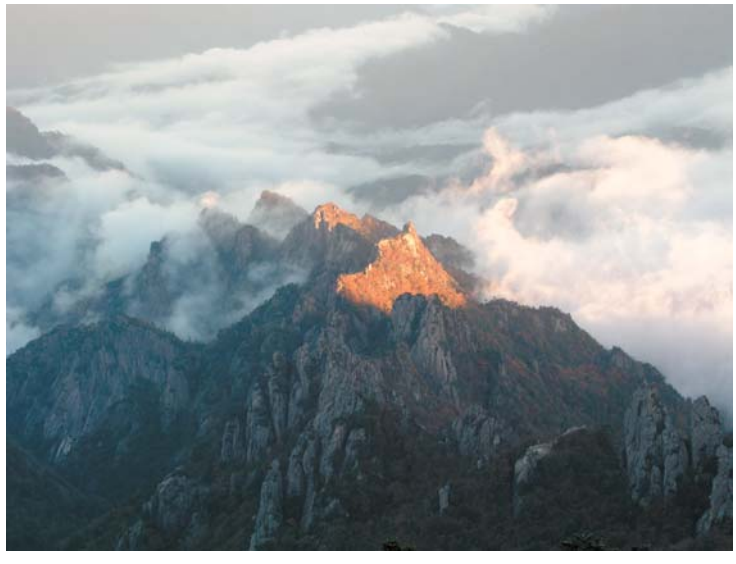


으로 지내는 것이 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손에 잡은 사탕을 놓치지 않으려고 주먹을 펴지 못하는 어린 손자와 하등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미 가진 것을 버린다는 것은, 다시 말해 새롭게 변화한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굉장한 모험이 뒤따르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가득 찬 그릇을 비우지 않고는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가 없는 것이 이치입니다.

흔히들 군 출신들은 사회에 나오면 어렵다고 합니다. 너무 다른 세상에서 살았고, 그러다보니 사회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사회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일이 별로 없는데다 이미 나이도 많아서 안타깝지만 그냥 조용히 지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상태로 50년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선입관에 불과합니다.

남들이 선입관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다보니 우리도 자신에 대해 똑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남들이 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와 같은 선입관을 계속 주입합니다. 태국의 수도 방콕에 가면 '황금불상의 사원'이 있습니다. 쉴 새 없이 대형 관광버스들이 들이닥치는 그곳에는 세계 최대의 황금불상이 있습니다. 높이 4미터, 무게 5.5톤으로 2억불이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황금불상이 있는 옆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회색 불상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사진은 황금불상의 원래 모습이라고 합니다. 알고본즉, 1957년 고속도로 공사를 위해 불상이 있던 건물을 부셔야 했고, 불상을 옮기기 위해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는 순간 예상보다 엄청 무거운 무게로 인해 불상이 떨어져 균열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주지 스님이 손전등으로 균열을 검사하는데 반사되어 나오는 빛이 이상하더랍니다. 그래서 불상을 싸고 있던 회반죽을 깨트려 벗겨내자 찬란한 황금불상이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고 합니다. 수백 년 전 미얀마의 군대가 수코타이 왕국을 침략하자



승려들이 빼앗기지 않으려고 불상에 두터운 회반죽을 입혀 위장을 하였고, 모두 학살당해 아무도 황금불상의 실체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은 엄청난 가치를 지닌 황금불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른 십만 명의 사람들보다 무언가 한 가지는 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강점구역' 이라는 이것을 찾아 계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진가를 모르기는 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모르고 하는 말에 속아 우리도 덩달아 자기 자신에게 회반죽을 마구 칠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먼 그들과 합작해서 말입니다.

우리 군 출신에게는 오랜 군 생활로 몸에 익힌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절제와 규율 및 그를 토대로 한 건강, 몸에 익은 리더십과 질서의식 등은 민간인들이 도저히 흉내내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거기에다 역경을 참아내는 인내력과 적응력, 상황판단 능력과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돌파하는 능력 등은 일반인들이 부러워하는, 군 출신이 가진 대단한 장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역 후 군 출신들이 이렇다 할 일거리를 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사실 일부 우리 군 출신 중에도 안타깝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쉰에 죽고 백에 묻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저는 '버리지 못하기 때문' 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냐고요? 남들이 우리에 대하여 갖는 몇 가지 선입관 – 너무 다르다, 아는 것이 없다, 할 일이 없다, 써먹을 수가 없다, 이미 늦었다 등 – 을 우리 스스로 그대로 받아들여 고이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부하고 버려야 할 것들을 생각 없이 그대로 수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낡은 선입관을 버리고 다음과 같이 새로운 생각들로 채워 봅시다.

회원기고

'사회에 대해 아는 게 없다'는 말은 일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당시 우리에게 주어졌던 일, 즉 군무에만 열심히 했다는 말입니다. 딴 생각 않고 열심히 나라만 지켰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일이 주어지면 군에서와 마찬가지로 딴 생각 않고 열심히 할 것이며, 열심히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전념하면 몇 년 안 가서 그 분야에서도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너무 다르다'고도 합니다. 요즘처럼 다양성을 강조하는 시대도 없습니다. 똑 같은 것이 아니라 독특한 무엇을 찾아 헤매고 다닙니다. 그렇다면 남들과 전혀 다른 우리의 경험이야말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줄 수도 있는 귀중한 자산임이 분명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입니다.

'쓸모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군 출신이기에 가능한 일들도 많습니다.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으로 가득 찬,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빛을 발휘할 분야를 찾으면 됩니다. 필요한 기술과 지식은 배우고 익히면 됩니다. 지식은 배우기 쉽지만 태도와 자세는 그리 쉽게 고치거나 익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 일이 없다'고도 합니다. 당장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군 출신 개개인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면 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일에 몇 년이고 집중하면 반드시 대가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를 필요로 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기회는 오기 마련입니다.

'너무 늦었다'고도 하지요. 하지만 이것은 세상 돌아가는 현상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의술과 제도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난 것은 누구나가 실감하는 일입니다. 2007년 말 현재 55세의 남자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평균여명이 25년입니다. 군 출신들은 일반적으로 체력관리를 잘 하고 있고, 위기에서도 쉽게 벗어납니다. 따라서 군 출신이 평균보다 훨씬 오래 살 것이 분명합니다. 긴 세월이 우리 앞에 더 살아가라고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몇 가지 분야를 새롭게 시작하여 대가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절대 늦은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곧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크든 작든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학교와 직장, 결혼과 같은 큰 선택을 앞두면 많은 고민을 하며 신중한 판단을

내리려고 노력합니다. 반면에 모든 일상의 활동에 반드시 따르는 작은 선택은 거의 의식도 하지 못하고 지나칩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눈을 뜨고 나서 조금 더 있을 것인가 아니면 바로 일어날 것인가, 아침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출근을 버스로 할 것인가 전철로 할 것인가 등등… 그러나 살아가는 매 순간 순간,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곧 선택을 한다는 사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의 선택은 결과를 낳고, 그 결과에 따라 우리는 또 다른 선택을 합니다. 때로는 그 결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선택을 강요받기도 합니다. 종종 하나의 선택이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좋은 선택은 좋은 결과를 낳고, 나쁜 선택은 나쁜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선택을 잘 하여야 합니다. 아니, 그 다음에 해야 할 선택에 미칠 영향까지 미리 고려하며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선택을 함에 있어서 많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경험, 지식, 능력, 태도, 환경 등등. 그러나 최종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결국 각자의 태도입니다. 같은 환경, 같은 지식,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가 내리는 결정과 그로 인한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다음의 예화를 한번 보시지요.

미국의 어느 알코올 중독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의 술값으로 넘어간 집을 떠나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한 심리학자가 부모의 알코올 중독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다가 이 두 청년을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한 청년은 자신의 일에 성실하고 능력 있는 금주가가 되어 있었고, 다른 청년은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빼어 닮아 하루

하루를 힘없이 살아가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과 인터뷰한 심리학자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고 진지하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둘의 대답은 놀랍게도 똑같았다고 합니다. "당신이 나처럼 알코올 중독자를 아버지로 두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에서 교훈을 얻고, 그러한 환경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승리하는 힘 또는 능력을 'Negative Capacity' 라고 했습니다. 한국인 최초의 맹인 박사이자 미 백악관의 고위 공직자인 강영우 박사의 말입니다. 고난의 능력, 즉 부정적인 요소들이 가진 긍정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남의 잘못에서 깨달음을 얻어 그를 피하고, 나아가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이와 비슷한 사례들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을 성공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가 봐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일을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태도를 바꿈으로써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 세대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진실이다." 라고 한 윌리엄 제임스의 말이 정말로 실감이 납니다.

"삶을 향한 태도와 행동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태도의 뿌리는 내부이나 그 열매는 외부이다."
"태도는 성공과 실패 사이의 유일한 차이이다."
"시작할 때의 태도가 결과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인생의 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태도이다."
"태도는 기회에서 위기의 원인이 되기도, 위기에서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신앙인이라고 해서 태도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남들이 나를 보는 시각에 영향을 미친다."
"태도란 영원한 것이 아니다. 11세든, 45세든, 65세든 삶에 대한 당신의 태도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태도 변화에 있어서 너무 늦었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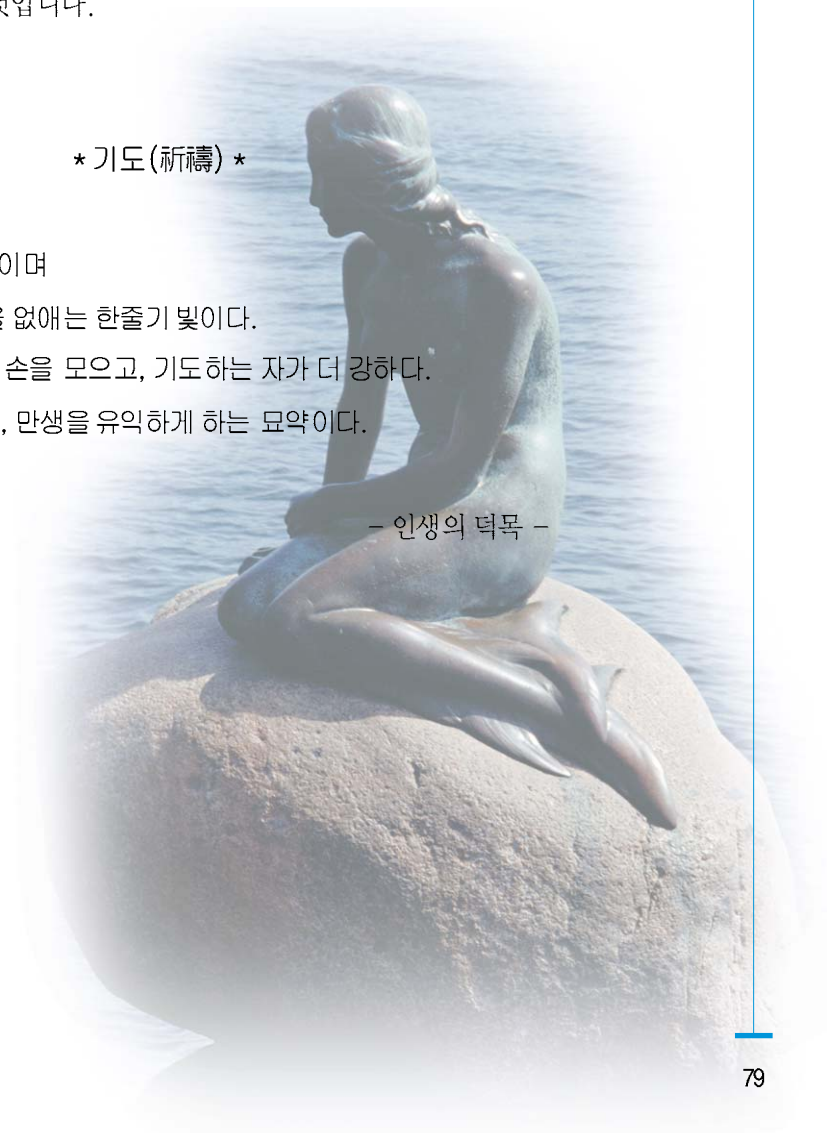
이상은 세계적인 리더십 저작자인 존 맥스웰의 태도에 관한 말로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나타내 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어차피 살아야 할 인생입니다. 평균 수명을 다 채우지 않으려면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사고에 휘말려야 합니다. 그러나 군 출신들은 위기에 대한 판단과 대처능력이 일반인보다 뛰어납니다. 그러기에 평균적으로 보아 그 가능성은 훨씬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왕 살 바엔 '가슴 답답한 삶'을 사는 것보다 '가슴 뛰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슴속에 꽉 차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모두 버려 버립시다. 부정, 비관, 소극적, 분노, 원망, 불가능, 의심, 불안, 불확실, 무기력, 절망, 패배, 열등 등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없애 버립시다. 대신 온갖 좋은 것들로 채워 넣읍시다. 긍정, 낙관, 적극적, 즐거움, 감사, 가능, 믿음, 확실,

활력, 희망, 승리, 우수, 용서 등으로 말입니다.

의미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꾸준하게 노력해 봅시다. 자신의 내면에 갇혀 밝은 세상으로 뛰쳐나갈 시기를 기다리며 꿈틀거리고 있는 꿈을 찾아 나서 봅시다. 혹시나 실패할까봐, 아니면 자신의 목표를 알고 딴 사람들이 조롱할까봐 두려워하지 맙시다. 삶은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살 수 있어야 비로소 자신의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삶은 "늙어 무력해지지 않고, 세월에 구애받지 않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활이 밝아지고 활력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개개인이 행복해지고, 의미와 보람을 느끼는 일들로 가득 찬 나날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이웃이 아니라 나라와 사회에 큰 기여를 하는 군 출신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 기도(祈禱) *

기도는 녹슨 쇳덩이도 녹이며
천 년 암흑 동굴의 어둠을 없애는 한줄기 빛이다.
주먹을 불끈 쥐기보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자가 더 강하다.
기도는 자성을 찾게 하며, 만생을 유익하게 하는 묘약이다.

– 인생의 덕목 –

회원기고

국방안보분야 이명박 정부의 과제

17기 사관 송대성

친북좌파정권 집권 10년이라는 퇴영적인 역사를 경험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친북좌파정권을 종식시키는 위대한 역사적 과업을 달성하였다. 친북좌파정권이 통치한 10년의 역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크게 훼손되었고, 제반 국력의 요소들은 심각하게 약화되었으며, 사회문화는 그 속성 면에서 이적성이 나날이 심화되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국방안보분야의 붕괴와 훼손은 그 정도가 가장 심했던 한 분야로 지적될 수 있다.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란 '어떤 국가가 지켜야 할 내부적인 가치들(values)을 내·외부적인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친북좌파정부는 그들의 통치기간 중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가치와 버려야 할 가치들을 앞장서서 혼돈케 하였으며, 지켜야 할 가치들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는커녕 적과 내통하면서 스스로 붕괴시키는데 앞장을 서 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방안보분야는 1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갖게 되었다. 그 수많은 문제점들 가운데 다음 6가지 과제들은 이명박 정부가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당면 과제들이다.

첫째, 이명박 정부는 각종 안보상황에 대해 반드시 비정치적이고 객관적인 인식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순수한 안보차원에서 안보정책들을 마련하고 실시하여야만 한다. 친북좌파정권 집권 기간 중 국방안보차원에서 가장 심각하였던 한 문제점은 각종 안보상황들을 인식하고 그 대책들을 마련함에 있어 그들의 정치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객관성과 합리성이 상실되었다는 점이다.

국가의 존망이 달려 있는 국방안보 과제들을 순수한 국방안보차원에서 인식하고 그 대책들을 마련하지 않고 친북좌파정권의 정치적인 목적달성을 위해 정치화하여 그 인식을 왜곡시키고 비합리적인 대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하였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노리고 파괴할 수

있는 엄연한 주적(主敵)을 주적이 아니라고 왜곡된 인식을 강요하면서 적을 적으로 다루지 못하게 한 각종 안보정책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튼튼하게 건재하여 왔던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주권회복'이라는 정치적이고 선동적인 용어를 동원하여 그 붕괴를 합의한 정책, '공동어로수역' 및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등의 사술(詐術)적인 평화 개념들을 등장시키면서 국경선 개념을 무력화시키려고 한 점 등이 그 극명한 예들이다. 이명박 정부는 안보관련 사항들을 순수한 안보차원에서 객관적인 인식을 하면서 이러한 객관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순수한 안보차원의 정책들을 수립하고 실천하여야만 한다. 더 이상 정치적인 목적달성을 위해 안보 문제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둘째, 한국사회 내 안보관련 합리적 문화 창달 및 확산에 노력을 경주하여야만 한다. 현재 한국사회는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성문화(利敵性文化)는 '평화문화' 혹은 '통일문화'라는 위장된 탈을 쓰고 사회 곳곳에 존속하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는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순수한 안보중시 문화는 '수구냉전문화' 혹은 '반통일 문화'라는 올가미를 씌워 마치 쓰레기통에라도 가야 할 퇴물처럼 취급하는 대한민국 붕괴문화가 존속되고 있다. '평화문화' 혹은 '통일문화'로 위장된 이적성 문화는 조건 없는 대북지원, 한·미공조보다는 민족공조 중시, 주한미군철수, 보안법철폐, 조건 없는 남한군비감축, 북한의 선군정치 관용, 북한 인권문제 외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 거부, 한반도 평화장애요소는 미국과 한국사회의 보수수구세력, 한·미동맹 경시, 이념구분 없이 통일 강조 등이 중시되어지고 있는 문화다.

이러한 이적성문화는 주로 반미친북좌파들이 창출하고 전파하고 있고 지난 10년 동안 친북좌파 정권들이 비호하여 왔다.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의 안보역량을 훼손시키기 위해 평화문화/통일문화로 위장되어 있는 이러한 이적성문화를 세척하고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건전가치들을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이고 건강한 문화 창달 및 확산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셋째, 한·미동맹 혹은 한·미연합방위력을 합리적으로 구조조정 혹은 질적 변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친북좌파정권 10년을 통해 가장 안보문제 중 하나가 한·미동맹의 약화였다. 한·미동맹의 약화/폐지 및 한·미연합방위력의 붕괴는 지난 반세기 역사 속에서 북한 김일성/김정일 정권이 한반도 전체 공산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서 끈질기게 추구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숙원과제(宿願課題) 중 하나다. 이러한 북한의 숙원과제 이행에 친북좌파정권들은 직·간접적인 동조를 하면서 한·미동맹을 약화시켰고, 한·미연합방위력을 붕괴시키는 정책들을 마련하고 실천하였었다.

참여정부는 대한민국 수호차원에서 한·미동맹의 약화와 한·미연합방위력의 붕괴를 걱정하면서 그토록 호소하고 절규하였던 많은 국민들의 요구사항들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한·미공조보다 민족공조 중시', '남방 삼각에서 북방삼각' 운운하면서 한·미동맹을 약화시켜왔고, '주권회복

차원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운운하면서 한 · 미연합방위체제를 붕괴시키는 노력들을 경주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정권의 한반도 공산화통일을 위한 숙원과제 달성차원에서 진행되어온 한 · 미동맹의 약화 및 한 · 미연합방위력의 붕괴를 위해 친북좌파정권이 이행해 온 제반 정책 추진들을 즉각 중지시키고 혈맹의 우방국 미국과 근본적인 새로운 동맹조정들을 하여야만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4월 16~19일 간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방문과 한 · 미정상회담을 통해 한 · 미동맹이 새로운 차원에서 강화 발전되어야 한다는 점을 양국의 정상들이 합의한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한 · 미동맹 변화와 관련 "최근 국제정세와 안보수요가 급변함에 따라 한 · 미동맹도 새롭게 변화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의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 미동맹에 대한 미래비전을 더욱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한 · 미정상회담에서 "21세기 전략동맹은 서로 공유하는 이익의 공감대를 굳건히 하는 '가치동맹',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 사회, 문화동맹 등 포괄적 분야로 확대하는 '신뢰 동맹', 동아시아지역 및 범세계적 차원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평화구축동맹'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한 · 미양국은 이를 토대로 '한 · 미동맹 미래비전'을 가다듬어 나갈 예정이며, 오는 2008년 7월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부시 대통령의 방한과 2차 한 · 미정상회담 때 "미래비전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이 합의되었음이 보도되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의 합의다.

한 · 미동맹의 강화 발전을 위한 새로운 조정은 그 근본 목표를 한 · 미동맹의 보다 강한 결속과 한 · 미연합방위력의 보다 첨단 · 정예화된 증대에 두고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정신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 온고지신의 정신이란 새롭게 변화된 안보환경 및 한국과 미국의 위상변화 등이 반영된 가운데 보다 강한 한 · 미동맹의 결속과 한 · 미연합방위력의 증대를 모색함을 의미한다.

넷째, 한반도 평화확보를 위한 보다 다양하고 보다 지혜로운 국가전략을 마련하여야만 한다. 한반도 평화확보여부는 한국의 생존과 번영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 변수다. 친북좌파정권하에서 한반도 평화확보방안은 한마디로 북한의 김정일 정권의 평화확보방안을 그대로 수명(受命)하여 실천함에 여념이 없었던 평화확보방안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친북좌파정권이 추구하였던 한반도 평화확보방안은 오직 북한 김정일 정권의 존속만을 전제로 한 남북화해에 의한 평화확보방안이었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확보방안은 크게 나누어 (1) 남북화해에 의한 평화확보방안, (2) 한국의 안보역량에 의한 평화확보방안, (3) 북한정권 질적 변화에 의한 평화확보방안, (4) 북한정권제거에 의한 평화확보방안 등 네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 주어지는 구체적인 상황들이 어떠한 상황인가에 따라 상기 4가지 방안 중 어느 하나가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지혜로운 평화확보방안으로서 선택될 수

있다. 그러나 친북좌파정권들은 오직 북한 김정일 정권의 존속만을 전제로 한 화해에 의한 평화확보방안만을 주장하면서 여타 방안들에 대해서는 "전쟁을 하자는 말이냐?"란 독선적이고 우매한 평화확보방안만을 논하도록 강요하였다. 이러한 친북좌파들의 평화확보방안은 한마디로 북한에 굴종하는 평화확보방안이다.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평화확보방안을 선택함에 있어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성이 있는 방안을 선택하고 이를 추진하여야만 한다.

다섯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보유/개발 문제에 보다 합리적인 안보전략을 수립하고 대처하여야 한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보유/개발 문제는 한국의 생존과 번영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보유/개발의 완전 폐기(dismantle) 여부는 한국의 군사력 건설/재정비, 한·미연합군사력 구조조정,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군비통제 문제 등 전반적인 한국의 국방안보문제들에 지대한 영향들을 미치는 변수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보유/개발은 (1) 끝내 폐기하지 않는 경우, (2) 완전 폐기하는 경우, (3) 애매한 상황 속에서 시간을 끄는 경우 등 3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핵 폐기'라는 주제를 대북정책의 최우선 주제로 부상시켜 놓고 있다. 그러나 북핵 폐기는 이명박 정부가 요구한다고 하여 그대로 폐기된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이상의 3가지 경우들에 대한 치밀한 대비책들을 마련함이 더욱 중요한 과제다.

이명박 정부는 각 경우들에 대한 치밀한 국가안보전략들을 수립한 후 그 구체적인 상황이 어느 경우로 가든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에 이상이 없도록 치밀한 조처들을 강구하여야만 한다. 국가안보적인 목표달성은 수학공식처럼 주어진 시간 내에 딱 떨어지게 달성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정확한 목표들이 주어진 시간 내에 달성 되지를 않고 시간이 흘러가는 경우들도 많고, 길고 긴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 국가안보적인 목표달성은 모든 상황 속에서 최선의 목표들을 설정하여 놓고 그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들을 경주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보유/개발 문제는 근본적으로 북한의 군사제일주의(Military First Policy : 선군정치)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며, 북한이 군사제일주의를 포기하고 진정한 국가경영에 대한 질적인 변화를 모색하지 않는 한 그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의 속성이 군사제일주의를 포기할 수 있는 정권인가 아닌가를 먼저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보유/포기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는 한국의 국방안보태세를 근본적으로 재정비 강화하여야만 한다. 친북좌파정권 집권기간 10년 동안 한국의 국방안보정책은 적에 대한 위협평가, 자국의 국방안보역량

평가, 동맹국에 대한 인식 및 지원가능 안보역량 평가, 국방대비태세 등 상당 분야에서 인식의 왜곡, 대책의 비합리성이 불소하였다. 국방부는 국방안보 전문부서로서 그 나름대로 노력들을 한다고 하였지만 워낙 친북좌파성향이 강한 정치권의 노골적인 이적행위 및 이러한 정치권에 맞추어 함께 춤을 춘 국방장관의 등장 등으로 인해 한국의 국방안보역량은 많이 훼손되어 있고 수많은 문제점들을 저질러 놓았다.

이명박 정부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방개혁 2020을 중단케 하고 근본적으로 재조정을 하여야만 한다. 2005년 9월 13일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안 "21세기 선진정예강군을 위한 국방개혁 2020"은 (1) 북한의 위협은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전제, (2) 한 · 미 간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었던 전시작전통제권 한국군 단독행사 결정(2012년 4월 17일 이후) 미고려, (3)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2006. 7. 5) 및 북한의 핵실험 실시(2006. 10. 9)를 고려하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개혁방안이다. 따라서 새롭게 발생한 중요한 안보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합리적인 국방태세를 재정비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중요한 안보현안 과제라고 볼 수 있다.

2005년 9월에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의 핵심내용은 (1) 병력감축 : 향후 15년 내(2020년까지) 68만 한국군을 50만으로 감축(18만 일방적 감축) 및 예비군 304만을 150만으로 감축(154만 감축), (2) 군 구조조정/통합 : 1군사령부+3군사령부→지상 작전사령부; 4개 군단 감축(현재 10개 군단→6개 군단); 27개 사단 감축(현재 47개 사단→20개 사단), (3) 첨단 · 정예화 : 병력위주 한국군사력→정예 군사장비 위주로, (4) 장병 징모 제 변화 : 현재 육군(징병제), 해군 및 공군(모병제)→징병제+모병제 혼합형, (5) 해군 · 공군 증강 및 균형적인 역무분담, (6) 예비군 훈련기간 : 현 8년→5년 등이며, 이러한 개혁사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289조 원이라는 내용이었다.

2005년 9월 국방부가 국방개혁안을 발표할 당시에도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첫째, 북한의 위협은 그대로 상존하고 있는데 남한이 일방적으로 18만이라는 감축을 단행하겠다는 점, 둘째 국방개혁의 핵심내용은 첨단 · 정예화인데 한 · 미동맹이 악화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첨단 · 정예화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 셋째 남북한 안보현실과 맞지 않는 일방적인 감축으로 인해 허상적 평화체제 구축 및 주한미군 철수 분위기 조성, 마지막으로 289조 원의 예산보단 훨씬 더 필요한 예산 등이 문제점들로서 지적되었다.

국방개혁 2020 자체가 안고 있는 이상의 본래 문제점들에 더하여 북한의 미사일 및 핵실험 단행과 한 · 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합의는 국방태세 재정비 차원에서 더욱 많은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 및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남북한 군사력의 비대칭성은 더욱 심화되어졌고 이러한 비대칭성의 심화 속에서는 엄격한 의미에서 남북한 간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없다. 오직 남한이 북한에게 굴종하는 평화만이 있을 수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한국군단독행사 결정은 한 · 미양국이 아무리 변명을 하더라도, 첫째 한 · 미연합방위체제에 비하여 한 · 미공동방위체제의 많은 미흡함과 보완점, 둘째 미국중심 동맹국 네트워크로부터 한국의 일탈로 인한 엄청난 상징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안보전력상의 손실, 셋째 북한의 분단 이후 숙원과제인 '전시작전통제권 주한미군으로부터 박탈' 이라는 목표달성, 넷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으로 인해 주한미군 한국주둔 가치의 약화/주한미군철수/한 · 미동맹 약화 등의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 · 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북정책에서 실용성을 강조하면서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이미 이상에서 지적한 과제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고 그 과제들 해결을 위한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는 분야도 상당수 있다. 그러나 과제들에 대한 인식부족, 혹은 인식은 하나 구체적인 노력 미경주 분야 등 다양한 상황 속에 있다. 결론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그 동안 망가지고 훼손된 한국의 국방안보 역량을 조속히 복원보완하고 미래지향적 군사력 건설에 매진하여야만 한다.

회원기고

한·미동맹의 평가와 함의

– 후견–피후견 관계 이론에서 본 –

21기 사관 윤동현

강대국과 약소국간 동맹관계의 한 특성으로 나타나는 후견–피후견 관계 모델에서 강대국은 자신의 안보 전략적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제공하고 약소국은 강대국에게 자신의 소용가치를 제공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보호를 받게 되고 또한 지지와 충성을 제공한다.

따라서 안보중심의 이러한 동맹관계에는 기본적으로 힘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동맹딜레마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상호이해의 교환관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경제나 정치, 인권,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양국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구체적 목표도 시간에 따라 변화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양국이 지향하는 전략적 가치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후견–피후견 관계는 강대국과 약소국간 자원과 용역을 필요에 의해 주고받는 매우 합리적인 상호적 교환관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이 관계를 착취관계(exploitative relationship)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이다. 한 · 미동맹 역시 전략적 필요성 등 상호국가이익을 인정한 바탕 위에서 성립된 관계이며 양국간 관계가 일방적인 관계로부터 상호 양방향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관계로 변화해 왔다.

결국 동맹외적인 안보환경의 변화와 함께 동맹내부에서의 피후견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 차원에서의 능력이 증대됨에 따라 후견국의 안보지원에 따른 자국의 자주성 제약을 감소시킬 수 있고, 이는 곧 동맹관계에서의 비대칭성을 완화해 해소시켜 나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후견–피후견 관계 이론을 통해 볼 때 과거 냉전기간 동안 미국의 일방적인 안보 지원을 바탕으로 유지되었던 한 · 미동맹 관계에 있어서 미국은 후견국이었고, 한국은 피후견국이었다. 더욱이 한 · 미관계는 한 · 미동맹이 공식적으로 탄생하기 이전부터 미국은 1945년 해방 이후 한반도 남쪽에 진주하여 군정을 실시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한국군의 창설을 지원하였고,

한국전쟁 발발 시에는 대규모 미군을 파병하였으며, 휴전협상을 통해 정전협정을 체결하였다. 미국은 한국의 군대를 창설하여 국가안보의 기틀을 마련해 주었으며, 한국전쟁에 대규모로 미군을 참전시켜 한국의 생존을 유지해준 후견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이러한 후견국인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공식적인 동맹관계를 수립 이후부터는 미국의 본격적인 군사·경제 원조가 제공되어 한국의 대미 의존도가 심화되는 원인이 되었다. 1950년부터 1984년까지 지원된 미국의 무상 군사원조는 약 56.4억 달러였으며, 이러한 미국의 무상군원을 한국의 국방비와 대비해 볼 때 1950년대에는 국방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1960년대에는 50.39%, 1970년대 전반에는 31.28%를 차지하는 등 1950~1970년대 전반까지 지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1971년부터 1986년까지 한국에 제공된 미국의 대외군사판매(FMS) 차관은 총 23.48억 달러로, 한국의 국방비 점유율은 1976년 18% 수준에서 1980년 이후 3~5%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기간 중 연평균 점유율은 6.34%였다.

또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기이전 및 방위산업기술지원은 1970년대 초 한국정부가 국가차원의 자주국방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격 시작되었다. 1971년부터 1987년까지 미국이 제공한 방산기술 자료는 총 881건으로 이중 128건이 한국의 방위산업 제품개발에 활용되었으며, 한국의 방위산업건설이 가장 활발하였던 1971~1980년에 881건 중 75%에 해당하는 659건이 제공되었다. 이는 한국의 총포, 탄약 등 기본무기체계를 비롯한 500MD 헬기, F-5 전투기, 155mm 자주포, 한국형 전차와 같은 고도정밀무기 체계개발 등 한국의 방위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기이전은 유, 무상지원과 한국의 구매사업으로 이루어졌는데 1974~1985년까지 한국의 국방외자 조달의 83%를 미국으로부터 구매하였다. 이는 한·미동맹체제하에서 한국이 해외군사장비 도입의 대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냉전기 한·미간의 후견-피후견 동맹관계에 있어서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원조 및 무기이전 등 안보지원을 제공받는 대신 한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한미군의 기지제공과 같은 간접지원 형태의 방위지원이라는 제한된 여건 속에서 대미 안보 의존도가 심화되어 왔었다.

그러나 탈냉전기의 도래는 과거 냉전기에 드러나지 않았던 지역 갈등요인들을 표출시킴으로써 미국으로 하여금 동맹국들에게 새로운 책임분담에의 참여확대를 요구하게 만들었다. 또한 1980년대 이후 후견국 미국의 재정 및 무역적자가 심화되는 등 경제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반면 피후견국 한국의 경제력이 강화되자 미국은 한국에게 새로운 거래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초기의 원조자의 성격으로부터 안보우산제공의 반대급부를 높여줄 것을 강조하는 요구자의 성격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주한미군에 대한 비용분담을 통해 주한미군주둔의 안정적 여건을 조성함은 물론 미국의 해외주둔비용을 동맹국이 분담함으로써 미국의 재정적 압박을 경감하고

동맹국간의 공평한 역할 분담을 도모하게 되었다. 1973년까지 주한미군의 주둔경비의 대부분은 미국이 부담하고 한국은 기존의 토지, 시설, 용역을 제공하여 왔으나, 1974년부터는 전쟁예비비축탄약(WRSA) 및 주한 미군전용 탄의 저장, 관리 비용부담, 연합방위증강계획(CDIP)에 의한 공동투자 등 미국의 공동방위를 위한 비용분담의 요구에 따라 한국은 주한미군주둔경비에 대해 직접지원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1991년 체결된 전시 현지국 지원협정(WHNS)은 전시주한미군 및 증원군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한국의 제도적인 방위비 분담을 추진하는 의미로서 한 · 미동맹의 상호의존적 관계로의 전환의 계기가 되는 측면을 반영한 것이다.

1991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방위비 분담은 SOFA 특별 협정(SMA)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되어왔다. 그리고 1991년 최초로 1.5억 달러, 1996년에는 3.3억 달러, 그리고 2002년에는 4.72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SOFA SMA에 의한 주한미군주둔경비의 지원과 함께 1991년 걸프전 및 2001년 아프간전에서의 군사지원과 경비지원, 대북경수로 건설 비용 부담, UN PKO 참여, 구공산권이나 개도국에 대한 비군사적 지원 등 국제공공재 차원 분담으로 점차 확대되어 왔다. 이처럼 탈, 냉전기에는 한 · 미 쌍무협상을 통해 방위부담에 대한 공동분담의 범위와 수준을 확대시켜 옴으로써 과거 미국의 일방적인 안보지원으로부터 탈피하여 그만큼 한국의 자율성을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는 반면 한국의 경제, 군사적 비용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결국 후견-피후견 관계 이론에 입각하여 한 · 미동맹의 비대칭성 측면을 설명하자면, 과거 미국의 일방적인 안보지원을 특징으로 하였던 냉전기에서는 후견-피후견 관계의 특징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반면, 한국의 방위분담이 점증해 온 탈, 냉전기에서는 후견국의 지원 필요성이 감소함으로써 후견-피후견 관계의 특성이 완화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향후 한 · 미동맹의 비대칭성을 해소해 나가는데 있어서 합리적인 방위분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한 · 미동맹에 있어서 한국의 상대적 위상과 역할을 향상시킬 수 있었던 실질적인 계기는 1991년부터 SOFA 특별 협정에 의한 한국의 방위비 분담에서 비롯된 것이다. 동맹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동맹의 비대칭적 특성을 해소시키는 지름길은 역시 동맹부담에서 분담의 수준과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국제안보질서와 동북아 안보환경, 한국의 경제적 능력과 국민여론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한국의 방위분담의 수준과 범위를 결정해야 하겠지만, 한국과 미국 각자의 국가이익은 물론 공동의 이익에 상응하는 동맹부담에 대한 합리적 부담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탈, 냉전시대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이 앞으로 국제안보질서를 주도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군사혁신을 통한 21세기 첨단 국방력 건설노력, 그리고 지난 2001년

9 · 11테러사태 이후 추진하고 있는 대테러전 수행 등을 감안할 때 그만큼 동맹국들의 방위분담 증대노력에 대한 요구는 강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동맹국인 한국도 국가경제의 합당한 수준에서, 그리고 공동 안보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수혜자로서 한반도 전쟁억제를 위한 한 · 미연합방위체제 유지비용에 대한 합리적 부담, 북한의 핵 ·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비용, 미국의 대테러전 등 역외안보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분담과 역할수행을 통해 동맹국에 기여하는 한편 국제적 위상의 제고노력도 요구된다고 하겠다.

회원기고

독일에 살면서

15기 사관 황인영

1992년 5월 27일 나는 독일 베를린 자유 대학 병원에서 다시 태어났다.

지병인 간경화증으로 죽을 날만 기다리던 나는 열두 시간에 걸쳐 성공적인 간 이식 수술을 받았고, 이후 새로운 삶을 덤으로 얻어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

당시 중환자실(무균실)에서 의식을 되찾으면서 나는 다시 살았다는 기쁨과 함께 너무 뻔뻔스러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게 되었다.

그 만큼 살았으면 됐지 이렇게까지 해서 더 살아야 하는가 하는 자조의 느낌이 들었다. 기껏 어려운 수술을 하여 살려 놓으니 공 없는 소리를 한다고 담당의사가 서운해 하겠지만…

내가 아무 연고도 없는 독일로 어떻게 해서 이주를 하게 되었는지 잠시 설명을 해야겠다.

1985년 초 나는 당시에 근무하던 K모 중소기업에서 우리 회사로서는 황무지나 다름없는 유럽으로 가서, 회사 제품(금속제 양식기)을 팔 수 있는 곳을 물색하여 지사를 설립하고 그곳에 상주하라는 명령을 받고 혼자서 떠나왔다.

그리스를 시작으로 영국, 이태리,

불란서, 독일 등을 차례로 돌아보고 난 후, 우리나라 상사들이 다수 주재하고 있는 중부 독일의 Duesseldorf에 체류하면서 여러 상황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타 업체들의 권유도 있었음) 그곳에 주재하기로 결정, 본사의 승인을 얻어 지사 설립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6월에 서울에서 가족까지 데려와서 정식으로 독일 생활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가족들이야 외국 생활을 처음 하게 돼서 기뻤는지 모르겠으나, 나는 바로 시장 개척을 위하여 망막하기만한 여러 유럽 국가로 수시로 출장을 다녀야 했고, 독일에 있는 동안은 현지 거래 선을 만나러 다니는 등 벅찬 일과를 소화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자기네 회사에 찾아오라고 알아서 초청하는 업체가 있을 리 없었고, 우리 물건을 취급하는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장 개척을 한다는 것은 정말이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으러 다니는 것에 비교할 수 있을 정도였다.

우리 제품 특성상 내가 갖고 다니는 물건들은 무게가 꽤 나가는 것들 이었는데, 거기에 냄비까지 두세 개 합치는 날에는 부피와 무게가 장난이 아니었다. 물론 차에 싣고 다니지만 차에서 건물까지 가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곳은 그것들을 운반하는데 보통 힘이 드는 것이 아니었다.

지금처럼 가방에 바퀴가 달리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모두 손으로 들거나 어깨에 둘러메어야 했다. 유럽에서 출장을 갈 때 다섯 시간 이내 거리면 대부분 차로 이동을 한다. 당연히 하루 온 종일 걸려 한군데 겨우 다녀온다. 그래서 가는 길에 혹은 오는 길에 다른 회사를 한두 군데 더 들를 수 있도록 일정을 잡는다.

이렇게 뛰어다니다 보면 몸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나처럼 B형 간염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뛰어다니다 보면 그것이 간경화로 발전을 하고 있어도 사전 대비나 예방이 힘들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간은 병이 들어도 자각증세가 없어 웬만큼 심해지지 않으면 아픈 줄을 모르기 마련인데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심해지고 나서 알아봐야 그땐 이미 늦은 것이다.

내 병이 그렇게 힘들게 뛰어 다녀서 생긴 것이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 다분히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는다.

간 이식 수술을 받고 살게 되니,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독일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살게 되었다고 격려의 말씀들을 하신다. 한국에 있었으면 벌써 죽은 목숨이라고 하면서!!

독일의 의료보험제도가 좋아서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참으로 합리적이면서도 철저한 법치 국가이며 인명을 중시하고 봉사하는 정신이 투철한 민족이다.

외국인이라고 차별하는 법이 없고, 돈 없다고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가 있을 수 없으며, 우선 사람을 살려 놓는 것이 먼저이고 치료비는 그 다음에 생각한다.

가족도 찾아 주고, 무연고자는 정부 또는 시에서 책임을 지며, 연고가 없는 외국인까지도 예외가 없이 병 치료의 혜택을 주고 있는 훌륭한 나라가 독일이다.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들은 꼭 따라해야 할 일이 아닐까 한다.

1991년 가을 어느 날 바이어 사무실에서 밤늦게 돌아오다가 갑자기 변의가 느껴져 고속도로상의 휴게소에서 대강 일을 보고 급히 집으로 돌아 왔는데 다시 화장실에 가 보니 심한 혈변이 나오고 어지러움이 일었다.

갑자기 많은 피를 쏟으니 몸이 어지럽고 힘이 다 빠져 나갔는지 앉아 있을 수조차 없었다. 즉시 주치의에게 연락하고 곧 바로 집 근처에 있는 Duesseldorf 대학 병원에 앰뷸런스로 실려 가서 헤모글로빈을 재어보니 6g/dl 이하로 내려가 급히 수혈을 시작하여 무려 13백(1bag=500ml)이나 되는 피를 공급받았고 아울러 플라즈마, 알부민 등의 주사를 맞고 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약 일주일간 입원 후 퇴원하여 집에서 통원 치료를 하던 중, 그 이듬해 1월 말 갑자기 혼수상태에 빠지는 심각한 상황으로 병이 발전하였으며 출혈과 혼수가 간경화증의 전형적인 증상인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당시 치료를 담당하던 의사들은 내 아내와 아이들에게 의학적으로는 깨어날 확률이 없고, 설사 깨어난다해도 사람구실을 못할 것이라고 선고를 하였다고 한다.

그들에게는 청천 병력 같은 소리였을 것이다. 지금이야 아무렇지 않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당시 남편, 아빠만 믿고 따라온 어린 두 딸과 내 아내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였으리라.

그러나 내 아내는 그건 의사가 하는 말이라며 하느님께 매달려 매일 큰 딸과 함께 내 침대 곁에서 기도를 하였다고 한다.

당시 그곳의 많은 교민들이 나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베풀어준 사랑과 기도는 내 평생 잊지 못할 고마움이요, 마음의 빚이다.

간호사로 근무하는 자매님들은 나의 아내 혼자서는 간호를 할 수 없다고 낮에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밤에는 조를 짜서 아내와 함께 정성껏 간호를 해 주었고, 남자들은 따로 모여 만일에 대비하여 장례식 준비를 하였다고 한다. 밤낮으로 나의 회복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았고, 말로만이 아니고 몸소 실천으로 보여 주는 사랑의 공동체 덕분에 이렇게 어려움을 이기고 살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독일에서 천주교 영세를 받고 천주교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 대부분이 천주교 신자들이었음을 첨언한다.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사랑과 헌신에 하느님도 감동을 하셨는지, 나는 혼수에 빠진지 3일 만에 의사들의 예상을 깨고 깊은 잠을 자고 일어난 사람처럼 멀쩡하게 깨어 일어났다. 가족들과 이웃은 말할 것도 없고 의사와 간호사들조차도 이런 기적 같은 사실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모르니 당연한 일이 아니였겠는가?

이후 간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는 베를린 대학 병원과 상의를 하여 11일 동안 정밀 신체검사를 한 후 수술 적격이라는 판정을 받았고, 집에 가서 전화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말고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또 한번 하늘이 도왔는지 집으로 돌아온 지 꼭 3일 만에 베를린에서 즉시 병원으로 오라는 연락을 해왔다.

그때가 밤 10시경이었는데 내가 사는 Duesseldorf에서 베를린까지는 항공편으로도 한 시간이 더 걸리는 곳이다.

이런 경우 교통편을 병원에서 주선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 병원 측에선 다시 전화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였으나 급한 마음에(집에서 30분 거리에 살던) 독일 거래선 중 친하게 지내고 있던 젊은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다.

양측의 연락을 초조하게 기다리던 중 이 젊은 친구가 먼저 전화를 해와 그의 사무실까지 택시로 달려갔는데 시간은 이미 12시가 넘었고 헬리콥터 물색을 위해 사방으로 수소문 중이었다. 한 30분 지나서 Duesseldorf 공항에 경비행기가 준비됐다고 하여 그곳까지 자동차로 가는데 신호등이 많고 다른 차들도 방해가 되어 경찰 인도를 요청했더니 조금 앞에서 경찰차가 기다리다가 경광등과 사이렌을 울리며 공항으로 인도하여 주었다.

참으로 이렇게 좋은 나라가 세상에 독일 말고 또 어디 있나하는 감동과 고마움에 그저 모든 것이 감사할 따름이었다.

공항에 도착하니 Flug Ambulanz(Air Ambulance)라는 회사의 단발 경비행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나같은 비상, 위급 환자 수송을 위하여 운행되는 항공기였다.

새벽 2시경에 이륙하여 가는데 이 항공기에 조종사, 구급사, 나, 그리고 독일 친구와 그의 여자 친구 이렇게 다섯 명이 탔는데 입을 열어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창문을 통해서 내려다보는 지상의 불빛들이 하늘의 별처럼 명멸할 따름이었다.

그때서야 갑자기 나는 가족들과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온 것이 생각났다. 이제 살 수 있다는 희망으로 집에서 달려 나오기 바빠서 내 아내와 아이들에게 수술 잘 받고 살아서 돌아오겠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온 것이 영 후회가 되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불귀의 길이 될지도 모르는데 이미 나는 공중에 있으니 어쩌랴?

살아서 돌아가면 되겠지 하고 다짐하는 사이에 벌써 베를린 공항에 도착하였으며 기다리고 있던 앰뷸런스를 이용해 바로 병원으로 직행하였다.

간단히 수속을 밟고 입원실로 들어가 샤워를 한 후 바로 수술실로 실려 갔다.

수술실 문 앞에서 며칠 전에 만났던 마취과 의사를 만나 생각보다 빨리 다시 만나서 반갑다는 인사를 하고 마취 주사를 맞으려고 하는데 누가 침대 발치에 조그만 상자 하나를 올려놓았다. 그것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으며 온몸에 소름이 확 끼치는 것 같았다.

그 상자에는 영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Human Organ, Liver" 아! 저것이 나를 살려줄 간이구나 하고 생각하니 무어라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었다. 이어 곧바로 수술실로 들어갔고 그 이후는 잘 모른다.

중환자용 무균실에서 의식이 깬 것은 그 후 몇 시간이 지나서였는지 잘 모르겠으며 12시간이 넘게 수술을 하였다고 나중에 간호사가 알려 주었다.

이렇게 해서 나는 다시 살아났다.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간경화의 원인이며 이는 이식 수술을 받아도 원천적으로 간염 항체가 없어서 생기는 병이라서 재발할 가능성이 거의 100프로이다. 내 경우에도 수술 일 년 후 간염이 재발하였고 이것이 다시 간경화로 발전하여 2000년 1월, 2차 간 이식 수술을 받았고 지금은 아주 강력한 항체 주사를 5주에 한 번씩 맞아가면서 건강하게 살고 있다.

2차 이식 수술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 또 장황하게 늘어놓고 싶지 않아서 생략한다.

나는 참으로 기구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도 가끔 한다.

선천적으로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 평소 건강관리를 잘하여 병원신세를 안지고 사는 사람들이 나는 얼마나 부러운지 모른다.

군에서 조종사의 길을 접고 일찍 나오게 된 것도 건강 때문이었는데 그 후에도 병원을 제집 드나들 듯하며 살아 왔고 이렇게 조국을 떠나 독일까지 와서 20여 년을 살고 있으니 사실 얼마나 기구한 운명인가?

독일이라는 나라! 그때 내가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독일에 여러

가지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나라에 훌륭한 의료보험제도가 있고, 훌륭한 의사들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연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제도, 그런 의사들이 많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 나라가 선진국이 된 것이 아니다.

이 나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의식 구조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정신이 그들의 의식 구조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들이 지닌 인간애, 봉사정신, 박애정신 등을 나는 다른 모든 것의 앞에 두고 싶다.

서두에도 잠깐 언급하였지만 인간의 생명이 모든 물질적인 것 위에 존재하고, 우선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간 이식 수술하는 베를린 병원의 사무실 문 위에 이런 문구가 있다.

"Do not bring your organs to Heaven,

Heaven knows we need them here!"

이런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에 늘 나는 감사하고,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이런 선진 대열에 들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 본다.

"항공관제"는 무슨 일을 하는가?

31기 사관 김흥천

1980년대 초, 일본 매스컴에서 "한국에서 일본 민항기와 대한민국 군용기 간 공중충돌의 위험이 있었다."라는 발표가 있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세계인의 관심 속에 '86 서울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 개최를 위해 온 국민이 국가의 자존심과 사활을 걸고 총체적으로 매진할 때였는데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항공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되어 국가적 주요 행사의 성공에 결정적 장애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었다.

결국 정부차원에서의 조사를 위해 당시 해당 관제소인 대구소재 제700항로통제통신대대(1957년 7월 창설)를 방문한 조사팀은 우리의 관제체제 실태를 보고 놀라움과 당혹감을 금치 못했다. 왜냐하면 한반도 내 항로를 비행하는 모든 민·군 항공기를 관제하는 시설이 고작 전화기 몇 대가 전부였으며, 비행하는 항공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코프 한 대 없이 오직 관제사의 생각과 추측에 의한 연산관제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항로관제업무 자동화체제〉

당시 급격히 신장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 선진국으로의 당당한 도약을 목표로 '86 서울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을 통해 그 가능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한 중대한 시점에서, 이러한 현실은 우리의 항공관제체제가 후진국 수준임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으며, 이는 국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매우 곤혹스러운

일이었다. 이에 정부차원에서 긴급히 그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1985년 "항로교통관제 현대화사업"이 시작되어 항공관제체제에 있어서 레이더와 연동된 전산화 자동시스템과 이를 시현하는 관제스코프를 구비한 명실상부한 선진국형 항로교통관제 자동화체제가 구축된 "제70중앙항로관제전대"(일명 'ARTCC' : Air Route Traffic Control Center)를 창설하게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창설된 "제70중앙항로관제전대"는 '86 서울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크게 기여하는 등 약 10년여 동안 항로를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한 관제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국가정책에 의해 1995년 공군으로부터 건설교통부로 임무가 이관되었으며, 현재는 건설교통부의 "항공교통관제센터"(일명 '인천 ACC' : Area Control Center)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나라를 국제적으로 난처하게 했던 불미스러웠던 이 사건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항공관제체제를 선진수준의 체제로 도약시키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당시 중위였던 본인은 6인의 프로그래머 중 한사람으로 선발되어 미국에서 18개월의 교육을 받고 현대화사업에 참여하였음을 큰 보람으로 느끼면서도 건설교통부로 그 기능이 이관된 아쉬움이 남아 있음은 솔직한 심정이다.

한국공군의 항공관제 역사는 지난 195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7년 7월 5일 제700항로통제통신대대가 창설되어 미 공군으로부터 항로관제 권한을 인수하여 독자적인 항로관제 업무를 실시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항공관제란 무엇인가?"에 대해 한마디로 답변한다면 "하늘의 교통정리"라고 말할 수 있으며, 항공관제사는 "하늘의 교통순경"이라고 할 수 있다. 도로에 교통순경이 있어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안전을 도모하듯이 하늘에도 교통순경이 있어 항공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비행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접근관제업무 자동화체제〉

항공교통관제는 항공기간의 충돌방지, 기동지역 안에서의 항공기와 장애물간의 충돌방지, 항공교통흐름의 질서를 유지하고 촉진하기 위한 업무로써, 크게 비행장관제업무(Aerodrome Control Service), 접근관제업무(Approach Control Service) 및 지역관제업무(Area Control Service)로 구분된다.

비행장관제업무(Aerodrome Control Service)는 비행장 안의 이동지역 및 비행장 주위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로서 공항중심 반경 5NM(약 9km)와 통상 3,000ft(약 1km)까지의 범위 내에서 항공기 이착륙 허가발부 및 비행장 정보제공, 공항이동 지역 내의 항공기 및 차량 이동통제와 출발 항공기에 대한 항로관제 허가/중계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현재 국내에 23개의 민 · 군 관제탑을 운영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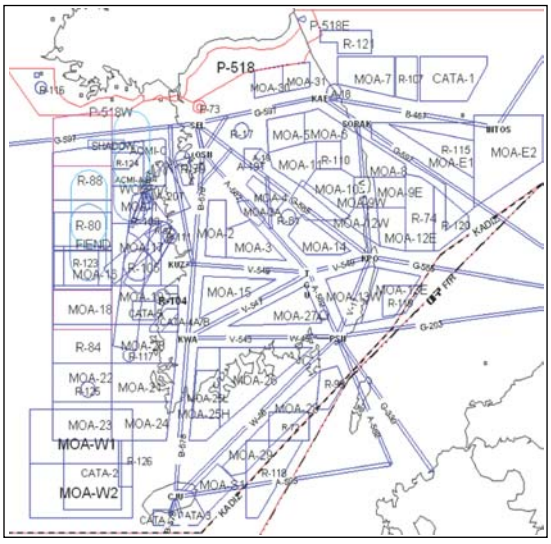
접근관제업무(Approach Control Service)는 공항중심 40~50NM(약 80km), 지표면~22,000ft(약 7km)까지의 접근관제구역 안에서 이륙이나 착륙으로 연결되는 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로서 공항주변 항공교통 감시, 관할 접근관제구역 내 IFR 항공기 관제 및 도착 및 출발 항공기 관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14개의 접근관제소가 민 · 군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지역관제업무(Area Control Service)는 약 40만 km^2, 고도 700ft에서 무한대까지의 관제구역 안에서 항로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로서 인천 비행정보구역(FIR : Flight Information Region) 내의 모든 계기비행 항공기 항로비행 허가발부, 목적공항 APP' 및 인접 ACC에 항공기 관제권 이양과 비행정보 및 긴급구조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인천공항 내에 있는 인천 항공교통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다.

항공교통관제 흐름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출발공항에서 출발한 항공기는 비행장관제를 거쳐 접근관제 업무를 제공받은 후 항로관제(또는 지역관제)업무를 제공받고, 목적공항 근처에서는 다시 접근관제를 거쳐 비행장관제업무를 제공받아 목적공항에 착륙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항공관제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국가공역관리에 있다. 현재 대한민국 내의 모든 공역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있으나, 군사작전 공역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국방부장관에게 위임되어 있고, 평시 국가공역관리는 합참의장 및 공군작전사령관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국가공역관리를 위한 군 · 민간 중앙협조기구로 공역(실무)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항공교통관제 흐름도〉



〈대한민국 국가공역 현황〉

"공역"이란 항공기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필요에 따라 항행에 적합한 통제로 제반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국가안보와 비행정보 업무 및 공역의 안전관리 차원에서 영공(Territorial Airspace), 방공식별구역(KADIZ), 한국 제한식별구역(KLIZ), 대구 비행정보구역(FIR)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운영측면에서 세부적으로는 관제공역, 비관제공역, 주의공역 및 통제공역으로 구분된다.

관제공역은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에게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일정 범위의 공역으로 항로, 접근관제구역, 관제권 및 특별 관제구역으로 구분된다. 비관제공역은 관제공역 외의 공역으로 조언구역 및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구역으로 구분되며, 통제공역은 국가 중요기관의 보호 및 안보상 항공기 비행이 금지되는 금지구역과 항공사격, 대공사격 등의 위험으로부터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한 제한구역으로 구분된다. 주의공역은 항공기의 비행시 조종사의 특별한 주의 · 경계 및 식별이 요구되는 구역으로 군작전구역, 위험구역, 훈련구역 및 경계구역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다양한 공역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행활동을 평면적으로 상호 분리하는 구역분리, 동일구역/고도를 공역사용자간 시간으로 분리하는 시간분리, 동일구역/시간대의 공역사용자간 고도로 분리하는 고도분리 및 협소한 지역의 많은 비행활동을 일률적으로 규제할 경우 기본분리수단에 전자적 보조수단을 적절히 이용하여 분리하는 통합적 분리방법이 있다.

현재 대한민국 상공에는 민항기, 군용기를 포함하여 일일 약 1,800여 대의 항공기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인천, 김포 및 수원 등 수도권 상공에는 많은 항적들이 밀집되어 있어 공중충돌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관계로 평시 국가공역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공중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절차와 방법들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고 조종사와 항공교통관제사 및 방공무기통제사들은 항공기간 근접비행 및 공중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최근 건설교통부의 무안공항 등 지방공항의 시설확장과 인천국제공항 제3활주로 증설로 인한 공역 조정 등으로 인하여 많은 군사작전 공역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나, 평시 훈련을 통한 국가

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군으로서는 건설교통부의 공역 조정요구를 100%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건설교통부의 공역 조정요구는 군사작전 공역 및 훈련공역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군 작전 및 훈련여건 악화는 국가안보의 상당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가 경쟁력을 위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민간항공 활동과 국가안보 차원의 군 작전 및 훈련여건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현명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민 · 군간 지혜를 결집하여 상호 협의과정에 있으므로 조만간 최선의 해결방안이 나오리라 기대하고 있다.

오늘날 항공 산업의 눈부신 발전은 국가적 경쟁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또한 국가적 경쟁력은 국가 안보와 병행해야만 가능한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특히 남북간 대립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항공관제분야의 모든 업무담당자들은 민 · 군간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해 국가 경쟁력과 국가안보 모두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회원기고

아르빌 전개임무 회고

48기 사관 박선옥

○○단 파병 후 총 3회의 자이툰 부대 아르빌 전개임무를 실시하였다.

그 후로 KDO(KOREAN DUTY OFFICER) 야간근무로 인해 일주일 정도 비행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지 스케줄 나오는 것이 부담도 되고, 이것저것 궁금한 것이 많아졌다. 다행히 함께 숙소를 사용하는 선배님께서 그동안 비행하면서 특기사항 정리를 잘해 두어서 그것만 보아도 궁금했던 것이 해소가 되었다. 처음 임무를 실시했을 때와 크게 달라진 절차는 없었지만, 그래도 잊고 있었던 절차라든가 머리비행에서 빼먹었던 절차를 다시 기억할 수 있었다.

아침 일찍 이륙하는 임무가 아니어서인지, 아침에 여유가 있어서 좋았다. 바쁘게 이것저것 챙기다가 뭔가 빼먹은 듯한 느낌을 가지고 비행대기장소로 출발할 때가 많았는데, 빼먹은 것이 없는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통상 임무 때마다 알리 알 살렘 기지 이륙부터 아르빌 기지 착륙까지는 경험이 많은 선배들 몫이었는데, 이번은 내가 먼저 좌석 점유를 해서 아르빌 기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브리핑 시에 좌석 배정을 했다.

왠지 더 긴장되고 흥분되었다. 비 비행 기간이 길었던 관계로 CHECK LIST 수행에 빠짐이 없도록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썼다. 또 국내에서와는 달리 엔진 시동부터 약간씩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관제사와의 통화도 첫 비행 때에는 잘 알아듣지 못해서 문제가 많았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대로 쿠웨이트 관제사가 말하는 것이 잘 들려 다행이었다. 미군들하고 계속 생활하면서 영어를 자주 들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쨌든 이륙해서 항로비행에 도달할 때까지 별 문제없이 임무를 수행해 낼 수 있었다.

항로에선 CB성 구름을 만나서 고도를 높이고, 약간의 항로를 변경하기도 했다. 아르빌 근처도 구름이 많은 상황은 똑같았다. 비행 브리핑 때 기상 브리핑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비행 나가는 조종사에게 강조되어 제공되어야 할 필수내용들이 왜 가끔 생략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다. 몇 번 되지 않는 임무 횟수였지만 여기 와서 처음으로 계기접근을 하나보다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15,000피트 정도 이하로 내려가니 시계비행 기상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시계비행 절차에 따라 접근할 수 있었다.

매번 임무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지상에서 반짝이는 작은 불빛만 봐도 왜 그렇게 신경이 곤두서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격납고에서 C-130 항공기 엔진의 피탄된 것을 본 것 때문에 그런 느낌이 더 강해진 것 같다. 실제로 피격을 받은 엔진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었기에 그 장면은 큰 충격을 주고도 남았다. 뭔가 새로운 좋은 소식이 전해지면 그나마 그렇게 신경이 곤두서서 비행하는 일이 줄어들겠지만,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식은 대부분 안 좋은 소식들만 있으니… 아마도 이 전쟁이 끝나거나, 아니면

적어도 한국에 돌아가기 전까지는 이런 긴장을 늦출 수가 없을 것 같다.

이 상황이 바뀔 수 없으니, 더욱더 안전하게 비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르빌에서 이륙해서 알리 알 살렘 기지로 돌아오는 항로에 들어서고 안전고도 이상으로 상승을 완료했을 때야 비로소 배가 고프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긴장 끝에 먹는 점심이어서 그런지 입맛도 없고, 이제는 질려가는 음식 맛(미측 FLIGHT MEAL)에 준비된 음식을 다 먹을 수 없었다. 이런 푸념들 속에 알리 알 살렘 기지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한다.

* m^2 → 평 쉬운 환산법 *

1평은 대략적으로 가로와 세로 각각 1.818m로 3.305m^2이다. 따라서 휴대폰이나 계산기가 있을 경우 'm^2'로 표기된 숫자를 3.3으로 나누면 환산이 가능하다. 예컨대 100m^2를 3.3으로 나누면 약 30평이 된다.

3.3으로 나누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m^2'로 표기된 숫자를 '3'으로 나누고 그 결과에서 앞자리숫자를 빼면 대략평수가 나온다.

예컨대 120m^2를 평으로 환산하려면 일단 '3'으로 나눈다. 그 결과 나온 수치가 '40'으로 여기서 앞자리 숫자 '4'를 빼면 약 36평이 된다(120m^2/3=40→40-4=36, 약 36평이 된다).

100m^2를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약 30평이 된다(100m^2/3=33-3=30평). 단, 이 방법은 15평에서 90평에 한정해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아파트의 경우 유용하다.

파란 하늘을 Y염색체 없이 난다는 것

50기 사관 하정미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을 본 적이 있는가?

왠지 부끄러워지고, 자꾸 작아지기만 했던 그 파란 하늘 아래, 내가 당당한 공군대위로 전투기 조종사로 하늘을 날아다닐 것이라고는 감히 생각하지 못했었다. 평범하기만 했던 여고생이 멋진 정복을 입은 공군을 만나고 공군사관학교를 알게 되면서, 그 파란 하늘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

사관생도라는 이름을 갖기에는 공부를 그리 잘하지도, 운동을 잘하지도 못했다. 하지만 당시 IMF라는 큰 위기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도 할 수 있고, 일반 대학생으로 쉽게 경험하지 못할 많은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졸업과 동시에 장교로 임관해 든든한 직업을 하나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 공군사관학교 진학은 이미 내 마음속 꿈이 되어 있었다. 목표가 생기니 공부할 때 집중도 더 잘 되었고, 뛰는 것은 끔찍이도 싫어하던 내가 체력평가를 위해 매일 운동장을 돌고 헬스클럽에 등록해서 운동을 하기도 했었다.

반년이 지난 후 나는 가입교를 위해 성무대(공군사관학교)를 향하고 있었다.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들어오던 공사 정문에는 "경축 제50기 공군사관생도 가입교"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공사 반세기의 역사를 말해주는 '50'이라는 숫자는 자부심으로 가슴

깊이 새겨졌다. 가입교 기간 기본군사훈련동안 나는 평범한 여고생에서 당당한 공군사관생도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렇게 5주가 흘러 공사생도가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은 우리는 정식으로 공군사관학교에 제50기생으로 입교를 했다.

4년여의 시간동안 행군, 유격, 해양훈련, 낙하산 강하훈련, 생환 등의 군사훈련뿐 아니라 항공우주공학과 각종 교양과목을 통한 학업, 그리고 훌륭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나를 뒷받침해 준 체력과 대부분의 구기 종목을 따라 할 수 있는 운동능력을 얻었다. 또 패러글라이딩, 글라이더 비행, 관숙 비행을 통해 비행 체험을 할 수 있었고, 비행단을 견학하면서 조종사가 되겠다는 또 하나의 목표를 세웠다. 지금 근무하는 제20전투비행단을 방문하고 2주간 조종사 선배들과 생활을 하면서, 선배님들의 Fighter 조종사로서의 기개와 KF-16이라는 항공기의 지축을 울리는 엔진소리와 그 날렵한 몸매에 반해 내 인생의 두 번째 목표가 정해진 것이다.

그렇게 2002년 3월 나는 자랑스러운 공군소위로 임관을 했고, 임관 두 달 전부터 시작된 비행훈련으로 나는 또다시 목표에 한발 한발 다가서고 있었다. 4개 기종을 통한 2년 2개월 훈련기간에 항공기 각종 계통 및 비행원리에서부터 임무에 필요한 절차와 전술에 이르기까지 학술교육과 지상모의비행훈련 및 350여 시간의 비행훈련을 받았고 그 과정은 평가의 연속이었다. 매 순간순간이 평가되는 길고 힘든 여정을 끝내고 내 왼쪽가슴에 "WING"이라 불리는 조종흉장을 달았던 그 순간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시작된 공사생도의 꿈에서 지금의 KF-16 조종사가 되기까지 나는 2번이나 큰 갈림길에 놓여 있었고, 그때마다 어려운 선택에 마주하곤 했다. 처음엔 전투기 조종사가 될 것인가, 수송기, 헬기, 전술항공통제기 등을 탈 것인가에 관한 선택이었다. 전투기를 선택한다면 앞으로 매우 힘든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감당해야 했고, 또 여자로서의 삶;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계획도 잠시 뒤로 미뤄놓아야 했다. 당시로서는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나이가 들어 과거를

회상할 때 후회 없도록 내가 하고 싶었던 전투기 조종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

두 번째 선택은 전투기 조종사로서 앞으로 타야 할 기종을 결정할 때였다. 그동안 저 멀리 꿈속에만 있던 KF-16으로의 기종 전환 기회가 주어졌다. KF-16은 5년 전 내가 전투기 조종사라는 큰 꿈을 갖게 해주었던 항공기였기에 소중한 기회였다. 하지만 3년 가까운 시간동안 A-37B 기종에서 비행자격도 2기 분대를 이끌 수 있는 LEADER(분대장)가 되어 있었고, 이제 잠시 미뤄놓았던 결혼도 하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공부도 하고 싶었기에 그 선택은 그리 쉽지 않았다.

그러나 처음처럼, 또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고 멀리 내다보라는 선배님의 조언에 힘입어 기종 전환을 하게 되었다. 땅을 밟고 살도록 허락된 인간이 비행을 한다는 것과 내 자신 스스로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국가를 위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그리 호락호락 하지만은 않았다. 더구나 주위 동료들에 비해 **Y염색체가 없다**는 것도 가끔은 자신을 외롭게 하는 이유가 된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내가 꿈꾸던 목표를 이루었고, 그 결정에 단 한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또한 내 주위에 나를 여성이 아닌, 동료 장교로 동료 조종사로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다음 목표를 위해 한걸음을 내딛는다.

10년 후 나는 KF-16의 교관 조종사로서 전쟁 억제력을 가진 공군의 주된 전력이 되어있을 것이고, 한 가정을 이루어 부족하지만 따뜻한 아내가, 자상한 어머니가 되어있을 것이다. 10년 전 내가 꾸었던 것과 같은 꿈을 가진 친구들이 있다면, 여기 이렇게 평범한 여고생이 조금씩 그 소망을 이루어 나갔던 것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그리고 할 수 있는 젊음과 자신감이라는 든든한 무기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 싶다.

또다시 10년이 흐른 후에는 여성이기에 주목받는 2% 부족한 존재가 아닌 국가가 필요로 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대한민국의 핵심전력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파란 하늘을 향해 지축을 울리는 엔진소리를 뒤로하고 가뿐히 함께 이륙하는 그날을 상상하며 웃음지어 본다.

회원기고

제5차 한·일 군수관리자 회의 안내 소감

29기 사관 이명길

한·일 양국 공군 군수참모부 주관 제5차 한·일 군수관리자 회의가 우리 공군본부 주최로 2007. 10. 10.(수) 이곳 계룡대에서 개최되었다.

나는 이번 행사에서 일본 항자대(JASDF) 항공막료감부 장비부장(야마자키 공군소장)님 일행의 한국방문 기간 중 안내를 위해 김해공항에 도착하는 월요일부터 시작하여 김포공항을 출국하는 금요일까지 5일간 그들과 밀착 동행하면서 일본 공군장교와 항공자위대의 군수 현황을 처음 접하는 보람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일본 장교들은 특히 한국에서의 길지 않은 5일간의 방문일정에 대해 우리 군수참모부가 짜임새 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계획하여 제반 행사와 일정을 성공적이고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고마워했고, 특히 둘째 날 우리 군수참모부장 주관 만찬에서 한국의 전통음악과 음식을 접대해준 것에 대해 한국문화를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고, 양국 공군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방한 첫 공식 방문 장소인 한국항공(KAI) 견학 시 우리나라의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과 근접항공 지원기 KO-1의 생산능력과 현대식 대규모 설비에 대해 감명을 받은 것 같으며, 특히 우리나라가 자체 제작한 국산항공기가 해외로 수출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부러워하였다.

둘째 날 군수사령부 방문 시 오찬 후 휴식대기 일정 중 방문객들 각자에게 제공된 개별 양치도구(치약, 칫솔, 컵, 수건)에 대해 한국의 색다른 접대 문화를 신선하게 받아들이겠으며 귀국 시 실물과 함께 갖고 가서 상부에 전파하겠다고 하였다.

지난 5일간 일 측의 방문요원 일행을 수행하면서 느꼈던, 우리에게 교훈이 될만한 그들만의 몇 가지 독특한 행동특성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는, 일본장교들의 단정한 용모/복장 착용 등 외모 관리와 상대방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려는 조심성 있는 행동이 돋보였고, 많은 외국출장 및 해외여행 경험 등으로 그들은 국제적인 세련된 매너와 우수한 영어 구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둘째는, 일본장교들의 상관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과 상시 존중의 마음자세이다. 그들은 출장기간 내내 공식적인 업무장소는 물론이고, 사적인 자리에서도 부하는 항상 상관을 우선시하는 예절과 언행을 통해 철저한 존경을 표함으로써 엄격한 상하 서열의식을 보여 주었다.

셋째는, 처음 만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항상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준비하며 감사를 표시하는 세심한 배려의 모습이었다. 이는 공식적으로 접촉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 조그만 성의와 친절을 보여준 주위 사람들에게도 조그만 감사를 표시하는 몸에 밴 친절함인 것 같다.

다음은 금번 회의와 일 측 수행요원과의 대화를 통하여 인지된 일본의 항공기제작 산업기반의 막강한 잠재능력과 드러나지 않은 수준 높은 항공기 개발 기술력에 관한 나의 소감을 피력하고자 한다.

우리가 잘 아는바와 같이 일본은 오랜 항공기 자체생산 능력과 축적된 생산경험을 바탕으로 약 22년 전에 일본산 전투기인 F-2 항공기를 자체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지금도 70%대의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면서 훌륭히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가와사키 중공업에서 자체 개발한 단거리 국내용 중형수송기인 C-1(18,000LBS 적재능력, C-130과 CN-235 중간급)을 지금도 자국 수송기로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일본의 증가되는 해외 PKO 임무지원과 국제적 인도구호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현재 C-1의 3배 규모 능력을 갖춘 중·장거리용 대형 C-2 수송기를 국내에서 자체 개발하여 내년도부터 항자대에 도입예정이어서 일본의 신속한 해외 전략수송 능력은 급격히 향상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현재 이라크 파병부대에 대한 공수지원을 위해 본국과의 해외 장거리 비행에 따른 애로사항(3개국 기착/장기간 소요)이 당장 야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적 규모에 부합하는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고, 유사시 해외 전략공수능력을 갖추기 위해 일본과 같은 대형 전략수송기의 도입 운영이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일본의 높은 항공기 가동률의 근원이 되는 국내 중소업체의 수준 높은 항공기 부품제작 기술과 부품조달 능력이다. 이는 일본의 노후 항공기인 F-4와 F-15 기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소요 부품 확보를 해외조달원의 부재 시에도 일본 자체에서 조달할 수 있는 자체 능력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이는 일본과 미국 정부간 MOU를 통하여 미국의 원 제작사와 TAA(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를 체결하여 일본의 기술력 있는 중소 부품제작 업체에 높은 개발비용과 부품 매수비용을 지불하면서 직접 생산을 하도록 하여, 자국의 부품 국산화율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자국의 항공 산업 육성을 유도하는 정책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우수 항공기 부품을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여 해외구매를 원한다 해도, 일본에서 아직까지도 고수되고 있는 무기수출 금지 3원칙법에 의하여 양국간 직접교역에 의한 거래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금번 회의를 통하여 일본의 항공기 운영을 위한 수준 높은 자체 항공기 개발능력(F-2 국산화율 : 60%)과 장기운영 항공기 소요부품 자체조달의 외부 군수기반 환경을 살펴볼 때 우리나라도 노후화 되는 장기운영 항공기와 신규개발 국산항공기에 대한 높은 가동률 유지와 후속 군수지원 기반 확보를 위해 국내항공 기술수준 향상과 부품제작 중소기업체의 정책적 육성 등을 통해 원활한 군수지원이 보장되도록 항공 산업을 국가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금번 제5차 한 · 일 공군 군수관리자 회의를 통하여 앞으로도 양국 공군 군수분야의 활발한 항공기 기술지원과 군수교류 협조가 강화되어 양국의 선린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행복의 심리

15기 사관 안횡균

1. 행복의 추구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인간이 의식의 눈을 뜬 순간부터 의식을 잃을 때까지 가지는 소망은 각양각색이지만, 공통의 목표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지닌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을 얼마나 실현하고 있을까?

서점에 가보면 「행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제목의 책들이 많다. 이는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그다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람들이 이미 충분히 행복하다면, 행복이란 말에 그토록 귀를 기울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동안 힘들여 쌓아온 물질적 풍요를 기반으로 행복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과거에 비해 분명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실제로는 그다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왜 그럴까? 아마도 행복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행복이란 무엇일까? 도대체 행복의 실체가 무엇이기에 물질적 풍요와는 상관없이 항상 저만큼 멀리 떨어져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것일까?

행복이란 개념은 신기루와 같은 것이다. 행복이 신기루와 같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하나는 행복의 개념을 한마디로 정립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행복을 얻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행복은 은행의 금고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청와대나 국회 같은 권좌에 있는 것도 아니다.

어느 시인은 행복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행복은 나비와 같다. 잡으려 하면 달아나지만,

조용히 앉아 있으면 스스로 너의 어깨에 내려와 앉는다."

어느 철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욕망이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의 인생은 더욱 더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고, 욕망이 크면 클수록 더욱 더 불행에 가까워질 수 있다.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적을수록 행복할 것이고, 많을수록 불행할 것이다. 욕심이 많으면 그만큼 불행하고, 욕심이 적으면 그만큼 행복하다." 이처럼 행복은 욕심에 반비례하고, 불행은 욕심에 정비례하는 것이다.

욕심이 적으면 그만큼 마음은 맑아져 행복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만족할 줄 알면 행복하고, 모르면 불행한 것이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은 고요하고, 고요함은 맑다. 진실은 바르고 참되며 수수하다. 겸허함은 잘난 체하지 않고 겸손하며 검소하다. 깨끗함은 씻어낼 것이 없다. 행복이란 이런 것들이다. 행복을 원하면 간명하게 처신하고 간결하게 매듭지어야 한다. 그러면 살아가는 일들이 얽히지 않기 때문에 행복은 저절로 가까워진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다.

아이들에게 물으면 뭐라고 할까? 어느 날 누나가 어린 남동생에게 "너 행복하니?"라고 묻는다. 남동생은 "그렇다"고 대답한다. 누나는 다시 묻는다. "왜 행복하니?" 동생은 "그제는 대공원에 놀러갔고, 어제는 자전거를 샀기 때문이야"라고 대답한다. 이처럼 아이들은 쉽게 행복을 느낀다. 기뻐서 펄쩍펄쩍 뛰고 소리 지르고 노래를 부르는 등 아이들이 기쁨의 절정에서 느끼는 환희는 솔직하고 순수하다. 아이들은 과거에 대해서도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현재만 생각하고 현재를 즐길 뿐이다.

그러나 청소년이 되면 행복의 개념이 달라진다. 청소년들에게 행복하냐고 물으면 대체로 "아니요"라고 대답한다. 청소년들은 행복에 별로 관심이 없고, 다만 강렬한 무엇인가를 추구한다. 그들의 행복은 사랑, 흥분, 인기 같은 것, 그리고 언제 여드름이 없어질 것이냐의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

청소년기를 지나면 행복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기 시작한다. 행복에 대하여 자신에게 묻기 시작할 때, 그리고 행복이 자신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할 때 비로소 어른이 되는 것이다.

어른이 되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행복과 불행을 혼동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어른이 되면 결혼, 출산, 양호한 건강검진결과 등이 행복을 가져다주지만, 그러한 행복을 유지하기 위한 책임과 상실의 위험도 커진다. 부부간의 사랑이 지속되지 않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도 한다. 이처럼 어른들이 느끼는 행복은 매우 복잡하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행복에 대한 욕구를 많이 느끼게 된다. 자신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충분히 행동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행복에 대해 일찍부터 생각했어야 한다고 후회하게 된다. 인생의 황혼기에 그것 말고 달리 후회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선택된 空士人으로서의 행복관은 어떻게 조명되어야 할까? 좀 더 명확한 해답을 찾기 위해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를 비교해보기로 하자.

2.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 어떻게 다를까?

행복한 사람은 실제 일어났던 일들 중에 좋은 일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생각하고 나쁜 일들은 대개 잊어버린다. 반면에 불행한 사람은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모두 정확하게 기억한다.

행복한 사람은 성공과 실패에 대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 따라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일을 성공하면 자신이 그 성공을 이룩해냈고, 그 성공은 지속될 것이며, 자신은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다고 믿는다. 만약 행복한 사람이 실패할 경우에는 실패를 빠르게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불행한 사람은 자신의 성공과 실패를 사실 그대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불행한 사람은 어떤 일을 성공하더라도 그 성공이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 믿고 불필요하게 미리 걱정하면서 시간을 낭비한다. 행복한 사람은 지난날의 긍정적인 경험들을 굳게 믿는 반면, 불행한 사람은 회의적으로 받아들인다. 녹색 신호등이 켜있음에도 차가 얽혀 10분 동안 뜻대로 움직일 수 없을 때조차, 행복한 사람은 조금만 기다리면 끝내 길이 터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행복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보다 중요한 것과 시시콜콜한 것들을 구별할 줄 알고, 중요한 것에는 전념하면서 시시콜콜한 것에는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다.

행복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보다 직업 만족도가 훨씬 높다. 행복한 사람은 상사의 업무수행 평점이 훨씬 높다. 행복한 사람들은 고통을 잘 참아내고 위기에 처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능력이 탁월할 뿐 아니라, 긍정적 정서가 부정적 정서를 제거하는 큰 역할을 한다. 또 행복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보다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는 더 현명하게 판단한다.

행복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과 특히 다른 점은 폭넓은 대인관계와 보람 있는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이다. 행복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행동은 자연스레 자기를 희생하여 남을 이롭게 하는 이타주의(altruism)로 이어진다. 행복할수록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며,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좋아하고 낯선 사람들과도 자신의 행운을 나누고 싶어 한다. 불행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며, 그리고 자신의 욕구에만 몰두하게 된다.

행복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보다 대부분 혈압이 낮고, 면역기능이 높으며, 정상체중을 유지하는 등 더 건강한 생활을 할 확률이 높다. 즉, 행복이 장수와 건강한 삶을 보장해 주는 요소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위의 내용은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마음가짐과 행동의

지침을 주고 있다. 이제 한밤중에 잠 못 이루며 고민하면서 조금씩 불행해지는 길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조금씩 더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행복의 심리를 알아보자.

3. 행복의 심리

오늘날의 풍족한 삶이 주는 모든 혜택들, 그리고 높은 연봉과 지위, 권력이 행복을 가져다줄까?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Forbes)」가 선정한 100대 갑부들이 보통 사람보다 '조금 더 행복할 뿐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 자신은 믿는가? 흔히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 자신은 그런 말을 믿는가? 행복하다는 기준이 무엇일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정확하게 무엇일까? 과거에도 행복했고 현재도 행복한가? 아니면 과거에도 불행했고 현재도 불행한가? 그리고 미래에도 행복 · 불행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가? 행복의 심리를 살펴보자.

⊙ 행복의 심리는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보다 훨씬 더 잘 살려고 노력하는 심리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과 주변 사람들이 가진 것을 비교하고, 또한 앞으로 자신이 가지게 될 것과 주변사람이 가지게 될 것을 예측 · 비교한다. 멋진 집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웃 사람이 더 호화로운 맨션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사실은 불만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딴 사람이 은메달을 딴 사람보다 더 행복감을 느낀다면 이상한가? 동메달을 딴 사람은 메달을 따지 못한 사람과 비교해서 행복해 한다. 그러나 은메달을 딴 사람은 자신이 놓쳐버린 금메달과 비교하면서 행복하기보다는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한 달에 500만원을 버는 사회에서 400만원을 버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200만원을 버는 사회에서 300만원을 버는 편을 택할 것이다. 행복이 반드시 금전적 풍요와 정비례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상대적인 심리 때문이다.

⊙ 행복의 심리는 쾌락의 적응(hedonic adaptation)이다. 수십억 원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도 당첨 당시에는 세상을 얻은 듯이 기뻐할지 모르지만, 그 기쁨도 잠시일 뿐 얼마 지나지 않아 원래의 행복수준으로 돌아가고 만다. 이는 '적응현상' 때문이다. 적응현상이란 새로운 환경이나 상황에 맞추어가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평생 지속된다. 이러한 적응현상은 부작용을 갖고 있다. 즉, A라는 것이 없이도 예전에는 잘 살아왔지만, 지금은 그 사실을 잊고 A가 없으면 정말 살기 힘들어지는데, 그 이유는 쾌락의 적응 때문이다. 예를 들면, 3,500만원의 연봉을 받던 사람이 5,000만원의 연봉을 받게 되면 3,500만원으로 꾸려가던 삶에서 5,000만원으로 꾸려가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 그렇게 바뀌어진 삶에서 다시는 3,500만원으로 살기는 힘들어지는데, 이것이 쾌락의 적응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이다.

⊙ 행복의 심리는 쾌락의 쳇바퀴(hedonic treadmill)다. 사람은 누구나 월급이 오르면 행복하다. 그러나 이 역시 잠시뿐이다. 장기적으로 소득이 증가해도 사람들은 더 이상 행복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높아진 소득의 '쾌락'에 빠져들기 때문이다. '쾌락'에 빠져든 그때부터 아주 당연한 것처럼 적응해간다. 부를 축적하고 크게 성공하면 기대치는 그만큼 상승한다. 지금까지의 성공과 재산에 더 이상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더 큰 것을 바라며 안간힘을 쓴다. 이러한 현상은 더 많은 부를 쌓고 더 큰 성공을 이룬 뒤에도 또 다시 더더욱 큰 것을 바라게 되는 식으로 끊임없이 되풀이된다. 마치 갇혀있는 다람쥐가 쳇바퀴에서 뱅뱅 제자리를 돌듯이 행복수준은 '쾌락 쳇바퀴'에서 열심히 달리지만 한곳에 머무르고 마는 것이다.

⊙ 행복의 심리에서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다르다. 사람은 열렬히 원하는 것이 많고, 그것들이 얻어지면 대단히 좋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한다. 그러나 일단 그것이 얻어지고 나면 거의, 또는 전혀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의 욕망시스템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째서 그런 것일까? 욕망시스템은 우리에게 승진, 보다 많은 연봉, 보다 큰 집, 보다 많은 재산, 보다 높은 지위 등을 얻기 위해 경쟁(승패게임)하게 만들어진 것이다.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이지 즐거움과 기쁨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부자가 되는 것, 지위가 높아지는 것을 원할수록 일과 가정의 양쪽 모두에서 그만큼 만족스러운 생활을 즐길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원하는 것에 지나치게 사로잡힌 나머지 좋아하는 것을 즐길 수 있는 여가를 놓쳐버리게 된다. 이는 스스로 불행할 가능성이 높은 길을 택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비록 원하는 기준에서 성공했을지는 몰라도 자연히 불만을 느끼게 된다.

⊙ 행복은 태어나면서 결정된다. 아무리 나쁜 일을 당해도 활기차고 낙천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변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근심과 고뇌로 가득 찬 사람이 있다. 수입, 직업, 결혼 여부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긍정적이고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항상 의심과 실망과 걱정에 찌들어 있는 불행한 사람이 있다. 어째서 그런 차이가 있을까? 그것은 대표적으로 타고난 개인의 성격차이 때문이다.

요컨대 행복의 심리를 요약하면, 행복의 원천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며, 외부적 요인은 작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의 원천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찾으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찾는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있지도 않은 것을 찾으려 괴로워하며 스스로 불행해 하고 있는 것이다. 살아가는 각자의 마음에 따라 삶의 세계는 빈약하고 무미건조하고 하찮은 것이 되기도 하며, 풍성하고 재미있고 깊은 맛을 가진 것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행복과 불행은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심리이다.

4. 행복하기 위하여

행복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공통적인 개념들이 있다. 즉, 행복의 첫 번째의 의미는 쾌락처럼 직접적이며 일시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 두 번째의 의미는 만족과 같이 보다 지속적이고 심오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 세 번째의 의미는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실현하는 삶에서 찾는 것이다.

첫 번째 의미의 행복은 우리가 원했던 일이(아마도 예기치 않게) 이루어짐으로써 느끼는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의미의 행복은 일시적인 쾌락보다 여러 가지 부정적 정서와 긍정적 정서를 비교해 보고 장기적으로 긍정적 정서의 만족에 의한 삶이 더 즐겁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만족에 의한 행복은 원초적으로 쾌락적인 감정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감정들의 전체적인 균형 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 얻어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심리학자들이 보통 말하는 의미의 '행복'이다.

따라서 만족에 의한 행복은 다른 가능한 결과들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는 복잡한 인식과정을 포함한다. 요컨대 만족에 의한 행복은 일시적으로 직접 느낄 때 얻는 쾌락에 의한 행복과 달리 오랫동안 경험한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 사이에서 긍정적인 정서가 우세하다는 판단을 할 때, 그리고 실제로 발생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다른 결과에 비교해서 더 낫다는 판단을 할 때 비로소 얻어지는 것이다.

세 번째의 의미는 만족의 행복보다 더 폭넓은 의미의 행복이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힘으로 성취할 수 있는 최고의 선(善)이 무엇이냐"라는 한 제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사람들이 융성한 삶 또는 진정한 잠재력을 실현하는 삶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현대의 심리학자나 철학자들은 최선의 삶, 융성한 삶, 또는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구현하는 자아실현의 삶을 행복의 의미로 종종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행복은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는 독특한 현상이 없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불우한 삶을 산 한 예술가가 온갖 고난 속에서도 자신이 추구하던 예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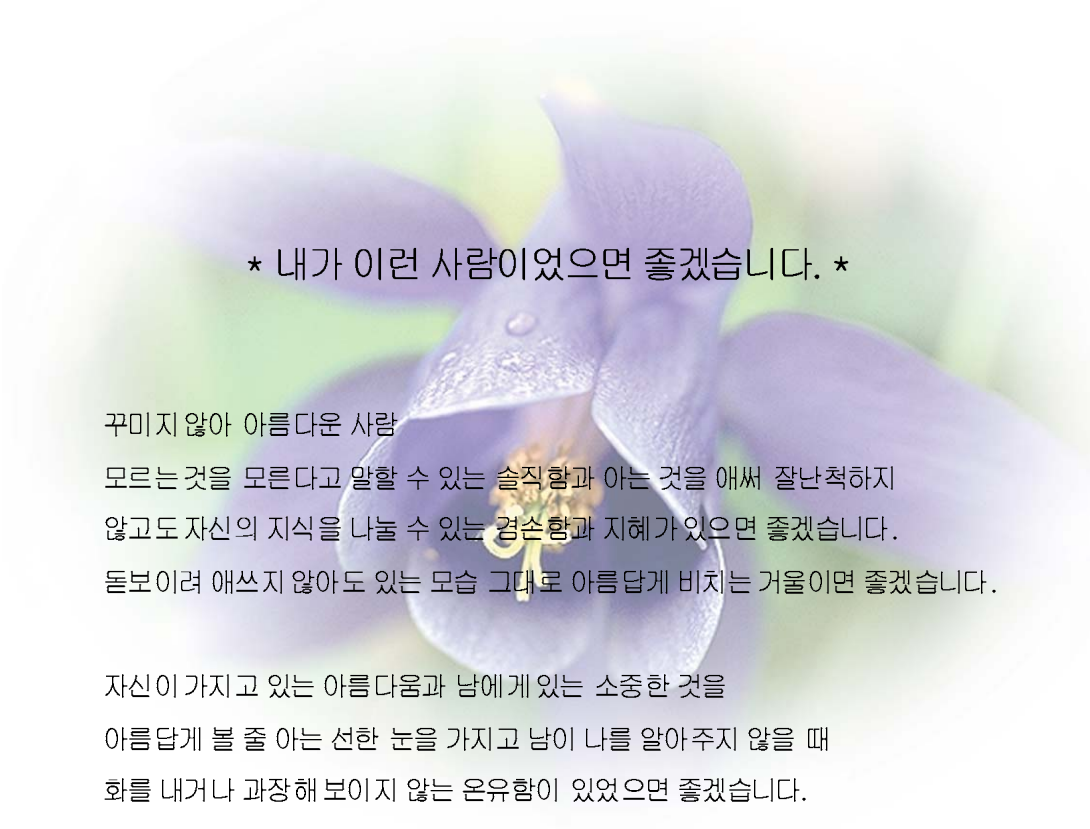
목표를 성취했다면, 쾌락과 만족의 행복은 누리지 못했을지라도 자아실현의 행복을 얻었다고는 할 수 있다.

위의 모든 행복보다 더 넓고 큰 행복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돌이켜 보건대 우리의 부모님들께서는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 그분들은 적어도 3~4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밤에는 등잔불 밑에서 삯바느질, 낮에는 삯빨래 등 모진 일들을 하셨다. 그분들은 쾌락과 만족이라는 것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을 것이다. 그분들은 행복이란 그 자체를 바라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으셨을지 모른다.

다만 그분들은 "사는 것이란 으레 그런 것이려니"하시며, 자녀들이 말썽부리지 않고 착하게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으로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만족과 흡족함, 나아가 그 이상의 행복감을 가졌을 것이다. 그분들은 많은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과 더불어 사셨을 것이다. 아마도 가족들과 친구들, 이웃들이 그분들에게는 기쁨인 동시에 즐거움이었을 것이고, 그들을 통해 충분한 만족과 흡족함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의 부모님들께서는 틀림없이 空士生徒, 군의 干城으로서의 우리들을 한없이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행복하셨을 것이다. 이 글을 쓰면서 이미 세상을 떠나신 우리네 부모님들의 삶이야말로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구현한 삶, 아니 그 이상의 진정한 행복한 삶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진다.

더불어 선택된 空士人으로서의 행복관 역시 분명히 조명되고 있다. 희로애락애오욕(喜怒哀樂愛惡欲)의 세상, 굽이굽이 쓰라린 인생살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받는 상처들……. 아무리 그렇게 힘들고 험난한 세상일지라도 空士人은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의 교훈과 "容儀端正, 淸廉潔白……"의 공사 십훈을 가슴에 간직하고 몸과 마음으로 행동하며 살아왔고 또 살아갈 것이다. 空士人의 행복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내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

꾸미지 않아 아름다운 사람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솔직함과 아는 것을 애써 잘난척하지
않고도 자신의 지식을 나눌 수 있는 겸손함과 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돋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있는 모습 그대로 아름답게 비치는 거울이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남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아름답게 볼 줄 아는 선한 눈을 가지고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화를 내거나 과장해 보이지 않는 온유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특함으로 자신의 유익을 헤아려 손해 보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마음보다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남의 행복을 기뻐할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이면
좋겠습니다. 삶의 지혜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잔꾀를 부리지 않으며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깊은 배려가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잠깐 동안의 억울함과 쓰라림을 묵묵히 견뎌 내는 인내심을 가지고
진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꾸며진 미소와 외모보다는 진실한 마음과 생각으로 자신을 정갈하게
다듬을 줄 아는 지혜를 쌓으며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눠주는 기쁨을 맛보며
행복해 할줄 아는 소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 좋은 글 중에서 –

내 삶은 아름다운가?

12기 사관 정민남

잊혀지지 않은 인연의 순간이 있다. 영원한 그 인연은 생도시절 어느 토요일 퍼레이드 행사 분열 준비를 위해 연병장에서 대기할 때 바라본 하늘과 맺은 것이다.

생도 2학년, 대방동 성무대 연병장에서 예복 차림으로 뒷 줄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바라본 하늘과였다. 그때 그 하늘은 무척 푸르고 넓고 높았다. 잠시나마 그 하늘을 쉽게 떠나지 못하고 이끌려 바라본 것은, 알 수는 없지만 고향 하늘과 어머니 같은 그 무엇이 나를 이끌었기 때문이었다.

푸르고 높은 그때의 하늘은 사십칠 년이 지난 지금도 마음의 고향으로 함께 살고 있다. 높고 푸르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 떠나지 않고 나를 매어두고 있다. 그 하늘은 어느 영화의 제목처럼 '순간에서 영원으로' 내 삶의 영원한 제목이 되었다.

내 삶 안에서 하늘은

하늘을 알고 나서 나에겐 욕심이 생겼다. 하늘처럼 먼지 끼지 않고 맑고 깨끗하게 살다 하늘처럼 푸르고 하늘처럼 높이 떠날 수는 없을까 하는 것이다.

하늘은… 하늘은 자유이며, 하늘은 도전이고, 하늘은 희망이고, 하늘은 영원히 열려 있는 내 삶의 터전이다. 하늘은 설렘으로 나를 손짓하며 기다리는 내 마음의 열린 지평이다. 하늘처럼 내가 아닌 객관의 대상으로 나를 볼 수는 없을까? 이 객관의 거리에 나를 두기 전 나는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좀 진지하게), 나에게 아직 살아갈 무엇이 남아 있는가?

이럴 때 나는 그때의 하늘처럼, 그 넓고 높은 나의 이상(理想)을 상기하여 바라보게 된다. 허무하지 않게 높고 귀한 하늘의 가치로 살며 나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일까? 부끄럽지 않게 '나'를 객관으로 볼 수 있는 깨끗한 나의 존재로, 하늘처럼 깨끗한 나눔의 존재로는? 어쩌면 이것은 이제까지 시도해 보지도, 시도해 볼 생각도 못한 새로운 하나의 도전이지만, 밝게 빛나는 희망의 태양을 맞이하는 자세로 내가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

이제 서둘러 서투른 준비가 되면 아니 되겠지! 포근한 사랑과 따뜻한 포용의 마음에서 나온 삶의 준비로… 이 준비로 나는 석양의 하늘이 일출의 동쪽 하늘보다 진정 더 붉은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하며 밝고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보기를 갈망한다.

내 삶이 아름답기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삶이 아름답기 위해 아름다운 대상을 찾아 아름다운 것을 보고 닮기 위한 여정이 나에게 아직 남아 있다. 그 대상들은 아름다운 온갖 사물, 생각, 인간들, 자연들로 내가 걷는 길에서 아름답게 그들을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삶의 끝자락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기다리는 죽음을 바라보는 눈에는 절망의 허무함만 보일 것이다. 삶의 지평에서 서양인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것이 after-death가 아닌 after-life였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은 어느 종교 서적에서 알게 된 최근의 일이다.

죽음 앞에서 그들이 본 after-life에 나는 마음이 끌린다. 동감이 간다. 생(生) 후에 생(生)이 있고 사(死) 후에 사(死)가 있을 것이란 느낌 때문이다. 생(生) 후의 생(生)을 생각한다면 그 생을 준비하는 과정의 삶이 필요하다. 사(死) 후에 사(死)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허무함으로 절망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제까지 생명의 삶으로 살아온 결과가 허무로 사라지고 만다니!

높고 맑은 푸른 하늘, 계곡 따라 흐르는 물소리, 나무 잎새들 사이로 찾아드는 바람소리, 흐드러지게 피어 온 산을 붉게 만든 봄철의 진달래 축제, 무리지은 새들의 노랫소리 가득한 숲과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낸 산등성을 바라본다. 저 너머에는 아름다운 또 하나의 생명의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상상과 기대는 새로운 희망이다. 그 희망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의 동기로 내 안에 살아 움틀거린다. 발걸음 가볍고 주변의 정경들은 손짓하고 정겹다. 내가 좀더 이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호감과 의욕과 용기가 나를 챙긴다. 내 삶의 희망이 하늘 위로 살아 떠올라 보인다.

삶은 즐겁고 아름답지 않은가? 인생예찬의 삶에는 희망의 예찬이 넘친다. 내 삶이 날로 새롭고 아름다울 때 세상을 아름답게 노래할 수 있다. 하루의 삶이 기쁘고 감사할 때 내일은 또 하나의 새로운 기쁨과 감사의 오늘이 될 것이다. 오늘 이 시간이 나에게 축복의 시간인 것이다. 인생은 지금

여기서 충분히 완성될 수 있다. 오늘을 살면 그것으로 충분한 나의 삶이 될 것이다.

이런 상상으로 사는 삶은 기쁘고 감사로 넘치는 아름다운 삶이 되지 않을까?

이것으로 내 삶은 하늘처럼 넓고 높고 맑고 깨끗하여 진정 무엇을 더 욕심낼까? 무엇으로 더 행복할까? 이러한 내가 된다면 나 아닌 이웃에게 너그러움과 부유함과 그들의 고통까지도 함께 즐겁게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나의 삶을 생각하게 될 때 생도 2학년 어느 토요일 대방동 연병장의 퍼레이드 대기 선(線)에서 바라본 그 하늘이 나타난다. 높고 푸르고 넓은 그 하늘은 나에게 운명 같은 만남이었다. 하늘처럼 살아야겠다는… 그 순간은 영원으로 이어진 삶의 아름다움을 주는 시간이 되었다. 그때의 푸르름처럼 순수한 내 삶은 희망이 되었다. 그 하늘에는 새로운 미래가 있고, 삶의 기쁨이 보이고, 새로운 세상이 보이고, 새로운 높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행복을 위해 내 삶이 누려야 할 것은 무엇이고 나누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나이 들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삶은 생각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너무 부족하고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내 삶이 과거보다, 현재보다, 미래에 더 허무하지 않기 위해서라기보다 내 삶은 하늘처럼 높아야 하고 하늘처럼 넓고 맑고 순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순수함만큼 영원한 것은 없지 않은가! 이제 그 푸른 하늘에서 내 영혼은 영원한 아름다운 둥지를 찾아야 한다. 하늘처럼 순수한 생각으로 행복을 위해 나는 삶을 누려야 하는가, 아니면 삶을 나누어야 하는가? "누린다면 어떻게? 나눈다면 어떻게?"를 생각하며 살고 싶다.

나의 행복을 돕는 것들

우선 사랑을 생각한다. 그리고 자유를 생각한다. 둘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다. 다르지 않아 내 행복을 지탱해 주는 버팀목이고 행복을 위한 가장 큰 구성 요소가 된다.

자유를 생각할 때 나는 이런 자유들이 자주 떠오른다. 미움으로부터 자유, 세뇌로부터 자유, 집단 사고의 압력으로부터 자유, 재물로부터 자유, 규범으로부터 자유, 속된 유행으로부터 자유, 휩쓸림으로부터 자유, 권력과 권위로부터 자유, 불필요한 자존심으로부터 자유… 분명 이 자유들은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자유에 관한 문제들이다. 수많은 자제와 수양의 요구가 따르는 자유들이지만 그 요구는 생(生) 후의 생(生)을 위해 필요한 자유에 대한 요구라고 생각한다. 진정 나는 자유롭지 못하되 자유롭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가도 생각하며.

사랑이야말로 모든 나의 부족함과 결핍으로부터, 나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충족시키는 유일한

구원임을 깨닫는다. 사랑이야말로 최종적인 행복의 입문임을 추측한다. 모든 종류의 인간을 사랑해야 하고 모든 미움에서까지 자유롭기 위한 선택은 자유와 사랑의 절대자에 대한 선택일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된다. 사랑은 이 모든 한계를 끌어안아 품는다. 나의 모든 문제가 그 포용 안으로 들어가 비로소 안착한다. 이 안착을 위해 끊임없이 영혼에 대한 묵상과 침묵의 시간으로 다가서는 기도가 동반한다.

다시 하늘은 순수함의 원천이다. 하늘 때문에 지치지 않고 사랑을 생각하고 기대할 수 있다. 하늘을 바라보면 언제나 그 안에서 무한한 자유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하늘을 바라보면 거기서 내 안에 무한한 자유가 차오른다. 다시 내가 순수함으로 채워진다. 영혼의 순수함을 하늘에서 채워준다.

또 하나의 자유인 자연에서

깨어나는 숲은 아름답다. 깨어나는 숲에 깨어나는 생명들이 있다. 깨어남을 보면 생기가 돈다. 새들 노래가 새롭고 아침 햇살이 숲을 살린다. 숲의 공기를 깨운다. 깨어나는 생명들은 숲을 사랑하게 가르친다. 숲은 사랑을 알게 해준다. 자연을 가까이 보면 행복이 보인다.

사랑하면 세상이 아름답다. 사랑은 흐르는 강물처럼 세상을 노래한다. 사랑 안에서 모두는 친교의 관계로 흐른다. 평화와 행복이 친교하는 세상으로…

인디언은 자연에 대한 사랑으로 자연을 자신들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바람 속에 당신의 목소리가 있고 당신의 숨결이 세상 만물에게 생명을 줍니다.
당신이 만든 물건들을 내 손이 존중하게 하시고
당신의 목소리 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예민하게 하소서.
그래서 저 노을이 지듯 내 목숨이 사라질 때 내 혼이 부끄럼 없이 당신에게 갈 수 있게 하소서.

마종기 시인은 인간과 자연에 대한 사랑을 사랑의 강물로 노래한다.

"우화의 강"에서
"사람이 사람을 만나 서로 좋아하면
두 사람 사이에 물길이 튼다
한 쪽이 슬퍼지면 친구도 가슴이 메이고
기뻐서 출렁거리면 그 물살은 밝게 빛나서
친구의 웃음소리가 강물의 끝에서도 들린다"

사람이 사랑의 대상으로 노래되어 존재할 때 세상은 아름답다.

그 노래에서 자연은 사랑의 무대가 된다. 자연과 사람은 세상이 생기기 전, 창조되기 전, 한 울 안에서 흙이나 바람이나 공기 같은 하나의 요소로 존재하였을 것이다. 자연과 인간으로 나누어지기 전 한몸으로 친화하였을 것이다. 가장 자연스런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원래의 행복한 관계로 회귀하는 일일 것이다.

하늘은 내 삶의 영원한 이상
내 영혼이 빈곤해질 때
내 영혼이 순수하고 싶을 때
나를 손짓하여 부른다
하늘은 영원히 나의 시선이 머무는 곳
영원한 나의 벗으로 나를 기억해 준다

노년기 취미생활, 국궁

20기 사관 이영희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여기서 고령화 사회란 65세 이상 인구가 5%를 넘는 것을 말하는데, 만약 14%를 넘으면 그 사회는 다시 고령사회라고 한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이미 접어들었고 2022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는 고령사회가 되며, 이런 현상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척 빠른 편이다. 하지만, 이렇게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빠른데 비해 노인들의 여가생활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취미생활 여건은 아직도 절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젊어서 일에 쫓겨 이렇다 할 취미도 없이 은퇴한 노인들이 공통적으로 당면하는 문제는 사고(四苦), 즉 病苦(심신의 건강상실), 貧苦(경제적인 의존), 孤獨苦(인간관계의 단절) 및 無爲苦(사회적 역할상실)를 겪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필자는 노년기에 사고(四苦)를 극복하기에 적합한 취미생활 중의 하나로서 우리나라의 전통무예인 국궁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국궁(활쏘기)은 5천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지녔다.

그런 만큼 우리의 삶과 풍속 곳곳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으며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남아 우리겨레의 삶이 추구해온 유형무형의 유산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활은 예로부터 우리 동이족과는 밀접한 관계를 가져왔고 활쏘기가 과거 우리나라 놀이문화의 중심을 이루었던 것은 사실이다.

중국이 창, 일본이 칼이라면 우리나라는 단연 활이다. 고주몽, 양만춘, 이성계, 이순신과 관련된 활 이야기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사에서 활이 단순히 전쟁무기로만 사용되어졌던 것은 아니며, 활쏘기는 육예(六藝) 중 하나로 취급되어 사회 공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특히 사람들이 모여 활쏘기 하는 과정에서 예절을 강조함으로써 사회교육에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선조가 백성들 사이에 상무정신을 진흥시키고자 경복궁 건춘문 안에 활터(射亭)를 세우고 이것을 민간에게 개방한 것이 우리나라 민간 사정(射亭)의 시초가 되었다. 최근에는 대한궁도협회 산하 전국 300여 활터에서 2만 명이 넘는 동호인들이 생활체육으로 국궁을 즐기고 있다.

필자는 2002년도에 공군을 전역한 이후 2004년 3월부터 경남 사천시 삼천포에 위치한 한국 폴리텍 항공대학 학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공기 좋고 물 좋은 이곳 남녘 해안지역에 근무하면서 국가 기간산업에 필요한 항공관련 중간 기술자를 양성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음은 물론, 부수적으로 얻은 큰 수확이 우리 전통무예인 국궁을 접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국궁에 대해서는 이곳으로 오기 전에도 이미 현역으로 강릉비행단장 재직 시에 부대 안에 국궁장을 설치하여 필자를 필두로 장병들의 취미생활로 국궁을 권장한 바도 있으나, 본격적으로 국궁에 입문하게 된 것은 이곳 사천에 오고 난 이후부터이다.

덕분에 사천읍에 위치한 활터인 수양정의 사두(射頭)를 비교적 젊은 나이에 역임하는 영광을 얻을 수가 있었고, 지난 10월 말에는 사천 항공우주엑스포를 기념하는 제1회 사천시장기 전국남여궁도대회를 공동후원기관으로서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노년기에 적합한 취미생활로 국궁을 추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몇 가지만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노년기 건강유지에 좋다는 것이다.** 모든 스포츠는 나이 50이 넘으면 몸에 무리가 오지 않도록 조심해서 해야 한다.

더구나 땀을 흘리는 운동은 특히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면 아무 운동이나 함부로 할 수가 없다.

그러나 활쏘기는 죽기 전날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하는 특이한 운동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활터에 가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것이다. 실제로 필자가 소속되어 있는 활터에도 80세 이상 되신 분이 세분이나 계시고 아직도 외부대회에 출전하고 계신다.

전국대회에 출전해 보면 나이 많으신 노인들이 단체전 및 개인전에 출전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활쏘기가 결코 만만한 운동인 것만은 아니다. 활쏘기는 전신운동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다. 시위를 당길 때 허벅지에 힘을 주고 나중에는 항문 괄약근을 꽉 조여 주어야 하기 때문에 단전호흡이 저절로 이루어짐으로써 기를 잘 소통시켜 사람을 건강하게 한다.

활을 쏠 때 온몸의 힘을 짜내어 쏘지 않고 손으로만 쏘면 화살 날아가는 모양이 금방 틀려짐을 알 수 있다. 활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허벅지가 굵어지고 허리에 군살이 없는 것이 그 이유이며 활쏘기가 노인 건강에 좋다는 것이 또한 그 이유다.

다음은, **활쏘기가 여타 운동에 비해 매우 경제적이라는 것이다.** 활을 쏘기 위해서는 우선 주거지 부근에 위치한 활터에 가입해야 하고 기본 장비를 구입해야 한다.

활터 가입비는 보통 15만원 수준이고, 월 회비는 2만원 수준이다.

활쏘기 시작을 위한 기본 장비로는 개량 궁 20만원 내외, 화살 8만원 내외(10개 기준), 손가락에 끼는 깍지 2만원 내외가 소요되어 초기 시작 총비용은 활터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으나 50만원 정도면 된다.

그 이후에는 월 회비 2만원 정도로 주야 구분 없이 전천후로 활쏘기를 즐길 수가 있다. 열심히 연습하여 기량이 향상된 이후 나중에 전국대회에 나가 입상을 하게 되면, 물론 쉽지는 않지만, 주어지는 상금도 심심치 않아 집안 살림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꿩 먹고 알 먹고'도 가능하다.

또한, **노년기에 전국 유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국에는 국궁 활터가 300군데가 넘고, 2만 명 이상 되는 동호인들이 선수로 등록을 하고 매일같이 활터에 나와서 활쏘기를 즐긴다. 대한궁도협회에 등록된 회원들은 언제든지 다른 활터에 가서 습사를 할 수가 있고, 또한 그곳 회원들이 환영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활을 쏘며 전국 유람이 가능하다.

더구나, 국궁대회가 전국대회로 연중 20여 차례 이상, 지방대회가 각 지역별로 10여 차례 이상, 1년에 총 100여 차례 이상의 크고 작은 궁도대회가 전국 각 지역에서 개최되므로 대회 참가 겸해서 전국 유람이 가능하다.

이런 면에서는 부부가 함께 활을 쏘면 더욱 좋고, 실제로 전국에 많은 부부궁사들이 있으며 근래에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고, 이에 부응하여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전국대회도 일년에 서너 번 개최되고 있다.

이제, 우리 공군에도 민족 고유의 무예인 국궁이 많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공군사관학교 및 수개 비행단에서 많은 장병들이 국궁 동호회를 구성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예비역 중에서도 많은 수의 인원이 활쏘기를 하고 있고 그중 꽤 많은 사람이 유단자로 활약하고 있다. 그 결과로 지난 9월 초 육군사관학교에서 개최된 '제9회 육군 참모총장기 전국남녀 궁도대회에서 공군 궁사들이 군인부 단체전 및 개인전 1, 2, 3위를 석권하였고, 공군사관학교 생도 궁사들이 대학부 단체전 1, 2위 및 개인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노년에 이렇다 할 취미도 없고 노년에 대비한 설계 및 준비가 없는 남성 노인들을 '젖은 낙엽 족'으로 부른다고 한다.

도쿄대학 여교수가 명명했다는 이 '젖은 낙엽 족'은 자립하지 못하고 부인에게 거의 모든 것을 의존하는 노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마치 젖은 낙엽이 빗자루에 달라붙어 안 떨어지듯이 24시간 졸졸 따라 다니며 한사코 붙어 있다는 뜻이다.

우리가 노년에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아직까지 노년에 즐길만한 이렇다 할 취미가 없는 분들에게 우리의 전통무예인 국궁 연마를 통해 정신수련과 체력단련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천하는 바이다.

하늘 담긴 연못

19기 사관 이영순

空士 〈하늘공원〉
나직한 바위에 걸터앉아
고요한 연못 들여다본다.

해맑은 명경 속에
깊고 푸른 하늘이 담겼다

유난히 깨끗하고 깊은 하늘
고운 공간 가르고픈 충동
멋스러운 비행을 해 본다

갑작스레 잉어 떼 몰려와
잠긴 하늘 흐트러지고
심취한 비행기
연못 속에 잠겨 버렸다

잉어들은 아랑곳없이
먹이 달라 시위한다.

착각에 빠지는 것은
어찌 이태백 뿐일까?

비가 오는데…

18기 사관 이봉길

지하철 입구에 나오니 비가 내리고 있다. 퇴근 후 지하철을 탈 때까지만 해도 흐리기만 했는데, 그새 내린 비에 물 먹은 보도가 주사(朱砂)처럼 붉게 보인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에 와 닿는다. 오늘처럼 저녁나절에 예고 없이 비가 올 때면 우산을 챙겨들고 아버지 마중을 나갔던 때가 생각난다.

일기예보를 제대로 들을 수 없던 시절, 미처 우산을 준비하지 못하고 퇴근길에 비를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학교에서 돌아와 젖은 옷을 갈아입고 따스한 아랫목에 발을 묻고 있노라면 저녁밥을 지으시던 어머니가 나를 부르셨다. 비가 심상치 않은 것 같으니 우산을 들고 아버지 마중을 나가라고 하신다. 못들은 척 대답도 하지 않고 있는 내게 어서 나가라고 재촉하신다. 그제야 나는 장화를 꺼내 신고 투덜거리며 우산을 집어 들었다. 그럴 때면 옆에서 놀고 있던 여동생이 따라 가겠다고 떼를 쓰고 나는 벌컥 성을 내며 동생에게 화풀이를 하곤 했다.

내가 고등학교 입학하던 해 갑작스런 병환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 후로는 나도 철이 들었는지 날이 어두워지거나 비가 오면 아버지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전에는 어머니가 말씀하실 때까지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다. 우산을 챙겨들고 대문을 나서면 여느 때처럼 여동생이 따라 나선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동생에게 장화를 신기고 겉옷을 입혀서 데리고 나갔다. 동생은 귀찮다고 화를 내던 내 눈치를 살피면서 슬그머니 내 옷자락을 잡고 따라 나왔다.

동생과 나는 전차 정거장 앞 큰길가에서 아버지를 기다렸다. 날은 어두워지고 여러 대의 전차가 지나가도 아버지는 오시지 않았다. 저만치 빗속을 뚫고 외눈박이 전조등이 나타나면 이번에는 꼭 오실 것만 같아 사람들 틈에 내리는 아버지를 놓치지 않으려고 목을 빼고 한 발짝 차도에 내려섰다. 지나가는 자동차가 물을 튀기면 우산을 앞으로 세웠다 들었고 그새 차가운 빗방울이 까까머리

를 때린다. 아버지는 여간해서 오시지 않고 날은 점점 추워지고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팠다. 동생이 칭얼대면 길가에서 달고나 과자를 만드시는 할아버지한테 가서 동생의 손도 녹이고 설탕과자를 사주며 달래기도 했다.

그즈음 아버지는 퇴근 후에 회사 근처에서 약주를 한 잔 하고 오시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오늘도 틀림없이 주막에 들리셨나보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어쩌면 취해서 오실지도 모르는 아버지를 부축해드려야겠다는 마음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윽고 기다리던 아버지가 전차에서 내리시면 동생은 빗속으로 아버지를 부르며 찻길로 뛰어들었다. 아버지는 "추운데 뭐할라꼬 기다리노!"라고 나무라시면서 동생을 텁석 안고 동생의 발갛게 얼은 뺨에 수염이 꺼칠한 볼을 부비셨다. 나는 추위도 배고픔도 잊고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우산을 높게 받쳐 들면서 걸음을 재촉했다. 모처럼 웃으시는 아버지, 늦게라도 기다리는 우리들한테 돌아와 주신 아버지가 그때처럼 미덥고 고마운 적이 없었다.

아버지가 된 지금 나는 가끔 퇴근길에 갑자기 비가 내리면 지하철 속에서 집에 전화를 한다. 나의 경우 엎드려 절 받기식이지만 개찰구를 나오면서 입구에 기다리는 애들을 봤을 때만큼 반갑고 예쁘게 보일 때가 별로 없었다. 그 시절 내 아버지도 마중 나온 우리들을 이렇게 착하고 예쁘게 보셨을까.

예로부터 사람을 반기는 데는 마중이 으뜸인 것 같다. 외국 사신을 국경까지 마중 나가는 것이 국빈을 맞는 의례로 되어 있는가 하면 객지에 나간 자식이 오는 날 동구 밖에서 기다리는 어머니, 기약 없이 먼 길 떠난 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날마다 성황당 고갯마루에 올라서게 한다. 미처 마중을 못나갔을 때는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을 버선발로 마당에 내려서서 반기며 마중 못나간 미안함을 대신하기도 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을 떠난 후로는 내 앞가림에 바빠서 집안일이며 아버지 생각을 한 기억이 별로 없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몇 해가 지난 뒤에 어릴 적 동네 친구를 만나서 들은 이야기다. 어느 늦가을 저녁, 주룩주룩 내리는 비를 맞으며 앞서 걸어가시는 아버지를 뵈었다고 했다. 그때 아버지는 "비가 오는데, 비가 오는데……."라고 혼잣말을 하시면서 약주를 한 잔 하셨는지 온전한 걸음걸이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친구가 우산을 받쳐드리니까 굳이 마다하시면서 앞서 가라고 손사래를 치셨다고 했다. 그때도 오늘처럼 찬비가 내리던 날, 아버지는 먼저 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셨던 걸까, 아님 객지에 나가있는 이 못난 자식을 생각하셨던 것일까. 비를 맞으며 홀로 걷고 싶으셨던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다.

공자님은 "부모가 계시면 먼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집을 떠날 때에는 반드시 향방을 알려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나는 일찍이 집을 떠났고 아버지 임종도 지키지 못했다. 내 살기에 바빠 변

변히 용돈도 드리지도 못했고, 집을 떠난 뒤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다. 태어나면서부터 무한히 베풀어주신 부모님 은공에 보답은커녕 불효만 저지른 것 같다. 생각하면 비 오는 날 몇 번 마중을 나간 일 빼고는 아버지 살아생전에 자식으로서 해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면서 남들보다 더 많은 걱정을 끼쳐드리기만 했다.

빗방울이 점점 굵어진다. 가로등에 비치는 빗줄기가 전장에서 무수히 쏟아지는 화살처럼 보인다. 잎을 다 떨군 은행나무 가장이가 떨고 있다. 엊그제까지 은행잎을 밟으면서 가을의 정취에 잠겼던 길인데, 오늘은 비에 젖어 빛바랜 무늬처럼 보도에 붙어있는 이파리를 밟으면서 옷깃을 여민다. 나도 몰래 "비가 오는데, 비가 오는데……."라고 중얼거리고 있다. 이대로 오래오래 비를 맞으며 걷고 싶다.

* 말 속에 향기와 사랑이 *

복잡한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서로의 격려와 칭찬과
긍정적인 말은 이 세상을 훨씬 밝게 만드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이웃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은
새로운 힘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아름다운 말에는 분명 향기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말에는 분명 사랑이 있습니다.
늘 향기를 안고 다니는 님들이길 소망해봅니다.
늘 사랑을 안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 좋은 글 중에서 –

회원기고

예비역 동창생활 閑談

15기 사관 엄익준

1. 프롤로그

나는 모교 총동창회 운영기수인 15기로 임관하여 공군 시설감을 마지막 보직으로 1997년 초 전역하였다.

제대할 때 전역동기들끼리 한 얘기가 있었다. 앞으로 개나리 열 번만 피고지면 힘도 없어 골프도 못치니 자주 만나 계룡대도 가자고. 그러나 그들과는 한 번도 못가고 벌써 열두 번째 꽃이 피고 있으니 세월은 역시 유수와 같다고나 할까?

때마침 사무실 창밖에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개나리를 보면서 예비역 동창으로서 생활을 해오는 동안 명암이 공존했던 여러 가지 일 중에서 몇 가지를 한담 삼아 적어본다.

2. 학 습

나는 군 생활 동안 서울대학에서 건축을 공부하고,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조경을 수학한 바 있으나 전역 후 진로 결정과 변신의 차원에서 새롭게 학습하는 늦깎이 학생 생활을 하였다.

내가 전역할 당시에 진로결정을 위하여 몇 사람과 상의하게 되었는데(그들은 '벤치마킹을 통한 설계 VE 추진절차개선에 관한 연구 논문' 감사의 글에 언급한 대로 아직도 나의 후견인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 당시 건설업계의 새로운 화두가 CM(건설사업관리, Construction Management)이었기 때문에 발주자로서의 경험을 가진 나를 그쪽이 적격이라고 조언하였다.

그래서 CM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여 한국능률협회에서 주관하는 CM 전문가 과정에 거금을 내고 국외 현장학습을 포함하여 6개월 동안 학습하였다. 미국에서 현장학습을 하고 있을 때 샌디에이고에 있는 CM 전문회사를 갔더니 그곳은 특히 예비역 해군 장교들이 많은 활약

〈미국현장학습시 팀별 과제발표〉

〈미국 VE 교육시 강사와 함께〉

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역시 잘한 조언이고,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잭 웰치 전 GE 회장의 말처럼 자신만의 특화된 요소기술을 갖지 않으면 쟁쟁한 전문가가 몰려있는 Red Ocean에 계속 머물러 봐야 승산이 없을 것으로 보여, Value Engineering이라는 Blue Ocean으로 옮겨가려고 서울시립대학과 미국에서 CM과 VE를 새롭게 배우면서 석 · 박사 과정을 다시 하게 되었다.

물론 어린 학생들과 공부하고 숙제하고 발표하고 토론하는 것이 그다지 쉽지만은 않았지만 공사인의 정신력과 투지로 일부학기엔 등록금 전액면제의 장학혜택을 받을 정도의 모범학생으로 주경야독하였다.

메릴린치연구소는 OECD국가에서의 지식의 반감기가 지금은 4년 정도이나 2012년에 가면 73일밖에 안 된다고 했으니 항상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부단한 학습은 현대인에게 불가피한 것이다.

현대사회는 패러다임이 양을 위주로 한 만족의 시대에서 서비스를 곁들인 감동의 시대로, 공급위주의 동맥적 사고에서 리사이클을 고려하는 정맥적 사고로 변환되었다. 그래서 일하는 방식도 Skill 위주의 Foot Worker에서 Knowledge로 승부하는 Head Worker로, 학습하는 방법은 Training에서 Learning으로 바뀌어 졌다.

따라서 부지런하면 먹고 살 수 있는 시대는 지났고, 평생학습을 통해 지식으로 무장된 성실함만이 자기가치를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다.

– 교훈 : Boiling Frog Syndrome.

서서히 덥혀지는 물속의 개구리는 변화를 느끼지 못하여 삶겨 죽고 만다. 과거의 성공요인에 안주하는 게으름뱅이를 비유하는 말로써 Narcissism이라는 얘기도 있다. 과거의 성공요인은 바로 지금의 실패 원인이 된다는 '피터 드러커' 의 얘기와도 일맥상통한다.

3. 사 업

나는 심의, 자문, 컨설팅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군과 관련된 일은 하지 않기로 했다.

'남쪽인 월나라에서 온 새는 둥지를 틀어도 남쪽 가지에 튼다(越鳥巢南枝)' 는 말이 있고, 한비자는 지나친 청빈도 처벌의 대상이라고 하면서 '벼슬이 정승이면서 청빈하게 산답시고 궁상을 떨면, 누가 열심히 해서 벼슬하려고 노력하겠는가' 라고 하였다.

인연이 닿는 곳에 등을 붙이고 일하게 마련이며, 그것을 지나치게 꺼려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다는 뜻이다. 그러나 나는 생각을 달리 했다.

내가 하는 회사가 또는 내가 속한 주체가 군 관련 일을 수주했다면 '그 사람이 거기 있어 봐줘서 그렇다' 고 상대편에서 헐뜯을 것이고, 수주를 못했다면 '그 사람은 그거 하나도 못했다' 고 흉볼게 뻔하기 때문에 안하는 게 본전이라는 생각이다.

(暗) 한 가정의 가장이요, 두 대학생의 학부모였던 때라 공부만 할 수 없어 뭔가를 해야 생활이 되니 배운 것을 써먹을 겸 지인들과 Cost Engineering을 전문으로 하는 설계 사무소를 시작했다. 구성원들이 성실하여 나름대로 기반이 잡혀갈 때쯤 IMF 사태가 터졌다.

건물주가 부도를 내는 바람에 임대 중인 사무실이 경매 처분되고 전세금은 고스란히 날아가 버렸다. 은행 빚과 전세금 간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기 때문이다. 한심한 것은 사무실은 주택과 달리 전세금에 대한 우선권이 특별히 없다는 것이었다. 더 한심한 것은 은행들이 건물 값보다 더 많은 돈을 대출해 줬기 때문에 경매금 모두를 회수해 가고도 줄 도산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다. 미국에서 지금 불어오고 있는 서브 '프라임 모기지' 의 선행사례라고나 할까.

군에서 제대하는 사람의 정보만 제공해도 퇴직금의 반은 준다는 사기꾼들의 얘기가 생각났지만 굳이 나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로 위안하고 다른 사무실을 구해서 이사하는 방법밖에 별 도리가 없었다.

– 교훈 : Back To the Basic!

건물의 이력이나 대출금 등을 확인했더라면 그 사무실을 얻지 않았겠지만 적은 돈으로 싼 집을 찾다보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거다.

(明) 우울한 상황에서 다른 일을 생각하고 있는데 인테리어를 전문으로 하는 후배가 찾아왔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경영이 쉽지 않으니 같이 해보자는 제안이었다. 준비된 사무실도 큼지막하고 비서아가씨도 똑똑하고 집에서 출퇴근하기도 가깝고 하여 막연한 상태에서 승낙을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찾았다. 사업은 수주가 우선이라는 결론이었다.

MB께서 공무원은 머슴이라고 다그치고 있지만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이 법정에서 먼저 한 말이다.

'기술자는 머슴이다', '경영자가 결정하면 그대로 이행하는 사람이니 머슴이지요' 라고 했다. 나도 명색이 Engineer로서 자존심 상하는 얘기긴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다(그래서 지금은 무모한 수주로 제살 깎아먹는 일을 줄이려고 Engineer를 영업부서 선봉에 배치해 놓는다).

부단한 수주 노력 끝에 인테리어 업계에서 알아주는 회사가 되었고 더 이상 직원을 늘리지 않으려는데 계속해서 신입사원 채용 부탁이 들어와 머리가 아프다.

시인 정희승은 서울대학을 두고 "누가 조국으로 가는 길을 묻거든 눈을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고 하였던가. 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의,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공항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신식 병원의, 삼성에서 가장 비싼 그림을 전시하는 미술관의 인테리어를 어느 회사가 했느냐고 물으면 바로 그 회사가 우리 회사라고 답할 수 있다.

〈리움미술관 인테리어〉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인테리어〉

– 교훈 : Stay Hungry and Stay Foolish!

다 아는 '아이팟'의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인데, 물론 '히딩크'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꾸준히 우직하게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자에게 뭔가 결과가 있는 것이다.

4. 활 동

말깨나 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갔더니 "대학을 두 곳, 대학원도 두 곳 나온 사람이 뭔가를 후진들에게 돌려줘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얘기하면서 몇 군데 강의를 부탁하였다. 원래 Engineer는 말보다 실천이기 때문에 강의에 대한 탤런트는 부족하다. 그러나 공사인의 정신으로 열심히 하고보니 정부투자기관, 공무원교육원 등에 강의를 맡게 되고, 대학에 겸임교수로 임용되게 되었다.

Blue Ocean에서는 보통 정도만 되어도 강의도 하고 심의도 하고 임원도 할 수밖에 없다. 못한다면 오히려 참여의식이 부족한 사람으로 취급하니까. 그래서 한때 나는 회장직을 3개, 부회장직을 4개나 맡았다. 잘나서가 아니라 서열순, 참여순, 또는 구색 맞추기도 한몫 했다.

〈한 · 일 기술사 심포지엄 발표〉

〈주공 VE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나는 강의할 때 다른 사람과 반대로 시작 시간은 칼같이 지키고 끝나는 시간은 목표량을 다하면 끝내는 방향으로 한다. 그렇다고 밤 10시에 끝낼 것을 9시에 끝내거나 하는 무계획적인 것은 아니고, 그래서 한 학기의 두 번째 시간이 지나면 시작과 동시에 문을 잠그고 늦게 오는 사람은 밖에서 기다리다 쉬는 시간에 들어오게 하기도 한다. 학기 동안에는 불만의 소리도 있었지만 나중에 졸업종합시험과목을 선정할 때 보니 의외로 내 과목을 두 번째로 많이 신청하였다. 결과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고 본다.

중앙대학 겸임교수를 하고 있는 모 씨가 통상 학기가 끝나면 성적 열람기간 동안 핸드폰이 불이 난다고 했다. 이러저러한 사유로 학점에 대한 항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나도 신경이 쓰였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한 번뿐이었다. B+를 받아야 장학금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려줄 수 없냐는 거였는데 당연히 NO다. 기록에 의해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모든 자료는 공개되어 있었고, 다른 누군가가 B로 내려가야 하는데 누구를 내리면 좋은지 알려달라고 했으니까.

〈학부 논문심사 후 기념촬영〉

〈한국 VE 대회 사회〉

– 교훈 : 분위기가 중요하다.

석가모니가 제자들을 데리고 길을 가고 있었다. 새끼가 하나 떨어져 있으니 '이것이 무엇이냐?' 고 제자들에게 물었다. 새끼를 모르지 않는 스승이 묻는 의미를 몰라 이리저리 만져보고 맡아보고 하다 한 제자가 '생선을 묶었던 새끼옵니다' 라고 답했다. 스승은 고개만 끄덕였다. 또 한참을 가다 종이가 떨어져 있으니 '이것은 무엇이냐?' 고 물었다. 종이를 모를 리 없는 스승의 뜻을 알고서 또 이리저리 만져보고 맡아보고 하다 '향수를 쌌던 종이옵니다' 라고 답했다. 스승은 고개만 끄덕였다. 한참을 가던 제자들이 궁금하여 왜 그런 질문을 하셨냐고 물었다. 석가모니가 '그것이 세상을 사는 이치다' 라고 했다. 더 궁금해진 제자가 그것이 무슨 뜻이냐고 또 물었다. 그랬더니 석가모니가 '생선 같은 사람, 생선 같은 분위기에 있으면 너도 썩은 생선 냄새가 나고, 향수 같은 사람, 향수 같은 분위기에 있으면 너도 향내가 난다. 그러니 항상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좋은 분위기에 살도록 노력하라는 얘기다.' 라고 했다.

5. 친　교

'오스트리아' 출신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마틴부버' 는 '사람의 시작은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그 만남은 반드시 참되고 보람된 만남이어야 한다' 고 했다. 그동안 우리는 수없는 만남을 했지만 과연 그것이 참되고 보람된 것이었는지에 대하여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내가 잘 아는 사람 중에 아주 대조적인 친교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사람인 반면에 한 사람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전자를 더 분명하고 확실하니 결과도 좋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전자는 작은 것에서 승리하고 큰 것에서의 승리는 후자의 것이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된다고 해주기를 바라는 이상한 속성이 있어서 후자가 훨씬 더 친교력이 있는 것으로 결론짓는다.

얼마 전 동기생 등산에서 있었던 얘긴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다.

〈사례 1〉 한 지인의 아들이 공군에 입대했다. 사무실 근무하는 특기로 서울 근교에 배치되기를 바랐다. 성적순에 따라 컴퓨터 추첨으로 배정됨을 아는 이 사람은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걱정말라 해놓고 가만있었다. 원하는 대로 됐다. 왜냐하면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사례 2〉 다른 지인의 아들이 공군에 입대했다. ○○특기만 안 되게 해달라고 했다. 당시 부탁받은 사람의 동기생은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렇지만 혹시나 해서 시스템상 어렵다고 했다. 그래 놓고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 그런데 가장 원치 않았던 바로 그 특기로 배정이 되었다. 왜냐하면 그 기수는 몽땅 그 특기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앞의 두 사례에서 전자는 앞의 후자에 속하고 후자는 앞의 전자에 속한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사람은 한 것도 없이 만날 때마다 고맙다고 인사를 듣는데, 분명한 사람은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말만 먼저 하니 될리가 있느냐고 두고두고 타박이다.

나도 사람 좋다는 소리보다는 분명한 사람이기를 자처하며 살았다.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은 나를 인정 없고 입바른 소리 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타고난 천성은 어쩔 수가 없어 생긴 대로 산다.

나는 아직도 주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이 하나 있다. '87년 교육사 이전 사업 때 건설 지휘소장으로 일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같이 일하던 사람들과의 모임이다. 그 당시 내 주관은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였다. 다만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것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다보니 진양군수, 도로공사 지사장, 지역유지 등 주변에서도 많이 호의적으로 도와주는 바람에 대가 없이 임기를 끝냈다.

그때 고생한 사람들끼리 모이자고 누군가가 먼저 제안하여 생긴 모임이다. 그때 내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했다면 업체 속성상 길가다 만나도 피해갈 것이다. 지금도 나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 아주 좋다. 정보화 사회에서 사람의 능력은 그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많은 필요한 사람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

내가 기술사회 CM 전문가과정 강의에서 자주 인용하는 얘긴데 한 상사가 서로 경쟁하는 두 직원에게 숙제를 주었다. 금요일 오후에 20쪽 분량의 깨알 같이 박힌 영문 원고를 주면서 주말 동안에 우리말로 잘 정리하여 월요일 아침에 사장님께 보고할 수 있게 만들어 오라는 것이었다. 영어에 자신 있는 A는 혼자서 했다. 그러다보니 번역은 다했지만 파워포인트 만들 시간이 부족하여 내용이 좀 거칠었다. 영어에 자신 없는 B는 영어 잘하는 부인, 자기 친구 등에게 분담, 부탁하고 본인은 보고자료 위주로 작업했다. 컬러, 구도, 요약된 내용이 훌륭했다. 과연 누가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을지에 대한 판단은 독자 여러분의 것이다.

〈모임에서 일본여행〉

〈일본 지인들과 회식〉

– 교훈 : 개도 주인 닮아간다.

누구 밑에서 일을 배웠느냐를 가지고 사람의 능력을 판단하고, 누구와 친하게 지내느냐를 가지고 범죄용의 선상에 오르기도 하니까 주변을 잘 정비할 필요가 있다. 골프 칠 때마다 다투고 갈 때는 다시 안 만날 것처럼 보여도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끼리 똑같은 행태로 치게 된다. 유유상종이니까.

6. 에필로그

예비역 동창으로서의 활동도 이제 서서히 접어야 할 때가 된 듯하다. 어디라도 갈 것 같고 무엇이든 할 것 같던 겁 없음이 서서히 겁 있어 지려고 하니까.

서양에서는 얼마나 젊은 나이에 은퇴하여 자기만의 생을 즐길 수 있느냐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느냐의 판단기준이라 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늦게까지 일할 수 있느냐를 보람이라 하니 생각의 차이가 너무 크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저하되고 눈이 잘 안보이고 귀가 잘 안 들리게 한 조물주의 오묘한 진리를 거슬러서는 안 된다. 'Know Why?' 와 관련된 일은 젊은이에게 맡기고 걸어온 길과 겪었던 경험을 알려주는 'Know How?' 의 일에만 관여하는 게 곱게 늙어간다는 소리 듣고 사는 방법이다.

터무니없는 노욕이 사람을 우습게 만든다는 얘기가 바로 '신 팔불출' 이다.

50에 뭐 좀 하겠다고 중국어 학원 다니고, 60에 뭐 좀 하겠다고 골프 레슨 받고, 70에 뭐 좀 하겠다고 비아그라 먹고, 80에 뭐 좀 하겠다고 건강 검진 받는 거(지금은 99881234이니까 각각의 나이에 10쯤 보태야 하지 않을까도 생각되지만) 잘 생각해 보고 하자. 왜냐하면 여자 50에 대학 나온 거나 안 나온 거나 같고, 60에 성형 한거나 안 한거나 같고, 70에 남편 있는 거나 없는 거나 같고, 80에 돈 있는 거나 없는 거나 같으니까(90에는 산거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 너무 촐랑대며 살지 말라는 뜻이다.

앞으로 올 새로운 10년의 동창생활은 역동적인 도전이기보다는 노련하면서도 진중한 생활이기를 기대하며 두서없는 글쓰기를 끝낸다.

* 이웃(隣) *

이웃과 절대로 등지지 말라.
이웃은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큰 거울이다.
이웃이 나를 마주할 때 외면하거나 미소를 보내지 않으면
목욕하고 바르게 앉아 자신을 곰곰이 되돌아봐야 한다.

– 인생의 덕목 –

골프와 바람

32기 사관 송인수

이제는 대중화된 운동의 하나로 자리 잡은 골프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군에 몸담고 있는 현역이나 직장인들과 같은 주말 골퍼들에게 주말의 기상은 무척이나 고려하여야 할 대상 중 하나이다. 골프와 같은 야외 운동 시 많은 기상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중에서도 연중 계속하여 영향을 주는 것은 바람일 것이다. 이번 기회에 골프 운동 시 볼의 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바람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 바람의 영향에 대하여 조금 더 생각하고 필드에 나간다면 대다수의 주말 골퍼들이 적지 않은 타수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모든 물체를 살펴보고 바람의 움직임을 읽는다.

골퍼들이 운동을 하면서 바람의 방향이나 풍속을 알아보기 위하여 잔디를 뜯어 날려보는 방법을 써 보지만 바람은 그 정도로 단순하지 않다. 지상 근처와 그 위 상공의 바람은 방향이나 세기가 일정치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코스에서는 나뭇가지 끝의 움직임, 핀의 깃발 등 모든 물체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코스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캐디의 의견을 듣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

대부분의 골프장에서는 알림판을 통해 당일의 기상상태나 예보를 알려 주고 있는데 운동을 시작하기 전 이를 확인하고 특히 바람의 방향과 속도를 염두에 두고 운동에 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바람의 세기를 가장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풍력의 세기를 들 수 있다.

○ 풍력 1~2(1~6Kt)
- 연기가 옆으로 흘러가며 나뭇잎이 약하게 일렁인다.
- 아이언의 피치 샷 이외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 풍력 3(7~11Kt)
- 나뭇잎과 가지가 부단히 움직이며 얼굴에 부는 바람을 확연히 느낀다.
- 깃발이 나부끼며 펄럭인다./한 클럽 차이의 영향이 있다.

○ 풍력 4(11~16Kt)
- 모래 먼지가 휘날리고 핀이 흔들린다.
- 연못에는 물결이 생긴다./두~세 클럽 차이의 영향이 있다.

○ 풍력 5(17~21Kt)
- 바람의 영향이 상당하여 공 궤도의 휨이 크다.
- 잎이 있는 나무가 흔들리기 시작한다./세 클럽 이상의 차이를 고려한다.

▲ 바람 방향에 따른 참조점

○ 팔로우 윈드(follow wind, 뒷바람)

목표 방향으로 부는 팔로우 윈드는 눈으로 보아서는 치기 쉬운 듯한 바람이다. 볼을 높이 띄우면 바람이 옮겨다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바람이 옮겨주는 거리를 계산하여 치지 않으면 실패하게 된다. 또한 높이 올린 피치 샷은 바람의 영향을 가장 받기 쉬워 핀을 훨씬 넘어버리기 일쑤다.

예를 들어 150m 앞에 목표를 두고 무풍 상태에서 4번 아이언을 사용하고 있다면 부는 바람의 강도에 따라 5번이나 6번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로프트가 큰 클럽으로 볼을 높이 올리면 비거리는 바람이 늘려준다는 뜻이다.

○ 사이드 윈드(side wind, 옆바람/측풍)

옆에서 부는 사이드 윈드에 대해서, 하이 테크닉의 골퍼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부는 바람에는 훅 그립으로 드로 샷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부는 바람에는 페이드 샷으로 쳐야 한다. 그러나 초보자에게는 그다지 바람직스럽지 않은 전술이 될 것이다.

초보자는 바람을 이용하는 일을 고려해야 한다. 볼이 바람방향에 따라 흘러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목표보다도 바람의 위쪽을 겨냥하여 치면 좋다.

사이드 윈드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힘을 이용하여 쳐야 한다.

○ 어게인스트 윈드(against wind, 맞바람)

목표쪽에서 불어오는 어게인스트 윈드는 가장 어려운 케이스다. 볼의 회전에 영향을 주어 슬라이스나 훅도 좀 더 크게 휘어져 버린다. 가장 안전한 방책은 비교적 바람의 영향을 덜 받는 저공으로 날리는 것이다. 따라서 바람에 대응하여 한 클럽 또는 두 클럽 로프트가 작은 클럽을 선택하여 낮은 탄도의 볼을 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때 풀 스윙을 하기보다는 스탠스를 넓게 잡고 안정된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쇼트 그립에다 손목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상체만으로 쳐서 콤팩트한 스윙을 만드는 것 또한 효과적이다. 물론 거리보다 방향을 중시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 필드에서의 풍속 측정법

티샷박스나 필드에서 풍속을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대개의 골프장에서 풍속계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인근 기상대에 물어 보는 방법도 있지만 시시각각 변화하는 풍속을 매번 체크하며 샷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체감적으로 인지하고 필드 및 클럽 특성을 생각하여 게임에 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대부분의 골퍼들이 대개 잔디를 뜯어 바람에 날려보면서 바람의 방향을 체크하지만 정작 볼을 보내야 할 정확한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 풍속을 측정하여 운동에 적용하는 경우는 사실상 많지 않은 것 같다. 따라서 풍속을 고려한 과학적 운동을 위하여 경험적 실험치와 수학적 근거에 입각한 풍속 측정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잘만 활용하면 지금보다는 훌륭한 필드 공략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된다.

① 잔디를 뜯어 약 90cm의 높이(허리 높이, 36인치)에서 떨어뜨린다.
② 자신의 위치에서 잔디가 떨어진 위치까지의 수평거리(m)를 잰다.
③ 이 거리에 "3"을 곱한다.

⇒ 이 숫자가 필드에서 공이 날아가는 동안의 평균 풍속(knots, 노트)이다.
예) 잔디가 바람에 날려간 거리가 1.5m이다. 이 경우 필드에서 공이 비행하는 동안의 평균풍속은 1.5×3 = 4.5노트(Knots)이다(1knots = 약 0.5m/sec).

▲ 바람(풍속)의 영향을 고려한 클럽 선택 방법

기온이 10℃일 경우 평소 무풍상태에서 5번 아이언으로 약 155m(낙하지점까지의 거리)를 날리는 골퍼는 뒷바람 10노트(knots)일 때 165m를 보낼 수 있으며, 맞바람 10노트일 때는 135m밖에 보내지 못한다. 따라서 바람의 세기를 고려하여 거리를 감안한 클럽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보통 맞바람의 경우 10노트당 한 클럽의 크기만큼 더하여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또한 옆바람의 경우 10노트당 약 5m의 흘러감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람이 셀 경우 맞바람이 뒷바람보다 공중으로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굽어짐(curve)이 더 크다. 따라서 낮은 궤도로 훅 또는 드로 타법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보통 바람 2노트당 맞바람은 약 4m의 감쇄 효과가 있으며, 뒷바람은 약 2m의 가산 효과가 있다. 바람의 세기를 고려한 필드에서의 클럽 선택 방법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① 맞바람의 경우(위 풍속측정법에 따른 풍속 이용)
"풍속×2 + 목표까지의 거리"를 계산하여 클럽을 선택한다.
② 뒷바람의 경우(위 풍속측정법에 따른 풍속 이용)
"목표까지의 거리 – 풍속"을 계산하여 클럽을 선택한다.

예) 맞바람이고, 목표까지의 거리가 155m이며, 풍속이 12노트인 경우
(12×2) + 155m = 179m. 따라서 무풍상태에서 평소 179m 도달하는 클럽을 사용하면 될 것이다.

예) 뒷바람이고, 목표까지의 거리 155m이며, 풍속이 12노트인 경우
155m – 12 = 143m. 따라서 평소 143m에 도달하는 클럽을 사용하면 될 것이다.

* 목표까지의 거리 : 낙하지점까지의 거리

▲ 골프에 바람이 나야 바람을 이길 수 있다(?)

골프 운동에 대한 격언과 이야기는 무수히 많다. 골프를 잘 하고자 많은 골퍼들이 노력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틈나면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연구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연습장과 필드로 나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야만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 골프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매번 수많은 다른 종류의 샷을 구사하여야 하며, 심리적인 상태와 컨디션이 항상 다르고 주변 여건과 기상상태도 항상 일정치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골프의 매력이며 또한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골프를 멘탈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다. 다른 운동과 마찬가지로 골프도 자신과의 싸움이다. 필드에서 여러 장애 요소 중 하나가 바람일 경우 이를 잘만 활용하면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바람에 관한 한 위에서 기술한 내용을 잘 숙지하여 운동에 임한다면 골프에 바람이 나야 바람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은 무색해질 것이다.

유럽여행

15기 사관 **김성덕**

이번에는 여행을 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몇 가지 소개해 본다.

미국여행을 마치고 계획했던 1년 여행 중 나머지 6개월간의 유럽여행을 하기 위해서 바로 독일로 날아와 유럽의 베이스캠프를 자기 집에 차리라고 우리가 미국여행 하는 동안 일부러 전화까지 해준 친구 황인영의 집이 있는 뒤셀도르프로 향했다. 나와 고등학교, 사관학교 동기인 황인영이 없었으면 유럽여행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런지? "정말 고마웠다. 친구야!"

뒤셀도르프 베이스캠프에서 한 일들은 매우 중요한 일들인데 대략 다음과 같다.

친구가 미리 봐 놓은 중고자동차 폭스바겐 "샤란"을 12,000유로를 주고, 산 그 날로 6개월간 유효한 자동차 보험을 들었으며, 독일의 자동차협회 아데아체(ADAC)에 입회비 70유로를 지불하고 가입을 했고 또 그곳에서 우리가 여행을 계획한 국가별/도시별 명단을 제시하여 지도 30여 장을 얻었다. 핸드폰은 친구 황인영의 부인 것을 빌려 쓰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한국식품점에 가서 쌀과 부식을 사서 차에 싣고 떠났다.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독일,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스위스, 영국,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이태리, 그리스, 터키, 류블리아나,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20개국을 여행하였다.

유럽에서도 중고 자동차로 약 5만 km를 달렸는데 타이어 펑크가 2번 난 것 외에는 고장이나 사고 한 번 없이 다녔고 나중에 8,400유로를 받고 되팔았다. 다니면서 여기저기에서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들 친구들이 없었더라면 과연 이렇게 낯설고 물도 설은 그 먼 길을 다닐 수 있었을까? 생각할수록 친구의 소중함에 감사할 따름이다.

우리는 숙소만큼은 사전 예약을 하지 않고 다니기로 했다. 왜냐하면 한번 예약을 하면 꼭 그 곳으로 가야 하는데 길 찾는 일도 만만치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도 하며 가는 동안 멋있는 곳이 있어도 그냥 지나쳐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저 가다가 해가 질 무렵부터 주위를 두리번두리번 하면서 호텔이나 모텔을 찾아서 적당한 곳을 숙소로 정하는 식으로 다녔다.

1년을 여행 다니면서 늘 "호텔이나 모텔은 모두들 침대 시트 갈아놓고 청소 해두고 우리가 오길 기다리고 있을 터이니 우린 그냥 가서 깨끗하고 맘에 들고 가격이 맞으면 들어가 하룻밤 자면 되는 거야" 하는 편한 마음으로 다녔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한번도 방이 없어 길거리에서 잔적은 없다.

〈하느님, 성모님 보호하사…〉

프랑스의 루르드 성지(천주교의 세계 3대 성지 중 하나)에서 만났던 황인영 내외와 헤어진 다음 국경을 넘어 스페인의 바로셀로나에 도착해 중앙역에 있는 안내센터에서 소개받은 호텔을 찾아가는 길. 신호대기에 서 있는데 웬 젊은이 하나가 오토바이를 타고 차 옆으로 와서는 두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는 시늉을 하면서 뒷바퀴를 가리킨다.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이상하다고 느껴 도로 옆에 차를 세우고 보니 뒷바퀴 하나가 완전 펑크.

펑크 난 차를 길옆에 세워두고 짐 몇 개 들고 우선 도보로 약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호텔로 가서 독일에서 가입했던 '아데아체'에 연락해 고장 난 차의 위치를 알려주니 들고 있는 전화에 바로 바로셀로나 직원과 연결이 되었고 30분 정도 걸려서 수리차가 와서 문제의 타이어를 스페어타이어로 바꾸어주었다. 고쳐진 차를 몰고 두 블럭 떨어진 호텔로 가는데 처음 나에게 눈을 찌르듯 알려주었던 그 젊은이가 다시 나타나서 또 같은 시늉을 하는 게 아닌가? 이번엔 무슨 일인가 싶어 차를 세우고 보니 방금 갈아 끼운 스페어타이어가 또 다시 펑크가 나 있다. 억지로 차를 끌고 호텔까지 와서

세워놓고 다시 '아데아체'에 연락을 했더니 이번엔 타이어를 새로 사서 갈아야 된다며 렉커를 보내 주었다. 타이어 수리점에 가서 보니 누군가가 두 번 다 타이어를 칼로 찔러서 펑크를 낸 것이다. 아마도 그 젊은이가 타이어를 못 쓰게 한 것 같은데 왜 그랬는지 통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곳엔 외국인이 탄 차가 오면 그렇게 만들어 수리하는 중에 차에서 물건을 훔쳐 간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우리가 주변 경계를 잘 해서 그랬는지 아무 일도 없었다.

나중에 마드리드 북쪽 약 47km 지점 언덕 위의 "망자의 계곡에 세워진 성 십자가"를 보는 순간 '아하! 자동차로 유럽을 거의 한 바퀴 돌아온 나에게 너무나 낡아버린 타이어로 큰 사고 나기 전에 타이어를 교체하도록 루르드 성지의 성모님이 미리 일러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 성모님 감사합니다.

〈한국말은 만국 공통어?〉

비는 추적추적 오고 날은 저물어가는 폴란드의 한 시골 도시. 예약을 잘 하지 않던 나였지만 지난밤 묵었던 호텔이 괜찮아서 다음 행선지에 같은 이름의 체인 호텔이 있다기에 미리 예약하고 떠났는데 가지고 있던 지도가 너무 열악한 데다가 도로도 꼬불꼬불하고 일방통행도 많아 가다가보면 다시 제자리로 오곤 한다. 별 수 없이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무조건 영어로 길을 물었는데 상대방은 못 듣던 자기네 나라말로 손짓 발짓 해가며 설명을 해댄다. 대충 감을 잡고 찾아 나섰지만 또 제자리로 왔다. 다시 다른 사람에게 이번에는 한국말로 "동대문 어디로 가요?" 하는 정도로 물으니 자기네 나라말로 이리 저리 설명을 하다가 도저히 설명이 어려우니까 자기차를 따라오라는 손짓을 하더니 빗길을 15분이나 달려서 우리를 안내해 주었다. 너무 고마워서 차안에 사 두었던 포도주 한 병을 선뜻 그에게 주면서 고맙다고 했다. 그 후로는 영어가 안 통하는 곳에서는 서슴없이 우리말로 길을 묻곤 했다. 아! 우리말로 해도 이렇게 잘 통하는구나.

〈헤드라이트 껌벅껌벅, 교통경찰 있음! 요주의! 만국 공통어?〉

터키는 길을 넓히느라 여기저기 확장공사를 하고 있었다. 공사 중인 도로에는 임시로 깔아놓은 돌이 옆으로 튀니 조심하라는 도로 표시판이 붙어있을 정도다. 비포장도로에서 벗어나 중간 중간 포장이 되어있는 곳에 오면 자동차들은 영락없이 마음껏 달린다. 나도 포장된 길에 오르자 마구 속도를 내고 달리는데 앞에서 오는 차가 헤드라이트를 껌벅껌벅 거린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얼른 속도를 낮추고 모퉁이를 돌아서니 저만치 교통경찰이 스피드건을 겨냥하고 있다. 나는 보란 듯이 저속으로 그 앞을 유유히 지나갔다. 알려준 차가 얼마나 고마운지… 그 후로 나도 반대편에서 오는 차에 헤드라이트를 껌벅껌벅 해주니 그 차도 고맙다는 답례로 헤드라이트를 껌벅하면서 속도를 낮춘다. 오래

전 우리나라에서 하던 관습을 이곳 터키에서 보다니… 반갑기도 하고 입맛이 씁쓸하기도….

〈말로만 듣던 백야의 나라〉

덴마크, 스웨덴을 거쳐 실자라인(Silja Line : 스웨덴과 핀란드를 오가는 유람선)의 페리를 타고 건너온 핀란드, 물 반 육지 반이라는 이곳은 정말 호수가 많다. 헬싱키에서 3~4일 머문 뒤 북쪽으로 올라가 북극권(Artic Circle)상에 있는 산타클로스 마을이라는 노바니에미에 도착했다. 세상어린이들이 산타할아버지에게 보내는 카드와 편지는 모두 이곳으로 배달되어 답장이 보내진단다. 숙소를 정하고 인근 골프장을 찾았다. 백야에 골프 한번 치고 싶었던 평소의 원을 풀 참이다. 그때가 오후 4시. 한국 같으면 마지막 두, 세 홀 남긴 시간일텐데 티오프를 했다. 처음 치는 골프장에다가 캐디도 없고 일행 중 머리 얹는 수준인 사람도 있어서 무지 느리게 진행이 되어 18홀 끝날 때는 저녁 9시쯤 되었을까… 그런데 그때 티오프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날이 훤하다. 세상에 이런 곳도…?

〈하룻밤 숙박비가 1억 리라-백만장자 된 기분이다.〉

터키에서 하루 자는데 보통 7천만 리라에서 1억 리라 정도 든다. 사실 달러로 하면 50~70불 정도로 얼마 큰 액수는 아니지만 1억이라는 단위를 지불하고 잠을 자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아닌가? 내가 마치 백만장자나 된 것처럼… 화폐단위가 하도 커서 그런지 터키사람들 셈이 흐릿한 것 같다. 하루는 은행에서 환전을 하는데 돈이 너무 많아서 일단 받아가지고 의자에 나와 앉아 세어보니 이천만 리라짜리가 다섯 장이나 모자란다. 다시 가서 얘기하고 더 받아왔지만 은행원들도 이 정도이니… 또 한 번은 늦은 밤에 주유소에 들려 8천9백만 리라어치 기름을 넣고 1억 리라짜리를 냈는데 거스름돈이 맞겠지 하며 떠나려다 다시 보니 천백만을 받아야하는데 백만 짜리 두 장만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가서 9백만 리라를 받았다. 어두운 밤이라서 일부러 그랬는지 "0"이 하도 많아서 그네들도 실수했는지?

유럽의 나라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화장실에 가면 돈을 내야 한다. 이곳 터키에서 한번 소변보는데 50만 리라 정도 낸다. 달러로 하면 30~40센트 정도이지만 소변 한 번에 50만 리라… 에라! 기분이다.

〈터키인들의 넉넉한 인심〉

한 번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들어가면서 우리의 행선지를 이야기하니 요금징수원이 길을 잘 못 들었다며 부스에서 나오더니 바리케이드를 옮겨 놓으면서 그리로 돌아 나오란다. 그리고는 그 옆에서 공차기하며 노는 동네아이 하나더러 톨게이트를 지키라고 일러놓고는 자기 차를 따라 오란다. 한참을 가서야 저쪽 길로 가라고 일러주고 돌아가려 하기에 너무 고마워서 지폐 몇 장을 주니 한사코 받질 않는다.

정직하고 착한 터키 청년이여 복 받으라.

기독교 박해를 피해 만들었다는 거대한 지하도시 데린쿠유를 보고 터키 남쪽 해변을 타고 서쪽으로 가고 있을 때이다. 길가에 연기 나는 식당엘 들렀더니 맛있는 케밥과 함께 짭짤하고 새콤한 고추절임이 나온다. 벌써 몇 끼째 한식을 못 먹고 있던 차에 입맛 돋우는 고추절임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다 먹고 나서 집사람, 잽싸게 자동차로 가더니 빈 그릇을 들고 와서는 돈과 같이 내밀면서 고추절임을 좀 팔라고 하니 한 그릇 가득 채워 주고는 돈은 한사코 받지를 않는다. 그래도 결국엔 억지로 주머니에 돈을 꾸겨 넣어주었지만… 정말 순박하고 넉넉한 인심의 터키인들이다.

〈하염없는 의자〉

여행을 다니다보면 경치 좋은 곳 부근에는 영락없이 편안한 의자가 만들어져 있다. 햇볕이 따뜻하게 쪼이는 날 그 의자에 앉아있노라면 앞에 펼쳐진 경치하며 따뜻한 햇볕하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하염없이 앉아있고 싶어지고 그럴 때면 우리는 언제까지라도 맑은 공기와 햇볕을 벗 삼아 오래도록 앉아 있다가 움직이곤 했다. 우리는 그런 의자들을 이름 붙여 "하염없는 의자"라고 하였는데 한국에서도 지난번 여수 향일암에 올라보니 바다를 바라보는 곳에 하염없는 의자가 있었다. 아마도 스님들께서도 이런 의자에 앉아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다가 득도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안녕하세요"를 국제 인사어로 쓰면?〉

외국여행을 하다보면 서양인들은 모르는 사람을 만나도 무조건 '굿모닝' 하고 인사를 한다. 여행지에서 우리는 얼굴 모습이 비슷한 동양인들을 만나면 더 반가운데 중국인인지, 일본인인지 아니면 한국사람인지 잘 구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냥 지나치기도 그렇고… 무조건 '안녕하세요'를 큰소리로 하면 한국사람은 '안녕하세요'로 답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은 중국이나 일본사람도 표정을 보면서 인사를 해온다. 외국에서 한국사람 만나면 서로 얼굴을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니 반갑게 웃고 인사해서 좋았다.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발 맞춰서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안녕하세요'를 크게 외쳐 먼저 인사해 봅시다.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사람도 우측통행〉

해외 유명 관광지에 가면 세계 각국의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 많다. 박물관, 성, 공원 등등… 한쪽으로 올라가고 또 한쪽으로 내려오는 좁은 길에서 나는 자꾸 앞에서 오는 사람들과 마주치게 되어 매우 불편하고 힘이 들었다. "이 사람들, 좌측통행도 모르나?" 하며 마주 오는 사람들 표정을 보니 그 사람들도 나와 같은 표정이라… 몇 번을 그러다가 세계 각국의 80~90%가 사람도 차도 모두 우측통행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로 우측통행을 하며 다녀보니 매우 편하고 부딪치는 사람도 거의 없다. 가끔 부딪치게 되는 사람은 대개 한국인 아니면 일본인들이다. 아마도 일제하에서 배웠던 좌측통행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자리 잡은 듯하다. 우리도 하루속히 우측통행으로 바꾸어서 세계의 물결과 보조를 같이 했으면 싶다. 좋은 예로서 외국에서 수입되어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를 보면 모두 우측으로 올라가고 우측으로 내려간다. 한국에 와있는 외국 사람들은 지하철역이나 걸어 다닐 때 얼마나 불편할까.

〈뱅뱅돌이〉

유럽을 자동차로 다니면서 느낀 것 중의 하나는 길들이 비록 좁지만 교통소통이 원활하다는 것인데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내가 '뱅뱅돌이'라 이름 붙인 둥그런 로터리 때문인 것 같다. 한국에서는 큰 도시를 벗어나서 외곽으로 조금만 나가면 붉은 교통 신호등 앞에 서 있기가 불안하다. 뒤에서 큰 트럭들이 신호등을 무시한 채 마구 달려오고, 붉은 신호등 앞에 서 있으면 헤드라이트, 클랙슨 등으로 지나가는 차도 없는데 왜 서 있냐는 듯이 겁을 주며 가끔은 옆으로 그냥 달려 지나가니 위험하기 그지없다. 이런 사정이니 조그맣게 로터리를 만들어서 항상 그걸 돌아서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나가면 되는 유럽의 교통체계는 참으로 전기 에너지 절약이요, 시간 절약이요, 성미 급한 운전수들 살려주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된다. 도심교통량이 많은 곳을 제외하고 시외에는

이런 '뱅뱅돌이'를 많이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터키의 케밥 이발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음식인 터키의 케밥은 긴 꼬챙이에 양고기, 닭고기, 소고기 등 고기를 겹겹이 쌓아 빙글빙글 돌리면서 한쪽에서 불로 가열을 하여 겉에 익은 고기를 큰 칼로 조금씩 썰어내어 밀가루 전 같은 것에 야채와 고기를 싸서 먹는 것인데 그 맛이 기가 막히다.

여행 중 자라는 머리를 제대로 관리를 못해 귀밑 머리 더부룩하던 차에 터키에 와서 보니 동네 이발소가 눈에 띄어 무조건 들어갔다. 손님 한사람이 이발을 하고 있기에 앉아서 조금 기다리니 외국인이 왔다고 매우 고무된 모습이다. 드디어 내 차례다. 역시 집사람의 솜씨와는 다르게 가위 소리부터 전문가답다. 정말 몇 개월 만에 이발사에게서 머리를 깎는다. 다 깎았는데 잠시 앉아있으란다. 그러더니 20~30cm쯤 되는 가느다란 철사 끝에 솜을 조금 말아 거기에 불을 붙이더니 그 불로 귀 볼과 이마 등 솜털이 있는 곳을 후르륵 지나면서 태운다. 우리는 면도로 귓바퀴며 귓불 등을 면도해 주는데… 불로 잔털을 없애주며 이발사가 하는 말, "터키식 케밥"이란다. 신속하면서도 근사한 잔털 없애기, 정말 터키의 케밥 생각나는구먼….

〈독일에도 있는 소매치기〉

영국은 운전석이 우리와는 반대라서 운전이 용이하지 않을 것 같아 기차와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다녀오기로 하고 독일에서 영국 가는 버스를 예약했다. 영국행 버스가 도착한 버스 터미널. 국경을 넘어 가는 것이니 일일이 표와 여권 등을 대조하면서 절차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고 짐을 싣는 데도 복잡스럽다.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있는 가운데 얼핏 보니 좀 수상한 사람이 우리 둘레에서 서성거리는 것이 눈에 띄어 집사람에게 소지품을 조심하라고 이르고 버스에 올라섰다. 버스에 올라서니 아직도 밖에서 짐을 싣는 모습이 흥미로워 사진을 찍으려고 점퍼 주머니의 카메라를 찾으니 없다. 창밖을 보니 좀 전에 버스에까지 올라와서 나를 밀치고 하던 사람이 버스에서 내려 황급히 저쪽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얼핏 보였다. 그 순간 '당했구나!' 싶었다. 서울에서부터 미국을 거쳐 독일까지 애지중지 가지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나의 홈페이지

회원기고

http://www.gaboza haeboza.com에 일기와 함께 올리던 카메라인데… 한순간에 소매치기 당하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고민이 되는지… 버스는 시간 맞춰 떠나니 따라가 잡을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영국으로 건너가서 제일 먼저 카메라 가게를 수소문하여 똑같은 모델로 하나 샀다. 이걸 사느라 빗속의 런던을 이리 저리 하루 종일 걸어 다니느라 고장 났던 무릎을 다시 다쳐 지팡이를 사서 짚었다. 독일 같은 선진국엔 있지도 않을거라고 생각했던 소매치기를 당하다니… 사람 사는 곳은 어디를 가든지 똑같구나….

이런 '마무리'는 어떨까요?

–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를 읽고 –

15기 사관 **최광섭**

꽤 오래전에 헬렌 니어링이라는 미국작가가 자기 남편과의 50여 년에 걸친 삶과 사랑에 관해 쓴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책의 제목이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 원제는 "Loving and Leaving the Good Life"였는데 교육과 환경 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던 이석태 변호사가 어느 잡지에 실린 헬렌과의 대담 기사를 읽고 삶과 세상을 보는 헬렌(당시 90세)의 눈에 깊은 감동을 받아 이 책을 번역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책에서 헬렌은 남편인 스코트 니어링을 처음 만난 무렵부터 그를 떠나 보낼 때까지의 생활을 섬세하고 따뜻한 필치로 그리고 있다. 헬렌보다 21년이 연상인 스코트는 미국의 산업주의 체제와 그 문화의 야만성에 줄기차게 도전하다가 두 번씩이나 대학 교수직에서 쫓겨났고 자신이 삶의 지표로 삼았던 톨스토이나 간디처럼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고 금욕적으로 산 사람이다.

유럽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고 있을 때, 전쟁에 반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스코트는 글과 강연을 통해 지나치리만큼 자유롭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념을 주장하며 주류사회의 흐름에 대항하다가 40세가 되기도 전에 아내와 가족 등 사회의 거의 모든 관계로부터 내쳐진 고단한 신세가 되고 만다. 스코트가 헬렌을 만난 것은 그가 완전히 혼자가 되어 삶의 맨 밑바닥에 있을 때였으며 두 사람은 가난한 뉴욕 생활을 청산하고 버몬트의 숲에 터를 잡고 농장을 일구며 살아간다.

헬렌과 스코트가 살아간 모습은 우리네 보통 사람들과 많이 달랐다. 끊임없는 저술 활동, 이를 위한 연구와 자료 수집, 그리고 전국에서 들어오는 강연 요청으로 농장 일을 할 시간이 넉넉지

않았지만 그들은 틈나는 대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채식주의를 철저히 실천했는데 그 이유는 먹거나 즐기기 위해 동물을 죽이는 것이 옳지 않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주변의 소음을 싫어하던 그들은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근처에 두지 않았으며 저녁 시간은 보통 책을 읽거나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보냈다.

일주일에 하루, 통상 일요일에 그들은 소화기관을 쉬게 했는데 가볍게 먹던 아침 식사와 점심을 생략하고 하루 종일 단식을 하다가 해가 지면 팝콘, 당근주스나 사과즙을 저녁으로 먹으며 끝냈다. 또 음식에 대한 방학기간으로 일년에 적어도 한번은 열흘 동안 단식을 했다. 그들은 그 기간 중 물만 마시고 지냈으며 평소의 가벼운 일 말고는 주로 글을 쓰며 보냈다. 오십 권이 넘는 책을 쓴 박학다식한 저술가이자 억센 농부로서 검소하고 소박한 삶을 살았던 스코트와 헬렌의 이런 생활 모습은 독자들에게 많은 것을 돌이켜 보게 한다.

스코트의 삶에서 더욱 완성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은 스스로 음식을 끊음으로써 평화롭게 맞이하는 그의 '죽음'이다.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그의 마지막 모습은 죽음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었으며, 그들의 땅에 뿌리박은 삶과 평온하고도 위엄을 간직한 죽음을 통해 삶과 사랑, 그리고 죽음이 하나임을 보여 준다. 책 제목의 일부인 '마무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죽음'의 다른 표현이며 이 책을 만나는 행운을 얻음으로써 나 또한 언젠가 맞이하게 될 '죽음'에 관해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짐을 많이 덜었고 내게 주어진 나머지 시간들을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해 마음을 정리할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다른 분들과도 이 경험을 나누고자 한다.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은 1세기경 아폴로니우스가 남긴 기록에도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본질에서 자연계로 넘어가는 것은 탄생이요 자연계에서 본질로 돌아가는 것은 죽음이다."

스코트는 죽음을 "삶이 본질에서 다른 경험의 영역으로 옮겨 가는 것"으로 보았고 어느 누구도 그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므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보통 사람들이 죽는 방식, 즉 병원이나 요양소에서 두려움에 떨며 오랜 시간 고통 속에 죽어가는 그런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왜 우리의 마지막 날을 그렇게 혼란스러운 환경에서 맞이해야 하는가? 우리가 사랑해온 사람들이 쾌적하고 낯익은 환경 속에서 조용하고 편안하게 떠날 수 있도록 돕기보다는 비싼 돈을 들여 병원이나 요양소로 보내고 그곳의 의료진으로 하여금 자연스러워야 할 죽음의 과정을 억지로 막거나 무작정 연장시키도록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에 대한 의문이었다.

스코트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차분하게 정리해 왔으며 자신이 의도하고 있는 죽음을 실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완전히 무능력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으며 떠나야 할 때가 오면 자신의 자유의지로 죽음을 선택하고 그 과정에 협조하면서 죽음과 조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어떤 태도 어떤 행동으로 죽음을 맞는가 하는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며 스스로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평화롭고 고요한 가운데 떠날 수 있을 것으로 그는 믿었다. 육체에 음식물 공급을 멈추면 육체는 기울어져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 과정은 위엄과 온전함을 지닌 채 평온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었다. 그는 몽롱하거나 의식이 없는 채로 가는 대신 죽음이라는 궁극적인 경험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았으며 그 과정을 음미하고자 했다.

타고난 건강체질 외에도 직접 재배한 유기농 음식과 농장 일을 통한 자연스런 신체단련, 그리고 조용하고 쾌적한 시골 환경 등으로 그들은 훌륭한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그래도 세월이 무한정 그들을 기다려 주지는 않았다. 100세 생일을 앞두고 스코트는 마침내 자신이 떠나야 할 때가 왔음을 알았다. 너무 노쇠한 나머지 헬렌을 위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자기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어려웠기 때문이다.

당시 80세였던 헬렌은 '주위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이라는 제목으로 스코트가 오래전에 준비해 둔 지침에 따라 그의 마지막을 도왔는데 이 지침을 스코트는 20년 전에 처음 작성했고 그 5년 후, 그리고 떠나기 1년 전에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서명해 두었다. 아직 책을 읽지 않은 분들을 위해 이 지침의 전문을 소개한다.

---------- 주위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요망 사항을 기록해두기 위해 쓴다.

1. 마지막 죽을병이 오면 나는 죽음의 과정이 다음과 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 나는 병원이 아니고 집에 있기를 바란다.
   - 나는 어떤 의사도 곁에 없기를 바란다. 의학은 삶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며, 죽음에 대해서도 무지한 것으로 보인다.

- 나는 죽음이 가까이 오게 되면 지붕이 없는 열린 곳에 있기를 바란다.
- 나는 단식을 하다 죽고 싶다. 그러므로 죽음이 다가오면 나는 음식을 끊고, 가능하다면 마시는 것도 끊을 수 있기를 바란다.

2. 나는 죽음의 과정을 예민하게 느끼고 싶다.
   그러므로 어떤 진정제, 진통제, 마취제도 필요치 않다.
3. 나는 되도록 빠르고 조용하게 가고 싶다. 따라서,
   - 주사, 심장 충격, 강제 급식, 산소공급 또는 수혈을 바라지 않는다.
   - 회한에 젖거나 슬픔에 잠길 필요는 없다. 오히려 자리를 함께 할지 모르는 사람들은 마음과 행동에 조용함, 위엄, 이해, 기쁨과 평화로움을 갖춰 죽음의 경험을 나누기 바란다.
   - 죽음은 광대한 경험의 영역이다. 나는 힘이 닿는 한 열심히, 충만하게 살아왔으므로 기쁘고 희망에 차서 간다. 죽음은 옮겨감이거나 깨어남일 뿐이다.
4. 장례 절차와 부수적인 일들
   - 법이 요구하지 않는 한, 어떤 장의업자나 그밖에 직업으로 시신을 다루는 사람의 조언을 받거나 불러 들여서는 안된다.
   - 내가 죽은 뒤 되도록 빨리 내 친구들이 내 몸에 작업복을 입혀 침낭 속에 넣은 다음, 스프루스 나무나 소나무로 만든 보통의 나무 상자에 뉘기를 바란다.
   - 그렇게 옷을 입힌 후 내가 요금을 내고 회원이 된 메인 주 오번의 화장터로 보내어 조용히 화장되기를 바란다.
   - 화장이 끝난 뒤 되도록 빨리 나의 아내 헬렌 니어링이, 만약 헬렌이 나보다 먼저 가거나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는 누군가 다른 친구가 나의 재를 거두어 스피릿만을 바라보는 우리 땅의 나무 아래에 뿌려 주기 바란다.
5. 나는 맑은 의식으로 이 모든 요청을 하는 바이며, 이러한 요청들이 내 뒤에 계속 살아가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 존중되기를 바란다.

세상을 떠나기 한 달 반 전(그의 100세 생일 한 달 전), 여러 사람들과 같이 테이블에 앉아 있을 때 스코트가 말했다. "나는 더 이상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나서 마시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음식도 다시 입에 대지 않았다. 그는 정연하고 의식이 있는 가운데 가기 위해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선택을 알린 후 단식을 시작한 것인데, 단식에 의한 죽음은 자살과 같은 난폭한 형식이 아니다. 그것은 느리고 품위 있는 에너지의 고갈이고 평화롭게 떠나는 방법이며 무엇보다도 자신이 원한 것이었다.

헬렌은 많은 동물들이 죽는 방식, 즉 보이지 않는 곳까지 기어 나가 먹지 않고 그대로 죽음을 기다리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코트의 선택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스코트가 뭔가 마실 것을 원할 때는 사과, 오렌지, 바나나, 포도 등 그가 마실 수 있는 것이면 어떤 것이든 주스를 만들어 주었다. 그렇게 한달이 지나자 그는 "이제 물만 마시고 싶다."고 했는데 여전히 병에 걸리지 않았고 정신도 말짱했다. 헬렌과는 간간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몸은 수분이 빠져나가 점차 시들어갔고 그렇게 보름이 지난 어느날 아침 헬렌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조용히 떠나갔다.

그의 마지막 모습을 헬렌은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다.

"천천히, 천천히 그이는 자신에게서 떨어져 나가 점점 약하게 숨을 쉬더니, 나무의 마른 잎이 떨어지듯이 숨을 멈추고 자유로운 상태가 되었다. 그이는 마치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시험하듯이 "좋-아" 하며 숨을 쉬고나서 떠나갔다. 나는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겨 갔음을 느꼈다."

스코트는 훌륭한 일생을 살았으며 훌륭한 죽음을 맞았다. 그는 바라던 대로 집에서, 약물이나 의사 없이, 병원에서처럼 제한을 받지 않고 헬렌이 자리를 함께 한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났다. 어떠한 장애도 없었다. 그는 헐떡이지 않았고 경련을 일으키거나 떨지도 않았으며 더 이상 숨이 남아 있지 않을 때까지 단지 부드럽게 숨을 쉬었다. 그럴 수 없을 만큼 순조로웠다. 아름답고 편안한 임종이었으며 다만 생명의 숨을 멀리 보냈을 뿐이었다.

계획했던 떠남을 곁에서 도우면서 헬렌은 슬픔 없이 그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그가 해방됨을 느꼈다.

헬렌은 이 책의 끝부분에 이렇게 적고 있다. "나는 삶에 큰 고마움을 느끼며 죽음이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데 더 큰 고마움을 느낀다. 우리는 누워서 병을 앓으며 무력한 삶을 계속 살아갈 필요가 없다.

요양원에서 이루어지는 긴 사멸의 공포를 느낄 필요도 없다. 우리가 집에 있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주위 사람에게 알릴 수 있으면 우리는 먹는 것을 멈출 수 있다. 그것은 간단한 일이다. 병구완을 않고 먹는 것을 멈추면 죽음은 우리에게 두 손을 활짝 벌리고 서 있는 것이다."

관심과 목표와 행동이 일치하는 조화로운 삶을 산 두 사람의 반세기에 걸친 사랑은 스코트의 죽음 이후에도 헬렌쪽의 사랑으로 이어지다가 12년 후(헬렌 92세) 헬렌이 편안하고 조용히 스코트의

방식으로 뒤를 따름으로써 마무리된다.

내가 죽음이란 문제를 처음으로 가깝게 겪어본 것은 병아리 조종사 시절이었다. 김포에서 F-86을 타다가 F-5A 전환을 위해 수원으로 전속을 와서 한 달이 채 되기도 전에 우리 대대, 옆 대대에서 잇따라 비행 사고가 터지더니 그 해에 수원에서만 열 건이 넘는 사고로 13명인가 하는 조종사가 희생되었다. 말단 중위 계급의 BOQ 거주자가 비행사고 시에 해야 할 일이란 주로 한밤중에 알아서 빈소를 지키는 것이었고, 불과 얼마 전 빈소에서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고인을 함께 회고하던 동료를 다음 번 영정의 주인공으로 만나는 일도 두어 차례 있었는데 그때의 심정을 어찌 한마디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군악대의 슬픈 연주와 유족들의 통곡 소리가 이어지면서 점차 사람이 죽는다는 게 정말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주변에서 누가 잘못되었다는 소릴 들어도, 또 가까운 사람이 말기 암에 걸려 얼마 살지 못할 거라는 소식에 접해도 예전과 달리 크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죽음을 앞둔 사람이 생에 대한 애착 때문에 아주 힘들게 투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안타까운 심정으로 내가 저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저런 생각을 해보며 마음이 무거워지곤 했다. 그러던 어느날 우연히 헬렌 니어링의 책을 읽다가 특히 마무리에 대한 부분에 주목하게 되었는데 그건 아주 중요한, 그러나 오랫동안 풀지 못하고 지내던 어떤 문제의 해답을 드디어 알게 된 그런 느낌이었다.

'스코트가 택한 마무리의 방법', 이것을 실제로 자신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생의 마감을 위한 단식이므로 우선 용기가 있어야 하겠고, 자신의 종교 교리에 어긋날 수도 있으며, 개인의 결정과 선택이 존중되는 서양과 달리 우리 사회에서는 가족들의 동의와 협조를 얻는 일이 쉽지 않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누구라도 한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가 아닌가 한다.

스코트처럼 백세가 넘도록 건강하게 지내는 운 좋은 사람이 없지는 않겠지만 실제 사정은 이와 많이 다르다. 우리 주위에는 오랜 시간을 앓다가 고생고생 끝에 정말 어렵게 세상을 하직하는 분들이 참 많고 또 심한 치매에 걸려 딱한 입장에 처한 사람들도 적지 않다. 다른 사람의 일까지 모두 내가 도맡아 고민을 할 필요까지는 없겠으나 적어도 나 자신만은 미리 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때가 오면 바로 떠날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또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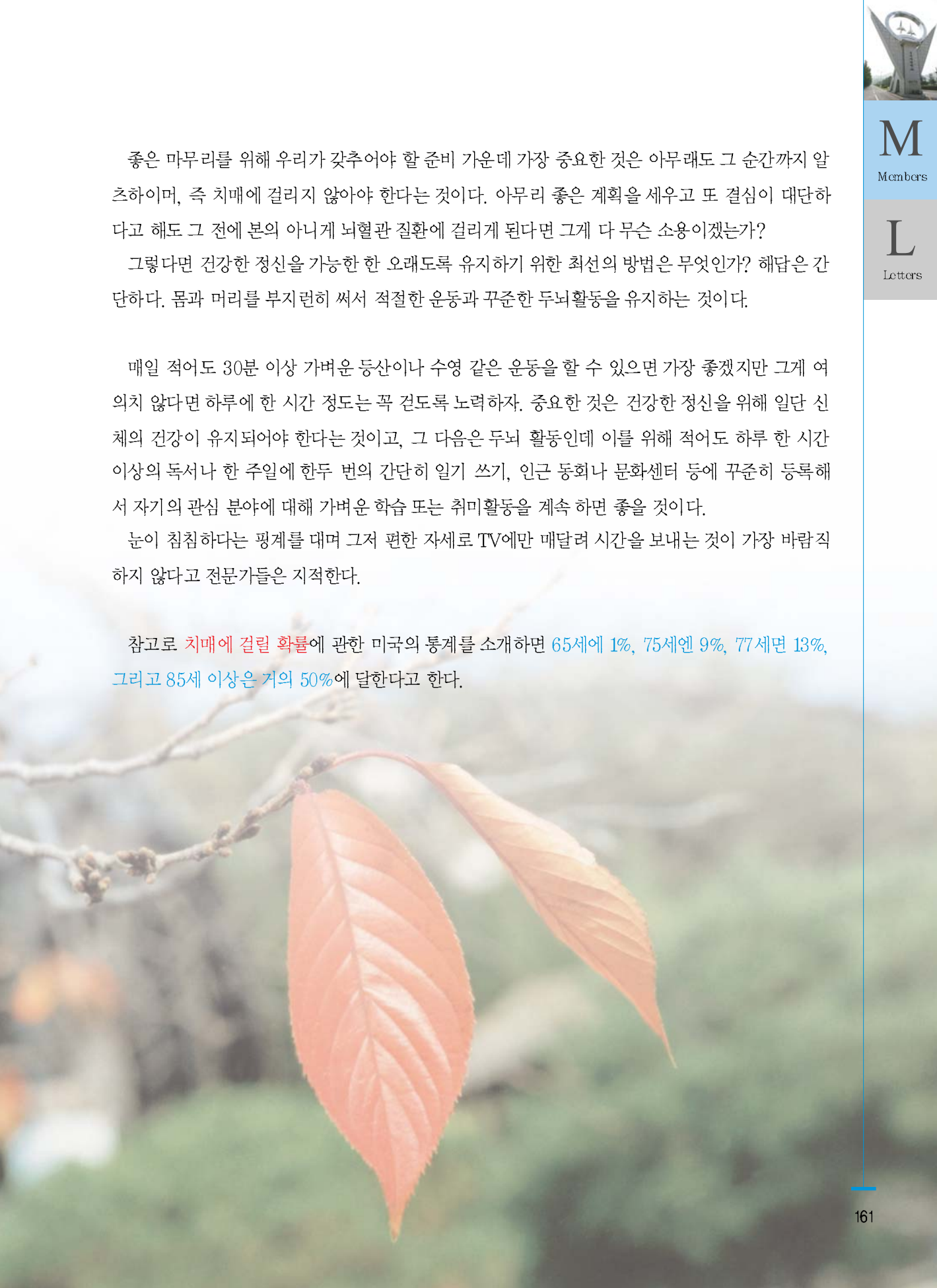
좋은 마무리를 위해 우리가 갖추어야 할 준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그 순간까지 알츠하이머, 즉 치매에 걸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또 결심이 대단하다고 해도 그 전에 본의 아니게 뇌혈관 질환에 걸리게 된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는가?

그렇다면 건강한 정신을 가능한 한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해답은 간단하다. 몸과 머리를 부지런히 써서 적절한 운동과 꾸준한 두뇌활동을 유지하는 것이다.

매일 적어도 30분 이상 가벼운 등산이나 수영 같은 운동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다면 하루에 한 시간 정도는 꼭 걷도록 노력하자. 중요한 것은 건강한 정신을 위해 일단 신체의 건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은 두뇌 활동인데 이를 위해 적어도 하루 한 시간 이상의 독서나 한 주일에 한두 번의 간단히 일기 쓰기, 인근 동회나 문화센터 등에 꾸준히 등록해서 자기의 관심 분야에 대해 가벼운 학습 또는 취미활동을 계속 하면 좋을 것이다.

눈이 침침하다는 핑계를 대며 그저 편한 자세로 TV에만 매달려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참고로 치매에 걸릴 확률에 관한 미국의 통계를 소개하면 65세에 1%, 75세엔 9%, 77세면 13%, 그리고 85세 이상은 거의 50%에 달한다고 한다.



옮겨온 글

누가 이기기 위한 대화인가?

8기 사관 강영진

말만 하면 웃는 문화가 있는가 하면, 말만 하면 싸우는 문화가 있다.

어느 나라에서는 유치원 때부터 말하는 방법과 말의 뉘앙스를 가르치고, 어떤 나라에서는 글쓰기부터 가르친다. 이러한 차이는 성인이 되었을 때 글쓰기는 잘하지만 말하기는 서툴러 말이 가지고 있는 유머의 기쁨을 모르게 되고, 국가를 대표하는 선량들이 모였다는 국회에서까지 말만 하면 싸우는 현상을 보게 된다. 우리나라는 애석하게도 후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인간은 관계 속에 살고 있다.

태어날 때는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시작하여, 자라면서 형제자매와의 관계, 그리고 더 자라서는 친구, 이웃과의 관계와 자기가 속한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살게 된다. 이러한 관계들은 대부분 대화로 이루어진다.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대화의 핵심을 알 수 있는 "황데레사님"의 [누가 이기기 위한 대화인가?]는 이러한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라고 생각되어 여기에 소개한다.

요즈음 우리 사회에서 [대화]라는 말을 쌍방의 만남의 의미로 많이 쓰고 있다.

개인적 만남에서 뿐 아니라 큰 국가 간의 교류에 까지 [대화]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남북 간의 대화], [여-야 정치인의 대화], [양국 정상끼리의 대화] 등 무엇인가 쌍방의 만남과 일치를 위한 노력임에 틀림없다. 어느 한 쪽이 이기고 다른 한 쪽이 지는 대화에서는 만남과 일치가 있을 수 없는데도 내편에서 이기기만을 원하기 때문이다.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서로가 상대에게 원하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대화는

시작된다. 다행히 자녀가 요구하는 것이 부모의 뜻과 같을 때 부모는 자녀의 요구를 수용하고 인정해 준다. 또 부모가 요구하는 것이 자녀에게 거부감이 들지 않고 수용될 때 자녀는 부모의 요구대로 따라준다. 그러나 때로는 자녀의 원하는 바와 부모의 원하는 바가 달라서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형성된다. 그래서 서로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상대를 공격한다. 일종의 힘의 대결이다. 부모가 이기느냐? 자녀가 이기느냐?의 팽팽한 대결이다.

부모는 흔히 자신의 오랜 경험과 지식, 경제력, 신체적 우위성, 지도의 책임 등을 내세워 자녀의 요구를 잘못된 것, 어리석은 것으로 묵살해 버리고 부모의 요구에 순순히 따라 주기를 바란다. 자신의 생각대로 안 되면 위협과 폭력까지도 개의치 않는 경우가 흔하다.

이런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 사이의 갈등은 항상 자녀가 패자가 되는 것으로 끝난다.

다음 아침 등교 전, 중 2학년 학생인 철수와 그의 어머니의 대화를 보자.

철수 : 엄마, 체육복 사게 돈 주세요.
어머니 : (부엌에서 도시락을 들고 나오며) 갑자기 무슨 체육복을 산다고 그러니?
철수 : 체육복이 다 낡았단 말이에요.
어머니 : 멀쩡한 체육복을 왜 낡았다고 그래? 학교 늦겠다. 어서 가!
철수 : (입을 내밀고 꼼짝 않고 마루에 걸터앉아 있다.)
어머니 : (언성을 높여) 어서 가라니까!
철수 : 알았어(골이 나서 문을 꽝 닫고 나간다.)

이상의 대화는 일방적으로 부모의 승리로 끝났다.

자녀에게 명령, 지시하거나 자녀의 어리석음을 비판함으로, 또는 힘을 과시함으로 승자가 된다. 그러나 패자인 자녀는 자존심에 상처를 받게 되고 부모에 대한 적개심을 키워줄 뿐이다.

이와는 반대로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항상 부모가 백기를 들고 양보하는 경우도 흔하다. 자녀가 억지로 떼를 쓰거나 화를 내면 자녀의 감정을 다치지 않으려고 자녀의 요구에 굴복하게 된다. 이런 분위기에서 자란 자녀는 버릇이 없어지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자신의 요구를 획득하는 재주를 터득하게 된다.

다음의 대화를 살펴보자.

옮겨온 글

철수 : 체육복 사게 돈 주세요.
어머니 : (부엌에서 도시락을 들고 나오며) 갑자기 무슨 체육복을 산다고 그러니?
철수 : 체육복이 다 낡았단 말이에요.
어머니 : 멀쩡한 체육복을 왜 낡았다고 그래? 학교 늦겠다. 어서가.
철수 : (입을 내밀고 꼼짝 않고 마루에 걸터앉아 있다.)
어머니 : (언성을 높여) 어서 가라니까!
철수 : 학교 안가요!(책가방을 마루에 팽개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어머니 : (당황하여 뒤를 쫓으며) 얘, 철수야 알았다. 돈 줄테니 체육복 사고 어서 학교 가. 사내 녀석이 골을 내긴~~

철수는 체육복을 살 수 없게 되자 화를 냈고, 어머니는 마침내 두 손을 들어 철수의 승리로 끝났다. 앞의 두 예에서 어느 쪽이 승리했든 그 결과는 긍정적일 수 없다.

자녀에게 미치는 교육적, 심리적인 소득은 없고 오히려 손해만 있기 때문이다.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가 반드시 어느 한편의 승리로 끝나야 되는 것만은 아니다. 무승부라기보다는 공동우승이면 더욱 좋다.

철수 : 엄마, 체육복 사게 돈 주세요.
어머니 : (부엌에서 도시락을 들고 나오며) 갑자기 무슨 체육복을 산다고 그러니?
철수 : 체육복이 다 낡았단 말이에요.
어머니 : 멀쩡한 체육복을 왜 낡았다고 그래? 학교 늦겠다. 어서 가!
철수 : (입을 내밀고 꼼짝 않고 마루에 걸터앉아 있다.)
어머니 : (철수를 조심스럽게 살피며) 그 체육복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지?
철수 : 그 체육복 꼴도 보기 싫어요.
어머니 : 그러니?
철수 : 그 체육복 입고 있으면 여학생들이 웃는단 말이에요. 내가 내 모습을 봐도 촌스러워요. 너무 짧아서 바지가 장딴지까지 올라가고 꼭 끼워서 움직이기도 어렵고 제가 봐도 웃음이 나올 것 같아요.
어머니 : 그렇겠구나. 하지만 엄만 멀쩡한 새 옷을 버리고 새로 사는 것은 낭비라는 생각이 들거든?

철수 : 내 체육복을 영호 것과 바꿀까?
어머니 : 영호 체육복은 맞겠니?
철수 : 맞을 거예요. 영호는 나보다 키가 작거든요. 게다가 형의 체육복을 물려받아 영호 한테는 너무 크거든요.
어머니 : 영호가 바꾸어 줄까?
철수 : 영호에게 전화해 볼게요.
(잠시 후)
철수 : 영호도 좋다고 했어요.
어머니 : 그럼 체육복 안사도 좋겠니?
철수 : 괜찮아요. 아직 멀쩡한데요.
어머니 : 네가 만족하니 엄마도 좋다. 낭비할 필요도 없고~~

이것이 곧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방법이다.

이 대화는 길어졌다. 승부가 나지 않으면 연장전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공동우승]으로 양자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선에서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런 대화는 자녀에게 성숙의 기회를 마련해 준다.
철수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가졌다.
또 어머니는 철수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갖게 되었다.
철수는 자신의 생각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에 만족하였고, 어머니는 낭비하지 않고 절약하는 생활을 아들에게 가르칠 수 있었으니 기쁜 일이다.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듣고(적극적인 경청) 자신의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자녀가 성숙하게 문제 해결을 해나가며, 성숙해가면서 부모와 자녀간의 친밀감도 더해질 수 있는 것이다.

황데레사님

세상보다 가정에서의 성공을 우선해라

가정을 사랑의 기업이라 부른다. 자식은 벤처기업과도 같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보다는
가정 안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어라.
자녀들이 영웅이 된다는 것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가장 큰 선물이다.

그 어떤 성공보다 가정에서의 성공을 꿈꾸며
그 어떤 훈장보다 자녀들의 한 마디에 더 큰 인생의 승부를 걸어라.
그리고 아내에게서 이런 말을 듣도록 노력하라.

"당신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남자였습니다."

- 좋은 글에서 -

남은 묵주 한 개

12기 사관 정민남

나는 중학시절부터 오 헨리의 단편소설 「마지막 잎새」를 좋아했다.〈단편소설 줄거리 소개 ; 중략〉 … 마지막 한 잎이 남아 있는 그날 저녁에는 초겨울의 진눈깨비가 바람에 날리며 내리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마지막 잎새가 틀림없이 바람에 날아가 버렸으리라 생각하고 밖을 내다본 존시는 그 마지막 잎새가 아직도 가지에 달려 있는 것을 본다. 그 다음날에도, 그 다음날에도…. 추위와 바람에 날아가지 않는 강인한 잎새를 보면서 사경을 헤매던 존시는 생의 의욕을 느끼고 그때부터 극적으로 기력을 회복하여 건강을 완전히 되찾는다. 존시가 완쾌되던 날, 늙은 벌만은 죽음을 맞이한다. 바로 진눈깨비가 내리던 그날 밤새, 벌만이 사다리 위에서 추위를 무릅쓰며 일생일대의 그림, 바람에 날려가지 않는 담쟁이 잎새 한 개를 벽돌담에, 그리고 그날 이후 병을 얻어 외롭게 죽게 된다는 이야기.

소설 속의 '벌만'. 그는 실패한 화가가 아니고 작품 하나로 젊은 사람의 생명을 살려낸 위대한 화가이다. 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예술가라니! 나도 시인이 된다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시를 쓸 수 있을까 고민하던 고등학생 시절, 나는 결국 그런 엄청난 시인이 될 수 없을 것 같아 엉뚱하게 의사가 되어 평생을 지냈다. 그리고 그간 부끄럽지만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고, 생명을 구하는 자리에서도 작은 역할을 했던 기쁜 기억을 가지고 있다.

거의 40년이 된 내 의사생활은 파란만장한 온갖 경험으로 점철되어 있지만, 몇 해 전 좀 이른 은퇴를 할 즈음에 일어난 일은 아직도 가슴에 훈훈히 남아 있다. 내 은퇴 소식이 주위에 알려지자 여기저기서 다투어 은퇴 파티를 열어주었다. 그 부산한 와중의 하루, 내가 일하는 병원의 홍보실장이 달려와 세계적인 패션 모델과 그 가족이 나를 만나러 내일 비행기를 타고 온다는 것이었다. 다음날 오후, 그 유명하다는 모델을 보겠다고 몰려온 병원 사람들과 조명을 밝힌 이 도시의 3대 텔레비전 방송사 관계자들로 북적거리는 복도에 병원장의 인도를 받으며 그 모델이 들어섰고, 모델은 멋쩍게

서 있는 내게 반갑다며 껴안고 키스를 했다. 그리고 내 팔을 꼭 낀 채 기자들에게 자기가 이곳에 온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열 살 때 입맛이 없고 자주 미열에 시달리며 등이 아팠다. 여러 명의 의사에게 진찰도 받고 약도 먹고 여러 검사를 했지만 병은 호전되지 않았고 의사마다 진단이 달라 무슨 병인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 병원에서 간호사로 있는 이모가 닥터 마를 소개해 주었다. 닥터 마는 자기 환자도 아닌데 귀찮아하지 않고 여러 검사 결과를 살펴보고는 몇 마디 묻더니 희귀한 백혈병이 틀림없다며 당장 큰 도시에 있는 백혈병 전문병원에 가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우리는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혼비백산해 사무실을 나가려는데 닥터 마가 무엇인가를 내 손에 꼭 쥐어주었다. 바로 이것이다."

그러더니 그 모델은 자기 가방에서 낡은 묵주 한 개를 소중하게 꺼내들어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다. "그 후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 병원에서는 조금이라도 늦었으면 가망이 없었다며 어떻게 이렇게 일찍 희귀한 종류의 백혈병을 진단했는지 신기해했다. 결국 우리 식구는 닥터 마 때문에 살아나게 된 것을 다시 확인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이 묵주는 다시 돌려줄 수 없다. 이 묵주는 내가 평생 가지고 살 것이다. 잃어버리지 않고 묵주기도를 자주하며 늘 감사하며 살겠다."

그 소녀의 병명을 정확하고 자신 있게 진단해 줄 수 있었던 것은 내 실력이었다기보다는 그 바로 며칠 전, 희귀한 소견에 대한 최신 논문을 읽었기 때문이다. 이를 우연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 또 내가 늘 지니고 다니던 묵주를 그때 병마에 시달리던 그 소녀에게 정신없이 건네주었던 것도 또한 우연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

이제 나는 의사 일에서 은퇴하고 다시 어릴 때의 희망대로 시를 열심히 쓰려고 한다. 내 시로 하여금 감히 생명을 구하지는 못할지라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를 줄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좋겠는가!

1962년대 공사 의무대 근무하신 마종기님

성경의 묘약

15기 사관 **최영상**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처방전

1. 잠언 22 : 6절 한 스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2. 잠언 3 : 5~6절 한 스푼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뢰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 하시리라.
3. 디모데후서 3 : 15절 한 스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4. 잠언 23 : 13절 한 스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방심이나 과하면 아니 된다.)
5. 부모님의 인내, 사랑, 꿈을 3:2:1 비율로 한 스푼
   (보통 부모들은 꿈을 중시하여 1:2:3이지만)

이들 다섯 가지를 약 사발에 넣고 저어야 하는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꼭 기도하면서** 잘 저어서 복용하여야 그 **약발이 배**가 된다고 한다.

– 익명의 주일학교 교사가 –

옮겨온 글

인 생 예 찬

15기 사관 **김덕훈**

비통한 어조로 나에게 말하지 말라
영혼은 선잠자는 주검이요,
만상은 제 모습 그대로가 아니기에
인생은 한갓 공허한 꿈!이라고
인생은 참! 인생은 성실!
그리고 무덤은 삶의 목표가 아니리니
너는 티끌,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영혼은 결코 말하지 않았다.

우리가 타고난 목적이나 길은
즐거움도 슬픔도 다 아니고
오직 행하는 것 그리하여 내일 내일마다
오늘보다 앞선 자신을 찾는 것

예술은 길고 시간은 속절없어
우리들의 심장은 비록 우렁찬 북처럼
아직 튼튼하고 억셀지라도
그것은 무덤에 다가가는 장송곡 소리

세상은 광막한 전쟁의 터전
이 인생의 야영 속에서
쫓겨 난 가축처럼 벙어리가 되지 말라
그 투쟁에서 영웅 영웅이 되라!

미래를 믿지 말라. 제 아무리 기뻐도
지나간 주검은 스스로 제 주검을 파묻게 하라!
행하라! 살아있는 지금 속에서 다만 행하라!
내 속에 뛰는 심장과 머리위에 계신 신을 더불어!

모든 우리들의 생애는 이렇게 일러 준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숭고하게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앞으로 떠나가면서
시간의 모래밭 위에 발자취를 남긴다고

그 발자취… 필경 딴 사람이
엄숙한 인생의 대양을 항해 하다가
지표를 잃고 난파한 그 형제는
보고서 곧 용기를 다시 얻으리라

자 그러면 깨어나자 모두 일하자
어떠한 운명에든 열정을 가지고
꾸준히 이룩하고 또 찾으며
일하기를 배우고 배워서 기다리며

H.W. LONGFELLOW(1807~1882)

옮겨온 글

마음을 일깨우는 명상의 글

15기 사관 김주식

세상과 타협하는 일보다 더 경계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과 타협하는 일이다.
스스로 자신의 매서운 스승 노릇을 해야 한다

우리가 일단 어딘가에 집착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안주하면 그 웅덩이에 갇히고 만다.
그러면 마치 고여 있는 물처럼 썩기 마련이다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곧 자기답게 사는 것이다.
낡은 탈로부터, 낡은 울타리로부터,
낡은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아무리 가난해도 마음이 있는 한, 다 나눌 것은 있다
근원적인 마음을 나눌 때 물질적인 것은
자연히 그림자처럼 따라 온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자신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
세속적인 계산법으로는 나눠 가질수록 내 잔고가 줄어들 것 같지만
출세간적인 입장에서는 나눌수록 더 풍요로워진다.

법정 스님

초심 잃지 않고 사는 지혜

15기 사관 김평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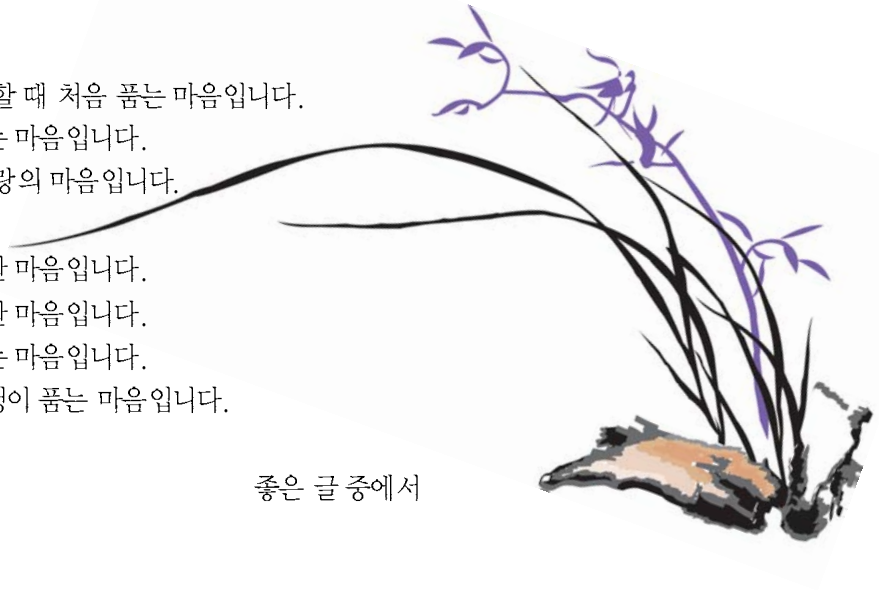
우리가 아껴야 할 마음은 초심입니다.
훌륭한 인물이 되고,
중요한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마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초심, 둘째는 열심,
그리고 셋째는 뒷심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마음이
초심입니다.

그 이유는 초심 속에 열심과 뒷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초심에서 열심이 나오고,
초심을 잃지 않을 때 뒷심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초심이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처음 품는 마음입니다.
처음에 다짐하는 마음입니다.
초심이란 첫 사랑의 마음입니다.

초심이란 겸손한 마음입니다.
초심이란 순수한 마음입니다.
초심이란 배우는 마음입니다.
초심이란 견습생이 품는 마음입니다.



좋은 글 중에서

옮겨온 글

산행의 육하원칙

15기 사관 조국현

1. 언제 산으로 가나. (When)

봄이 좋다. 가을은 더 좋다. 여름도 괜찮다. 겨울은 시리도록 좋다.

자기가 좋아하는 계절이 영락없이 더 좋다.

괴로울 때 가라.

기쁠 때나 외로울 때도 가라.

바람 부는 날.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눈이 부시게 푸른 날. 천둥치고 번개치는 날. 달 밝은 날.

미쳤다고 생각되는 날까지 가라.

2. 어느 산을 갈 것인가. (Where)

가까운 산 몇 번 간 후에. 먼 산으로 달려가라.

낮은 산 오르고. 높은 산 올라라. 아름답고 마음에 드는 산은 자꾸만 가라.

3. 누구하고 갈 것인가. (Who)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적다면 적어서 좋다.

서넛이면 여러가지로 좋고. 둘이면 손잡기 좋고. 혼자면 마음대로라 좋다.

홀로 가면 바람과 구름. 나무와 새. 꽃과 나비를 몽땅 가슴에 담을 수 있어 좋을 뿐더러.

자연과 친구가 될 수 있어 희한하게 좋다.

4. 산에 가서 무엇을 하나. (What)

기진할 때까지 방황하다 쓰러져라.

두려움조차 내 것으로 껴안아라.
새소리도 흉내내보고. 나뭇잎에 편지라도 적어보라.
향기에 취해서 야생화를 뺨에 비벼보라.
도토리 한알 주워 친구에게 선물해보라.
산정에서는 고함보다 침묵이. 침묵보다 명상이 엄청 더 좋다.

5. 어떻게 산에 가면 좋은가. (How)

마음을 비우고 옷도 벗고 가라.
허위와 영악함 부끄러움과 위장을 가져주는 옷과
넥타이. 모자. 양말까지 벗고 가라.
그렇게 하면 솔바람에 마음을 정갈히 빗질할 수 있고.
맑은 계곡물에 더러움과 영악함을 헹구기 쉽다.

6. 왜 산에 가는가. (Why)

산이 있기에 간다.
우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태어났다.
대답하기 어려우면 존재론으로. 더 곤란하면 운명론으로 돌려라.
더더욱 곤경에 처하면 되물어라.

"당신은 왜 산에 안 가는가?"

● 도서명 : 늙은 전투조종사의 가슴은 아직도 뜨겁다

● 저 자 : 박 재 성 (2기 사관)

● 약 력

- 경북 대구 출생 (1929)
- 공군사관학교 입교 (1951)
- 10년간 전투기 조종사 (1953~1963)
- 항공기 추락사고 구사일생 (1963~1972)
-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 역임 (1994~1995)
- 서울 문학 시인 등단 (2000)

● 내용소개 (요약)

"나의 천명(天命)은 낙생(洛生)이다"

저자는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두 번의 생을 살고 있다하여, 이 두 번째 생을 낙생이라고 했다.

이유인즉, 1963. 3. 26. 비행기 사고로 하늘에서 떨어져 살아난 자식을 보고 아버지가 지어주신 "호" 다. 이 호(洛生)에는 욕심없이 하늘의 이치에 순응하며 살아가라는 아버지의 깊은 뜻이 담겨있다.

저자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낙생을 그의 천명으로 삼아 살고 있다(향년 80세).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를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첫째는 젊은 시절 현대사의 격동기를 살아가며 겪은 칠난팔고(七難八苦)는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도 굳건히 이겨나갈 수 있었던 무사의 강인한 정신력을 보여주고 싶었고,

둘째는 성장하는 후손들이 겪어보지 못한 당시 시대상황을 이해하고,

셋째는 후배들이 본인이 살아온 삶과 경험을 거울삼아 보다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공군사를 이어가기를 바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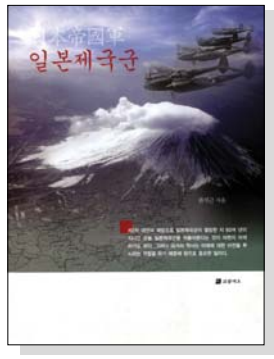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좌절에 빠진 상이군경 및 장애인들이 고통과 시련을 이겨내는데 조그만 용기와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도서명** : 일본제국군

● **저　자** : 권 석 근 (4기 사관)

● **약　력**

· 충북 청원 출생 (1931. 9. 6.)
· 공군사관학교 졸업 (1956. 4.)
· 공군본부 정보참모부 근무
· 공군 중령 예편 (1971. 4.)
· (주) 극동지관 대표이사 역임



● **내용소개 (요약)**

나라를 잃은 뼈저린 아픔을 그대는 아는가?

수탈, 약탈, 강제 징집, 노역, 고문, 살인 심지어 우리의 혼마저 앗아가려 했던 그들의 온갖 만행을 그대는 아는가?

1945년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피폭으로 그들의 야욕은 멈췄다. 그러나 일본제국이 패망한 지 6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경제와 정치의 대국화에서 재무장과 우경화 조짐이 더해가며 군사 대국화로 돌입하고 있다.

〈 주요 내용 〉

· 일본제국군의 창설과 성장과정
· 이웃나라 침략전쟁(정한론, 청일전쟁, 러일전쟁, 중일전쟁)
· 제국군의 편성, 교육, 정신
· 제2차 세계대전 발발과 일본의 패망

일본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나라이면서, 가장 멀리하고픈 나라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나 깊어서 아직도 완전히 아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필자가 10년 가까이 일본, 미국, 중국, 필리핀 등을 다니며 자료를 수집하여 후진들의 애국심 고취에 적극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고, 군사, 정치, 학문적으로 전문인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에게 역사적인 진실을 알리고, 우리의 마음속 깊이 안보의 초석을 다지는데 밑거름이 되길 바라는 뜻으로 집필하였다.　　"유비무환(有備無患)"

● 도서명 : 예방외교

(조기경보 문제로 살펴본 한국전쟁과 제1차 북한 핵 위기)

● 저 자 : 장 호 근 (17기 사관)

● 약 력

- 서울 출생 (1946. 12.)
- 공군사관학교 졸업 (1969. 3.)
- 전북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 주미 한국대사관 공군 무관
- 연합사령부 정보참모부장
- 공군본부 군수참모부장
- 공군 소장 전역 (2002. 1.)
- (현) GE 군용엔진 한국 판매담당 고문

● 내용소개 (요약)

1990년대 이후 탈 냉전시대의 분쟁 해결 수단으로 예방외교는 UN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사실상 그 이론자체는 학문적으로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예방외교는 말 그대로 전통외교와는 달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파악하고, 분쟁예방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분규가 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이론이다.

〈주요 내용〉

- 예방외교의 이론적 배경/구성요소
- 예방외교의 성공과 실패 사례(한반도 중심)
- 주변국 및 국제기구의 입장과 역할
- 문제점 및 제언

저자는 군 재직 시 중요부서인 작전, 정보 분야의 요직을 거치면서 다양한 실무를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공개된 자료와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이 책을 펴낸 것이 큰 강점이다. 예방외교가 한반도의 분쟁예방과 해결의 한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임을 강조한다. 특히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의 위기관리와 평화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예방외교를 더욱 심화, 발전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 **도서명** : 秒의 사나이 그리고 나의 조종사 생활

● **저　자** : 정 용 진 (18기 사관)

● **약　력**

- 경북 감포 출생 (1947. 3. 7.)
- 공군사관학교 입교/졸업 (1970. 3.)
- 공군 대령 예편 (1993. 8. 1.)
- 대한항공 입사/퇴직 (1993. 8. 1./2007. 3. 7.)

● **내용소개 (요약)**

1966년 3월 공군사관학교에 입교한 이래 2007년 3월 대한항공에서 퇴직할 때까지 무려 41년간을 하늘과 관련된 부서(군 전투기 조종사, 민항 여객기 조종사)에서 근무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평소 근무하면서 느꼈던 생각을 종합하여 글로써 이 세상에 태어났다(2007. 3.).

저자는 이 책을 펴내는 동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첫째는 위험하고 힘든 가운데 보람을 느꼈던 조종사 시절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어서, 둘째는 안전비행을 위해 헌신한 가족들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셋째는 일가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에게 오로지 정의를 위해서 살았던 지난날을 얘기하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이 시대 젊은 조종사들에게 한 시대를 살다간 퇴역 조종사의 흔적을 남기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늘의 용사 – 빨간 마후라"는 대한민국 전투기 조종사를 상징하는 말이다.

"하늘의 사나이 – 국제 신사"는 여객기 조종사를 상징하는 말이다.

하늘을 무대로 살아온 그의 폭넓은 경험과 지식은 뒤를 이어가는 후배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어 감히 이 책을 소개한다.

6기 사관 동정

2008년 5월 16일 6기 사관 임관 50주년 기념행사를 겸한, 홈커밍 행사가 청주 공군사관학교 성무대 연병장에서 가족과 내빈, 그리고 회원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이 행사를 주관한 공군사관학교와 총동창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날 사관생도들의 열병, 분열과 20주년을 맞은 36기생의 사복 차림의 열병, 분열 광경은 6기 사관 생도시절을 깊이 상기시키면서 군 생활과 사회생활을 통하여 지난 50여 년간의 흘러간 세월에 새로운 감회를 그 어느 기생들보다 강하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노년의 건강으로 혹은 그 날의 바쁜 일정으로 인해 50주년을 두 번 다시 참석할 수 없게 된 동기

생들의 아쉬움은 무슨 위로의 말을 전해야 좋을지 안타까울 뿐이다.

겸하여 홈커밍 행사에 대한 인식부족인지 임관 50주년 30, 20, 10주년 기념 기수만 참석하는 홈커밍 행사는 의미 없는 것 같아 전 졸업기수가 모두 참석하는 성숙된 홈커밍 행사가 되도록 보다 획기적인 홍보활동이 요구된다.

2009년도 홈커밍 행사에는 보다 많은 선후배가 참석토록 기원하면서 6기 사관 임관 50주년 기념행사 장면을 자랑스럽게 소개한다.

7기 사관 동정

"한 손에는 골프채 들고 또 한 손엔 등산지팡이 들고
늙는 길 골프채로 막고 오는 백발 지팡이로 치려더니
백발이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고려 시인 우탁이 쓴 탄로가(歎老歌)의 번안이다.

칠성회 회원들은 "백발이 지름길로 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부지런히 뛰고 있다.

순전히 치매방지가 목적이라며 손 운동에 몰두하는 바둑 팀과 마작 팀도 있지만 제법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또 다른 그룹도 있다.

1. 칠성 등산회

회원 16명. 일명 '화요 등산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매주 화요일이면 무조건 산으로 향하는 사람들! 관악산, 도봉산, 북한산 등을 수시로 바꿔가며 오르다가 한 겨울이 오면 몸을 사려 애용하는 서울 대공원!

지난 겨울 눈이 하늘 가득히 쏟아지던 날, 하얀 눈 속에 묻혀버린 대공원 등산길 위에서 어린애들 마냥 눈사람 만들며 사진 찍던 일들이 또 하나의 추억으로 남는다. 백암산도 계룡산도 다녀왔으니 이제 가을엔 한라산에 오르겠다는 야무진 꿈을 키워가고 있다.

2. 칠성 골프회

회원 22명. 재작년까지만 해도 충주, 원주, 해미기지 등을 돌며 분기에 한번 정도(1박 2일) 원정 골프여행을 즐겼다. 그런데 작년부터 하나 둘 탈락하더니 금년 들어서는 총무가 아무리 나팔을 불어대도 선뜻 따라 나서는 회원이 몇 명뿐이니 오호통제라!

그 나이에 장거리는 포기하고 분기 1회 할당되는 성남 또는 수원골프에 목을 매다니… 그래도 만나면 반가워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동기생들!

"어디 저희들은 안 늙나 보자(?)"고 푸념하다가도 '동기생이 전우회 회장이니 우리가 양해해야지' 하며 관대해지는 것을 보면 역시 나이가 들기는 들은 모양!

3. "예바원" 사람들

골프, 등산, 보약 등 다 동원하여 안간힘을 써 봐도 때가 되면 밥숟갈 놓게 마련인 것을… 그때 그분 손잡고 편안한 마음으로 떠나기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들! 바로 '예바원 사람들'이다.

"예바원"은 '예수를 바로 알기 원함'의 준말로 10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매월 둘째 목요일 인덕원 신성교회에 모여 간단한 예배와 성경공부, 그리고 친교시간을 갖는다. 동기생 모임이기 때문에 엄숙하지 않고 편안하고 때로는 예수쟁이들 비판도 할 수 있는 열린 마당으로 특히 불신자의 참여를 환영한다.

'예바원' 회원인 한국예비역기독교연합회 총회장 전상환, 한국복음선교단 부단장 허두기 등 두 회원의 눈부신 활동은 동기생들에게 자부심을 갖게 하고 있다.

15기 사관 동정

지난 1년간 성익회원 모두는 공사 총동창회 운영기수 임원으로서 총동창회장 김주식 장군과 최영상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다.

2008년 5월 16일에 있었던 동문 선후배님들의(6기, 26기, 36기, 46기) 임관 50주년, 30주년, 20주년, 10주년 기념 및 축하 홈커밍 행사 때는 가족을 동반한 성익회원 다수(40명)가 참여하여 이들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성익회는 매월 1회(셋째 수요일 13:10) 명동에 위치한 "중앙회관"에서 오찬을 겸한 모임을 가지며, 취미 활동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등산(매주 화요일)과 골프(매월 2~3회)를 통하여 건강과 우의를 다지고 있다.

박성국 신임 회장 프랑스 최고 훈장 수여

16차 총동창회장인 박성국 중장(예)은 지난 3월 12일 프랑스 정부로부터 프랑스 최고 훈장인 레지옹 도뇌르(Legion of Honour) 훈장을 수여받았다.

레지옹 도뇌르 훈장은 나폴레옹 1세가 '영광의 군단'이란 뜻으로 1802년 제정하여 세계 최고의 훈격을 자랑하고 있으며 서훈 심사 위원장은 프랑스 대통령이다.

박 회장은 국방부 국가 다목적 헬기(KMH) 사업단장으로 재직 시 한불간의 교류증진과 우호증진에 기여한 바가 커 이에 감사하여 프랑스 정부가 수여한 것이다.

김장수 전 국방장관, 이건희 삼성회장, 이종희 대한항공 총괄사장 등이 수령한 바 있다.

대한항공 직장동창회 체육대회

공사동문 회원이 400여 명이나 되는 대한항공 운항승무원 직장동창회는 지난 4월 22일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공사 총동창회도 초청하였으나 15차년도 마무리를 위한 스케줄 관계로 불참케 되어 너무 아쉬웠다.

회원 및 가족들도 각 비행단에서 가졌던 체육대회를 연상하며, 새로운 공동체의 가족 분위기를 조성키 위한 노력이 이벤트마다 흘러 넘쳤다.

동문들을 격려하기 위해 본부장 이영덕 회원도 동참하였고, 특히 아시아나 동문회장 정영빈 기장의 격려방문은 양사간의 협력 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아나항공 전 · 현직 조종사 합동등산

만물이 생동하는 봄의 한 가운데 4월 11일 공사 총동창회 임원은 전역 후 많은 동문들이 재취업하여 활동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전 · 현직 조종사들과 함께 북한산 등산을 하며 친목을 다졌다.

공사동문 합동등산은 그 어느 때 보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

진달래, 개나리, 벚꽃, 목련화, 이름모를 야생화, 시냇물 흐르는 소리, 산새 소리, 파릇파릇 돋아나는 애깃잎들과 모두 하나 되어 즐거움이 더 하였다.

오늘은 큰형 막내 누구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그 동안 쌓였던 피로도 씻고, 선후배간 우의를 다지고 친교를 나누는데 더 없이 좋은 시간되었다.

총동창회 알림

- 총동창회 정기총회
- 평생회비 적립현황
- 공사재단 발전기금 현황
- 전역자 현황
- 결혼/부음
- 주소변경
- 기수별 동기생회 임원
- 편집후기/기고안내

총동창회 정기총회

– 제15차년도 운영결과 보고 –

회칙 제4장 제12~15조에 의거 15차년도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정기총회를 6월 19일 공군회관에서 개최하였다. 1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5차년도 업무를 결산하고,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공사 총동창회를 맡아서 일할 제16차년도 회장단을 선출한 후 만찬을 즐기면서 회원 간의 친교시간을 가졌다.

금년 정기총회에도 공사교장 황원동 중장이 참석하여 공사 총동창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는 유익하고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이 자리에서 보고된 지난 일년간의 총동창회 활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회원현황

- 임관 총 인원 : 8,553명
- 현재 인원 : 7,850 명
- 예비역 인원 : 2,975명

◇ 적립기금(평생회비) 현황

구 분	금 액	비 고
기금 인수	445,343,128	14차년도
15차년도 적립	32,232,759	평생회비 : 12,700,000 이자수입 : 19,532,759
적립 총액	477,575,887	인계 금액

◇ 주요 역점 업무

1. 총동창회 중심 회원간 정보교류
2. 회원간 친목 도모 및 상부상조
3. 명예계승과 모교발전 참여
4. 회원관리 활성화로 조직운영 극대화
5. 총동창회 활동 배가

◇ 주요 추진 사업 현황

1. 연속사업 추진
   가. 부대방문, 성무지 내실화
   나. 친선바둑대회, 홈커밍 행사, 조문 활동
   다. 3사 총동창회 활동 내실화 : 4회 실시
   라. 공사 총동창회장상 표창 : '08. 3. 21.
   마. 자랑스러운 공사인 표창 : '08. 6. 19.

※ 모든 연속사업 계획대로 실천

◇ 주요 업무실적 분석

1. 부대방문
   가. 공본, 공사, 작사 방문(7/19, 8/7, 8/13)
   나. 일선부대 19비, 20비 방문(9/12, 5/27)

※ 순수한 격려 방문 수행

2. 친선 바둑대회
   가. 2007. 11. 21. 공군회관에서 실시
   나. 참가 인원 : 70여명
   다. 개인전/단체전(토너먼트식), 다면기 운영

※ 단체전 : 화합과 팀워크 도모

다면기 : 회원들 기력 향상을 유도 → 개인급수 확인기회

3. 홈커밍 행사
가. 2008. 5. 16. 공군사관학교에서 실시
나. 참가 인원 : 약 1,200여명
다. 축하 기념식, 열병, 분열, FLY BY, 오찬
라. 기생별 행사

※ 50주년 6기생 해외 참석 동문 : 공사 전경사진 증정
20주년 36기생 : 열병과 분열로 전 기념기수가 환호

4. 경사/애사 활동
가. 경사 - 자녀 결혼 56명
나. 애사 - 회원 16명, 회원가족 47명

※ 애경사시 총동창회 홈페이지에 게시
애사시 조기를 보내어 조의를 표함, 평생회비 미납자도 요청시 조치함.

5.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활동 내실화
가. 국방장관과의 좌담 1회(4/21)
나. 3사 운동 3회(공사:10/10, 육사:4/21, 해사:5/27)
다. 3사 총동창회 총회 시 화환 전달

※ 3군 박물관 순회 방문을 제의 : '08. 9. 실시 예정(육사 총동창회에서 추진)

6. 우수 졸업생 공사 총동창회장상 표창
- 56기 조해광 소위, 금메달(순금 10돈) 수여

7. 총동창회 참석 권유
가. 공본 근무 현역 기생대표와의 좌담(8/13) - 20개 기수 임원
나. 아시아나, 대한항공 동문과의 운동

(1) 골프 : 아시아나(11/7), 대한항공(4/2)

(2) 대한항공 동문회 총회 참석 : 총동창회 화환 기증/축사

(3) 등산 : 아시아나(4/11), 선후배 합동등산(10/23)

8.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 신규사업

가. 홈페이지 기능 개편/조정을 위한 업그레이드 신규사업은 예산관계로 유보

나. 홈페이지 운영상 미비점 보완

(1) 공군/공군사관학교 홈페이지에 공사 총동창회를 Family Site로 등록조치

(2) 각 기생별 홈페이지에도 공사 총동창회를 Family Site로 띄우도록 권고

(3) 일과 후/휴무 시 총동창회 연락처 게시하여 24시간 운영체계 구축

※ 총동창회 홈페이지를 통한 전파체제 활성화 요망됨.

9. 공사 총동창회 예비역 명부 작성 : 신규사업

가. 동창회원 예비역 명부 발행(3년 주기)

(1) 각 기생 총무와 5~8회 통화로 자료획득

(2) 작업 기간 : 6개월

(3) 3,000부를 발행 배포('08. 5. 1.)

※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신규사업은 현 체제운영이 비용면에서 불가피하여 약간의 보완에 그치고 동창회원 명부 작성에 사업비를 전용

10. 자랑스러운 공사인 표창자 선정

가. 20기 사관 동기회에서 이재명 회원을 추천(4/30)

나. 약 1개월 정도 후보자에 대한 검증, 타당성 검토

다. 제15차 심사위원회를 개최(5/26)

라. 공로를 만장일치로 가결

제2회 자랑스러운 공사인으로 20기 이재명 박사를 선정함.

11. 호국 안보 활동

가. "NLL은 영토 개념이 아니다"는 대통령 발언에 대한 성명

나. 2008. 6. 25. 행사(장충체육관 예정)

※ 한정된 인원 참가 – 자발적 행동 요구됨.

◇ 심의의결 안건

안건 1. 15차년도 적립기금 결산 : '적립기금(평생회비) 현황' 참조

안건 2. 15차년도 이사기수 의결 : '기별 분담금 납부안내' 참조

안건 3. 15차년도 임원선출 : 총동창회 소식 '정기총회' 참조

◇ 운영금 현황

1. 운영금 조성(단위 : 만원)

항 목	계 획	실 적	비 고
15기 찬조	4,500	4,500	
기별 분담금	1,580	1,520	7~35기 완납 30기 60만원 불참
회원/특별 찬조금	380	420	+40
광고비	500	833	+333
이월 운영금	200	200	
이자 수입		87	15기 찬조금 예금
총 계	7,160	7,560	+400

2. 회원/특별찬조

성 명	금 액	비 고
김 은 기	300만원	공군참모총장
이 억 수	50만원	14차 회장
김 관 호	30만원	28기 사관
심 인 태	30만원	30기 사관
서 동 열	10만원	전 공군전우회장

3. 운영금 집행현황

구분	순번	세부 항목	예산	지출	비 고
사업비	1	총동창회장상	1,000,000	1,140,000	56기 소위 조해광
	2	자랑스런 공사인 표창	500,000	256,000	20기 이재명
	3	50주년 및 홈커밍 행사	2,000,000	3,270,600	6기 사관, 버스대절
	4	친선 바둑대회	1,500,000	1,749,530	
	5	성무지 발행	7,000,000	7,770,520	발송/수고료, 기고자
	6	부대 방문	3,000,000	3,214,800	5개 부대
	7	조문 활동	1,000,000	2,256,000	63회 조기 지원
	8	동창회 참석 유도활동	3,000,000	3,458,850	
	9	홈페이지 보완	3,000,000	-	사업비 초과분 전용
	10	전역자 명부 발행	3,000,000	4,851,780	
	11	정기총회	3,500,000	4,000,000	예상액
	12	이사회	1,500,000	1,631,800	
	13	간담회	3,000,000	2,569,960	
	소 계		33,000,000	36,169,840	-3,169,840
운영비	14	친목단체 화환	800,000	750,000	인접 및 유관단체
	15	해외동문 우편료	700,000	740,400	미주 동부, 서부
	16	사무실 임대료	1,500,000	1,219,710	토지/건물 임대료 등
	17	사무실 운영비	6,000,000	5,277,000	
	18	인건비	24,600,000	24,600,000	
	19	이월금	2,000,000	2,000,000	16차년도로 이월
	20	예비비	3,000,000	3,990,940	행사 기념품 제작 등
	소 계		38,600,000	38,578,050	21,950
추가비	21	비품 구입		559,000	노트북(15기 찬조금 이자)
	22	홈커밍 행사 후원금		9,000,000	45개 기수 찬조금 (30기 불참)
	소 계			559,000	900만원 공사 송금
계획 대비			71,600,000	75,306,890	
총 계			75,600,000	75,306,890	잔 액 : 293,110

평생회비 적립현황

⊙ 평생회비 납부 안내

◇ 평생회비 입금 계좌

우리은행 319-239049-01-001 예금주 :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 평생회비란?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 전원이 평생에 한 번씩만 분담하는 회비로서 회원당 200,000원입니다.

현재 거출하고 있는 평생회비는 매년 총동창회 운영에는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적립금의 이자로 총동창회를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원금 및 이자까지도 은행에 계속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총동창회 연간 운영경비는 기별 분담금, 찬조금, 광고비, 운영기수 찬조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대부분 운영기수 찬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운영기수 회원이 되면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먼 후배 기수를 위하여 선배 기수들이 감수하고 있는 현실을 이해하고 미납회원은 평생회비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요망합니다.

⊙ 평생회비 납부현황

◇ 평생회비 완납기수

1~21기, 24기 완납

◇ 제15차년도 평생회비 납부자 현황

기간 : 2008. 1. 1.~2008. 6. 30.

기수	현재 인원	납부 인원	미납 인원	납 부 자 명 단
22	103	67	36	김동학, 김욱태, 양진석, 이상성, 이재관, 조욱형
23	107	56	51	
24	126	126	0	
25	124	45	79	이천상
26	120	55	65	김헌영, 심준택
27	124	31	93	
28	121	82	39	강영철, 박홍부
29	141	73	68	이동우, 진호영
30	154	46	108	나시중, 안창경
31	166	50	116	김인택
32	168	30	138	남동우, 심청용, 이성우, 이정대, 전진문, 최인영
33	173	35	138	김재권
34	165	19	146	노승환
35	252	17	235	손환주
36	255	10	245	김하성
37	251	7	244	
38	233	14	219	
39	221	14	207	
40	240	12	228	
41	239	3	236	
42	274	23	251	
43	270	3	267	
44	216	5	211	
45	211	18	193	
46	227	1	226	47 201 0 201
48	192	105	87	49 199 1 198
50	193	1	192	51 202 0 202
52	202	0	202	53 211 0 211
54	193	0	193	55 186 0 186
合	현재 인원 : 7,708			납부 인원 : 2,250 / 미납 인원 : 5,458

※ 평생회비를 납부하셨으나 기수를 기재하지 않으신 박상진(1/31) 회원은 기수를 통보하여 주시고, '06.12.21. 납부하신 회원은 기수와 성명을, 29기 김(1/30)으로 납부하신 회원은 성명을 총동창회 사무실로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02) 823-1091

◇ 기 납부자 현황

(2007. 12. 31. 이전)

기수	납 부 자 명 단
22	강수준, 강원호, 권영락, 김명대, 김병근, 김은기, 김인식, 김장호, 김정근, 김제승, 김종세, 김준현, 김철구, 남궁혁, 남백우, 노장갑, 노창래, 류양수, 민형기, 배효직, 백계근, 부중배, 손중열, 송인선, 심강윤, 안중엽, 연철봉, 오규열, 오봉진, 오원용, 우영운, 윤성기, 윤여동, 이강현, 이경환, 이광희, 이승희, 이영하, 이용구, 이용익, 이원필, 이정석, 이희용, 임영옥, 임인빈, 장영현, 장현섭, 전병만, 정갑순, 정 양, 정왕림, 정장교, 조영기, 주형철, 최병운, 최승열, 최호준, 한영렬, 한웅섭, 한종호, 홍제근, 황병호
23	강성철, 강치행, 강희창, 구본담, 권오봉, 김경순, 김동명, 김상문, 김성호, 김수환, 김우규, 김제용, 김종열, 김진렬, 김창환, 김형선, 류연도, 박성순, 박정배, 박종철, 박종화, 서구범, 신용필, 유제복, 이강무, 이계훈, 이동호, 이상진, 이수현, 이영덕, 이영옥, 이은수, 이인기, 이정욱, 이정환, 윤남수, 윤제원, 윤차영, 장석원, 장창연, 정경모, 정규덕, 정대주, 정회균, 정회진, 조원건, 채홍원, 최병선, 최상익, 최종창, 최주식, 최진수, 하창호, 한규섭, 함경만, 허일영
24	강일규, 강임구, 강철혁, 경인수, 고재봉, 권영우, 권오석, 권태환, 공윤석, 김광묵, 김규선, 김기옥, 김남수, 김동진, 김득환, 김명익, 김상철, 김수원, 김신원, 김언용, 김영선, 김영조, 김영한, 김완창, 김익경, 김제철, 김태열, 나용곤, 나재남, 남위진, 노성래, 유동수, 민경식, 박동문, 박상묵, 박승락, 박종헌, 박준포, 박준홍, 박진열, 박충제, 백영남, 백윤호, 변현태, 서성훈, 설증일, 손동주, 송한복, 신승덕, 신진섭, 신 철, 송광호, 송기백, 안인규, 안창수, 안빈용, 엄상영, 염경식, 오승춘, 오연군, 유광원, 유상양, 유영홍, 유원봉, 유지왕, 윤동열, 이경섭, 이기용, 이기준, 이남진, 이만우, 이만휘, 이봉운, 이상만, 이성제, 이월중, 이영제, 이영종, 이용길, 이웅상, 이윤상, 이장세, 이정근, 이정원, 이정진, 이제강, 이준우, 이철순, 이태공, 이해청, 임인구, 임호순, 전남채, 전병욱, 전복진, 전윤환, 정남주, 정명훈, 정인성, 정성화, 정점조, 정진도, 정철원, 정필훈, 조길현, 조진경, 조현규, 주신호, 주종수, 천두봉, 최규철, 최봉선, 최삼조, 최영설, 최제호, 최제희, 최종용, 최홍진, 표상수, 하원훈, 한성주, 허봉제, 현일수, 홍순화, 황군택, 황원동
25	강신환, 고덕천, 구도권, 권용국, 김국휘, 김동진, 김병용, 김상진, 김진태, 김종흠, 김정렬, 김종원, 김찬환, 김호식, 류홍규, 박용규, 박우성, 박춘한, 서상철, 성신모, 손명환, 심제명, 앙해구, 오창환, 윤양로, 윤용현, 윤학수, 이귀형, 이석찬, 이석호, 이성우, 이성제, 이승구, 이정표, 인선석, 임시영, 임우규, 장희태, 조성구, 최미락, 최승규, 최형기, 하왕규, 홍건표
26	강충순, 강희규, 공진구, 기예호, 김세창, 김용홍, 김유상, 김인호, 김정식, 김태영, 문길주, 문팔암, 박성남, 박성보, 박식래, 박인규, 박중석, 박천규, 박화영, 배충영, 변종돈, 성삼식, 성일환, 송길수, 심상철, 오문영, 오범석, 오희석, 이봉준, 이상길A, 이상길B, 오중기, 유지훈, 윤덕중, 윤병학, 은진기, 임락봉, 임상현, 장래환, 전병구, 전성관, 전영구, 정영빈, 정진기, 조정호, 조희연, 진주원, 채재승, 최광우, 최병학, 최지수, 허종준, 황정선
27	고덕규, 고용하, 구명수, 구본쾌, 권영철, 권오성, 김만호, 김병산, 김상도, 김용상, 남은우, 박경규, 박준형, 박창권, 박한진, 손태용, 신용탁, 신해철, 신현기, 이광제, 이무섭, 이수철, 이영만, 이제훈, 임판식, 정동철, 최동환, 최영순, 한병국, 한정렬, 홍성은
28	강승구, 김관호, 김남수, 김달제, 김도호, 김동수, 김명현, 김명호, 김명환, 김성곤, 김영민, 김영석, 김영철, 김인동, 김재훈, 김주언, 김학수, 김항수, 김형철, 박강수, 박경진, 박민환, 박연석, 박제구, 박종복, 박철규, 방명환, 서근영, 선기훈, 신영덕, 안재모, 오상회, 우상천, 유길형, 유태일, 윤국진, 윤범여, 윤 우, 음종민, 이경석, 이경찬, 이대원, 이명우, 이명환, 이상욱, 이석원, 이성길, 이용표, 이제원, 이제필, 이주석, 이태용, 이태윤, 임성욱, 임종춘, 장대홍, 전덕수, 정덕호, 정동학, 정재영, 정형래, 조규형, 조민식, 조현제, 지윤규, 정재부, 천홍우, 최병주, 최상일, 최승관, 최차규, 탁효수, 하태직, 한창환, 함선필, 현성규, 홍성표, 홍순협, 황신섭, 황위준

기수	납 부 자 명 단
29	강동운, 강명흥, 구용우, 권오봉, 김경호, 김광수, 김규진, 김석종, 김성전, 김순노, 김영권, 김영본, 김영철, 김원규, 김회영, 김융희, 김철생, 김홍온, 나충렬, 남승우, 문병규, 박성기, 박장경, 박제복, 박춘기, 박충민, 백승욱, 송창석, 심동환, 심제광, 심평기, 양철환, 오승균, 오영봉, 오한두, 윤정용, 윤주혁, 윤한두, 윤항제, 이경달, 이규복, 이남건, 이두희, 이명길, 이병두, 이수억, 이승호, 이완식, 이유인, 이인섭, 이일수, 이장근, 전동기, 정남범, 정대경, 정덕용, 정제순, 조병호, 차영헌, 최상철, 최성옥, 최승철, 최용준, 표상욱, 한봉규, 한봉완, 홍상기, 홍승조, 홍완표, 홍재욱
30	강구영, 강성호, 강지순, 고영문, 구 정, 권규홍, 권혁승, 김무겸, 김성용, 김세명, 김원규, 김용환, 김종선, 김진완, 박국서, 박제현, 박종완, 박호성, 서휘석, 손한섭, 신완희, 심인태, 양승주, 염동선, 윤기성, 이연수, 이종돈, 이종식, 이지영, 이학주, 장덕진, 장석현, 장헌동, 정경두, 정규호, 정 수, 조보근, 조영봉, 차주섭, 채덕상, 채종목, 최성규, 한상덕
31	강경한, 강윤성, 김남호, 김동철, 김수복, 김시완, 김정철, 김철승, 김홍준, 마권용, 문승주, 박승필, 박우일, 박항윤, 박해룡, 방은상, 배순근, 손상준, 신기균, 신제현, 오제현, 유병길, 유보형, 이병묵, 이상호, 이선호, 이수완, 이왕근, 이제환, 이준희, 임봉수, 장동현, 장영익, 장춘석, 전병승, 정석환, 정제형, 조병수, 조승균, 조현기, 조환기, 채관석, 최병섭, 최승준, 한상훈, 허기주, 현용희, 황명균, 황중서
32	김석운, 김성환, 김영수, 김정룡, 김진호, 김현곤, 박동창, 박승룡, 박호영, 손형규, 송기표, 송인수, 신익현, 심부수, 원인철, 윤석준, 이건완, 이종선, 전종일, 정만해, 천상필, 최원기, 최제영, 하성룡
33	김동수, 김수태, 김유정, 김유현, 김정태, 김조진, 김종도, 노준갑, 박삼남, 박성용, 박수철, 박진용, 박찬혁, 백호달, 심동섭, 오창규, 유준종, 윤병훈, 윤준로, 위강복, 이성우, 이경제, 이동교, 이제흥, 임경수, 장경식B, 장병노, 정남진, 정영철, 정회주, 조성호, 최병호, 최현국, 한상균
34	감수봉, 강우석, 김학준, 박흥식, 서희창, 손 경, 송광혁, 심제관, 안상철, 안선환, 양희종, 윤기철, 이성호, 임 원, 정병학, 정상길, 정찬영, 조현상
35	강규식, 강성구, 강정운, 김부국, 김종은, 류영관, 민태기, 서완석, 신형철, 엄태화, 온용섭, 윤제룡, 이영배, 이치원, 임채현, 최병오
36	김보현, 김성균, 김응문, 나문관, 박종국, 박홍식, 오형식, 이준모, 임이철
37	기노신, 김연규, 이동훈, 이준혁, 이제섭, 진광호, 최기명
38	강제성, 공도현, 김성준, 김정수, 박종환, 박창규, 성규철, 신보현, 심제환, 윤보정, 윤상보, 이동민, 이정호, 장창열
39	강진구, 권성범, 김병선, 김용희, 김제권, 김정훈, 이제욱, 임정구, 임중택, 최정모, 최진원, 최한규, 허윤구, 홍봉선
40	강정헌, 김제형, 김중기, 김진일, 김현수, 박기태, 박찬근, 손정국, 이만우, 이길주, 이헌희, 황희철
41	김민호, 송창희, 임장석
42	금기호, 김성덕, 김의택, 김창진, 김태우, 박세훈, 박윤철, 소상철, 신현구, 심대철, 온제섭, 이강녕, 이범기, 이준제, 이지호, 임유식, 장희준, 정우건, 천경덕, 최정욱, 한상형, 황수경
43	고경덕, 오동식, 이종원
44	고준기, 권기범, 박세순, 이강희, 전용성
45	강영운, 곽기훈, 금기호, 김범수, 박도준, 안영록, 엄성범, 윤혁중, 이긍규, 이길영, 이인구, 정치영, 정한영, 정희두, 조충석, 채 원, 하동열, 황성연
46	장순천
47	

기수	납 부 자 명 단
48	강규영, 고관진, 고종진, 구민규, 구본곤, 구필현, 금규태, 길태원, 김강주, 김경민, 김구일, 김년수, 김덕중, 김만중, 김민진, 김범준, 김상준, 김선규, 김성진, 김송현, 김시몬, 김인영, 김용숙, 김우현, 김재훈, 김주배, 김창민, 김철한, 김태호, 김홍석, 나정흠, 남택수, 문보언, 민병억, 박경준, 박정수, 박준영, 박찬억, 박한민, 박희수, 사제철, 소영섭, 손성진, 송영권, 송영민, 신 환, 신기영, 안상철, 안효훈, 양함주, 엄일용, 오상원, 원용창, 유 홍, 윤경식, 이광일, 이규동, 이기영, 이대연, 이동수, 이동훈, 이명선, 이무강, 이상준, 이석현, 이순제, 이우열, 이윤진, 이인호, 이정원, 이정훈, 이제영, 이종원, 이종훈, 이창용, 이창종, 이태승, 이형주, 이효성, 임병철, 임병호, 임수홍, 임은수, 임창순, 장균홍, 장성진, 전대만, 정기만, 정인식, 정제훈, 조정흠, 조혁준, 채 석, 천영호, 최원석, 최규완, 최균수, 최성호A, 최성호B, 최영기, 최재호, 추광호, 한영종, 허석희, 홍문기
49	이상현
50	안성민
	51~55기 납부자 없음.

⊙ 기별 분담금 납부 안내

◇ 기별 분담금 입금 계좌

우리은행 1002-137-264565
예금주 : 박영기(사무총장)

◇ 기별 분담금이란?

총동창회를 담당하여 운영하는 기수에게 총동창회 운영경비의 일부를 당연직 임원기수에서 일정액씩 분담하여 지원해주는 연회비로서 운영기수를 기준으로 선배 8개 기수 (8~15기)는 40만원씩, 운영기수를 포함하여 후배 21개 기수 (16~36기)는 60만원씩 분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동창회의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로 기별 분담금은 운영기수가 총동창회를 담당하는 시기인 매년 7월에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사재단 발전기금 현황

◆ 설립목적

생도 교육 및 학교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중

- 예산 획득이 불가능하거나
- 예산 적기 획득에 어려움이 있는 각종 사업지원

◆ 기금모금 현황

구 분	금액(억)	비 고
기업 및 단체	25	삼성테크윈(주) 47기 단체
동 문	13	학교동문 1,495명
학부모/후원자	3	학부모 등 362명
합 계	41	개인 및 단체 총 1,904명

※ 육사 : 137억, 해사 : 47억

◆ 기금사용 현황('07년)

구 분	금액(억)	비 고
생도 국내외 견문확대	1.3	생도 1인 75만원 지원
생도 학술·문화 체육사업	0.3	대학생 논문대회 등 10개 경연대회 지원
교수/훈육요원 학술연구	0.2	교수 해외학술 발표 등 교육발전 연구지원
지정기부사업	0.3	풍석, 동환 학술연구 기금
합 계	2.1	'96~'07 사용 총액(13억)

※ 기금원금은 영구 보존, 이자수입만으로 운영

◆ 기부자 예우

- 학교시설 우선 이용혜택(야외결혼식장, 체력단련장, 도서관 등)
- 박물관 기부자 명부유지, 고액출연자 기념식수, 명예졸업장 수여

공사 발전기금 출연 현황

◈ 발전기금 총액 : 41억 4천만원

(기간 : '08. 1.~'08. 5./단위 : 천원)

〈공사동문〉

이은수(23기)	300	김기영(46기)	50
이정욱(23기)	300	양동현(46기)	50
김진궐(23기)	300	윤희준(46기)	50
양성식(23기)	300	심성용(46기)	50
김종현(23기)	300	이순응(46기)	20
이봉운(24기)	3,000	박도영(46기)	50
황원동(24기)	1,000	김태수(46기)	50
이성재(25기)	1,500	오정진(46기)	50
이철우(26기)	922	최승식(46기)	30
이명환(28기)	500	양경철(46기)	50
정충구(30기)	1,000	이동식(46기)	50
김인택(31기)	260	윤경식(48기)	100
위강북(33기)	25	김홍석(48기)	150
장세현(33기)	50	이선미(53기)	100
오준영(35기)	50	1기 생회	500
최부용(35기)	50	6기 생회	10,000
박대광(36기)	50	24기 생회	1,049
전상윤(36기)	50	26기 생회	6,000
장은석(37기)	50	36기 생회	5,226
도재준(39기)	50	45기 생회	5,000
이정윤(45기)	50	51기 생회	2,728
정희두(45기)	50	52기 생회	2,766
황성연(45기)	100	53기 생회	3,135
이호용(45기)	50	54기 생회	2,895
손일호(46기)	50	55기 생회	2,790
박수용(46기)	30	56기 생회	2,325
정현욱(46기)	50		

〈단 체〉

(주)루시컨설팅(25기 신성환)	3,000	기업은행청주지점	10,000
공사발전후원회	12,000	원불교충북교구	800
국민은행	2,732	공사총동창회	9,000
공군발전협회	2,000		

〈비동문〉

곽헌성(공군가족)	1,000	안동만(국방과학연구소장)	500
김정만(공군가족)	1,000	양창근(공군가족)	250
김해인(공군가족)	1,000	이광명(공군가족)	500
박원석(공군참모총장)	10,000	조정숙(공군가족)	2,000

공군사관학교 발전을 위해 기금을 출연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전역자 현황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 역 일	계급	성 명	특 기	기수	전 역 일	계급	성 명	특 기	기수
'07. 11. 30.	대령	김언용	조종	24	'07. 12. 31.	중령	류순형	교육	27
	대령	이용길	조종	24		대령	백병현	정보통신	27
'07. 12. 31.	대령	경인수	항공시설	24		중령	서차봉	보급수송	27
	대령	김기옥	조종	24		대령	오성대	조종	27
	소장	김득환		24		대령	원종달	조종	27
	대령	김상철	항공통제	24		대령	이세훈	인사행정	27
	대령	김영조	조종	24		중령	이한호	보급수송	27
	대령	김태열	무기정비	24		대령	이훈희	보급수송	27
	대령	남위진	조종	24		대령	장경찬	정보	27
	대령	박충제	조종	24		대령	정성원	보급수송	27
	대령	설증일	정보통신	24		대령	한기범	조종	27
	대령	오승춘	조종	24		대령	홍진기	정보통신	27
	대령	유영홍	보급수송	24		대령	황연주	보급수송	27
	대령	유원봉	조종	24		대령	김항수		28
	대령	이봉운	교육	24		중령	김형묵	조종	28
	대령	이상만	정보	24		대령	이태유		28
	대령	이성재	조종	24		대령	최병주		28
	대령	이재강	교육	24		중령	최병훈	조종	31
	대령	이태공	조종	24		소령	류 훈	교육	35
	대령	정철원	조종	24		소령	곽병창	인사행정	44
	대령	최규철	항공시설	24	'08. 1. 31.	준장	유상주	조종	25
	대령	하원훈	조종	24		중령	김달재	항공통제	28
	준장	강대희	조종	25		대령	김철우	무기정비	29
	준장	김찬환	인사행정	25		대령	방원서	의무행정	29
	대령	홍건표	교육	25		중령	안정현	교육	29
	준장	김병락		26		중령	이태원	조종	35
	대령	박영수	조종	26		소령	임익호	인사행정	35
	중령	김만호	교육	27		소령	홍덕표	보급수송	35
	중령	김석규	정보	27		소령	서광열	조종	36
	대령	김영근	정보통신	27	'08. 2. 29.	대령	한충수	항공통제	29

전 역 일	계급	성 명	특 기	기수	전 역 일	계급	성 명	특 기	기수
'08. 2. 29.	소령	김용남	보급수송	36	'08. 2. 29.	대위	정문건	7207	45
	소령	김석종	조종	39		대위	김성경	7207	51
	소령	정종국	조종	39		대위	김옥주	4607	51
	소령	문도철	조종	41		대위	김태연	4007	51
	소령	강기현	조종	43		대위	박한울	8007	51
	소령	김광영	조종	43		대위	서재웅	4007	51
	소령	김기우	조종	43		대위	신승훈	1407W	51
	소령	김무영	조종	43		대위	유진규	6707	51
	소령	김재일	조종	43		대위	이장호	3007	51
	소령	김택우	조종	43		대위	한미연	4007	51
	소령	나경업	조종	43	'08. 3. 31.	소령	장동진	항공시설	36
	소령	류강원	조종	43		소령	김성한	조종	39
	소령	류제광	조종	43		소령	김은성	조종	39
	소령	문경호	조종	43		소령	김준환	조종	39
	소령	박주철	조종	43		소령	배영환	조종	39
	소령	봉동원	조종	43		소령	이창훈	조종	39
	소령	신성욱	조종	43		소령	이 훈	조종	39
	소령	신성일	조종	43		소령	조성훈	조종	39
	소령	오찬성	조종	43		소령	조지연	조종	39
	소령	원광연	조종	43		소령	김창성	조종	40
	소령	윤상진	조종	43		소령	박광열	조종	40
	소령	이재준	조종	43		소령	유태균	조종	40
	소령	이종빈	조종	43		소령	지웅기	조종	40
	소령	이한성	조종	43		소령	허필선	조종	40
	소령	전영배	조종	43		소령	김봉석	조종	41
	소령	전일현	조종	43		소령	김태일	조종	41
	소령	정진홍	조종	43		소령	정진광	조종	41
	소령	조장호	조종	43		소령	하재욱	조종	41
	소령	주해룡	조종	43		소령	이행렬	조종	42
	소령	최성근	조종	43		소령	임호진	조종	42
	소령	허민철	조종	43		소령	김상일	조종	43
	대위	윤승진	8107	45		소령	김석중	조종	43

전 역 일	계급	성 명	특 기	기수	전 역 일	계급	성 명	특 기	기수
	소령	김성수	조종	43		대령	주영길	7509	29
	소령	김승택	조종	43		대령	한창대	1429F	29
	소령	김종락	조종	43		소령	김광희	8007공	35
	소령	김 호	조종	43		중령	박진규	1428F	36
	소령	남대현	조종	43		소령	조영준	1407F	40
	소령	박동영	조종	43		소령	손강석	3007	42
	소령	박순한	조종	43	'08. 4. 30.	소령	유경덕	1407F	42
	소령	박중근	조종	43		소령	정우건	1407F	42
	소령	배진석	조종	43		소령	김인환	1407F	43
	소령	서영환	조종	43		소령	박기창	1407F	43
	소령	손동수	조종	43		소령	안태선	1407F	43
	소령	손삼용	조종	43		소령	유경식	1407F	43
'08. 3. 31.	소령	송우섭	조종	43		소령	이문용	1407F	43
	소령	신용순	조종	43		소령	최영식	1407F	43
	소령	안정훈	조종	43	'08. 5. 13.	중령	김대현	8108	36
	소령	유창욱	조종	43		대령	김종흠	1409F	25
	소령	윤경식	조종	43		대령	이무섭	1409F	27
	소령	윤은식	조종	43		대령	배관헌	3009	28
	소령	이경영	조종	43		대령	김영식	6709	29
	소령	이경재	조종	43	'08. 5. 31.	소령	박재현	4607	35
	소령	이주홍	조종	43		소령	이근석	8007	36
	소령	이준호	조종	43		소령	김선주	1417H	39
	소령	정종철	조종	43		소령	이만우	1407C	40
	소령	정홍구	조종	43		소령	김성환	1407C	43
	소령	정 희	조종	43		대령	김진환	4009	25
	소장	구본담	0002	23		소장	류희인	0002	27
	소장	윤재원	0002	23		중령	신영덕	7508사	28
'08. 4. 30.	대령	강영묵	5509	27	'08. 6. 30.	중령	유제선	4008	30
	대령	김광섭	5509	27		중령	이승길	5508	30
	중령	김길근	8108	27		소령	이영현	1407C	43
	대령	장영찬	1439F	29					

결혼/부음

◇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2008. 1.~6.)

월	기수 / 성명 / 관계
1월	12기 이부용 차남, 21기 이수남 장남
2월	12기 김원인 차녀, 20기 박병철 장녀, 21기 정삼연 장남 24기 이영재 장녀, 24기 허봉재 장남
3월	19기 김두환 장녀, 19기 신영덕 장녀, 19기 이성율 차녀 20기 이영희 장녀, 21기 김현식 장녀, 24기 김태열 장녀
4월	21기 연양희 차남
5월	20기 최수길 장남, 21기 유근국 장남, 27기 김길근 장녀
6월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월 일	기 수	성 명	비 고	월 일	기 수	성 명	비 고
1월 10일	2기	이상기	별세	4월 2일	6기	이상배	별세
2월 15일	3기	김병기	별세	4월 28일	1기	최영창	별세
	21기	김부연	별세	5월 21일	5기	배경태	별세
2월 27일	1기	전풍규	별세	5월 29일	27기	배덕환	별세

월	기수 / 성명 / 관계
1월	2기 이원의 장모상, 12기 박창길 부친상, 15기 김건삼 부친상 19기 장희천 부친상, 20기 강만수 모친상
2월	12기 정판종 장모상, 15기 조국현 장모상, 18기 구세환 장인상 21기 유관욱 부친상, 24기 권오석 부친상, 39기 김재관 부친상
3월	10기 김윤주 부친상, 12기 정민남 모친상, 21기 강수근 부친상 21기 유관욱 부친상, 23기 우무진 장모상, 24기 이봉운 부친상 32기 송기표 장인상
4월	14기 이우덕 장모상, 20기 이준근 부친상, 21기 마순복 모친상 28기 이재필 부인상
5월	20기 김택기 장인상, 20기 서상용 부인상, 23기 이강무 모친상 24기 김영환 모친상
6월	20기 한광성 모친상, 22기 정갑순 모친상, 28기 이재필 모친상

※ 총동창회장 명의의 조기를 보내 전 회원의 조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 대상은 본인이며 평생회비를 납부하신 회원에 한해 배우자, 부모, 장인, 장모까지도 해당됩니다.

· 국내 어디에라도 당일에 전달 가능하니 총동창회 사무실로 바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휴일에는 사무총장 박영기 016-767-5054로 연락 바랍니다.)

주 소 변 경

(2008년 1월~6월)

기수	성 명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2	박근옥	경기 오산시 수청동 569 우미이노스빌(아) 108-1307	447-941	031-375-1614
3	김경복	인천 남구 구월동 1456 금호꼬르띨레 오피스텔 810호	405-841	032-455-1560
4	안우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아) 924-602	158-070	019-358-8042
7	강상원	서울 강남구 도곡동 527 도곡 렉슬(아) 405-1702	135-506	02-571-1797
8	전석근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352 위브 하늘채(아) 135-1301	443-751	031-211-3458
9	천왕봉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교동마을 쌍용(아) 102-1302	446-560	031-274-9742
11	최문강	서울 금천구 시흥2동 1013 벽산(아) 522-1809	153-766	02-534-2805
12	박덕희	서울 용산구 이촌1동 412 이촌(아) 102-1404	140-201	02-533-6734
14	김영열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431 연희한양(아) 4-206	120-130	02-303-9751
15	최용환	경기 군포시 산본2동 310-2 산본2차 e-편한세상 108-402	435-843	031-397-2821
16	김종환	충북 청원군 오창읍 각리 중앙하이츠(아) 204-1201	363-781	043-217-5507
17	유성열	서울 마포구 상암동 1653 DMC 이안 상암 2단지 2601	121-270	02-782-8478
18	구세환	충북 충주시 연수동 현대힐스테이트(아) 101-205	380-781	043-855-7401
18	김호종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LG빌리지1차(아) 109-102	448-980	031-305-5028
18	신명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 롯데캐슬엠파이어 101-2404	150-886	02-780-6050
19	김명립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683 동원마을 동원로얄듀크(아) 102-1101	446-707	031-889-8829
19	백철인	충남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e-편한세상 110-1004	321-764	042-841-1269
19	손영수	충남 계룡시 두마면 사계길 99 더샵(아) 104-1503	321-916	042-551-2331
20	김성두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대림7차 e-편한세상 801-1503	152-786	02-2637-8542
20	김영한	서울 마포구 도화동 559 트라팰리스 A/1709	121-784	011-498-1877
20	김택기	서울 양천구 신정6동 목동(아) 1433-1208	157-076	02-2647-1665
20	이정학	경기 파주시 아동동 283 팜스프링(아) 120-403	413-720	031-949-6094
20	이종록	대전 대덕구 법동 보람(아) 105-1006	306-759	042-636-5431
20	조태연	충남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e-편한세상 103-504	321-764	042-841-5376
21	박순재	23 High Field Drive, ETSOM Surrey KT19 OAU U.K		208-393-2594
21	배민섭	서울 성동구 금호동3가 1331 두산(아) 105-1203	133-751	02-537-8828
21	송동근	서울 종로구 사직동 9 광화문 풍림스페이스본(아) 104-1201	110-054	02-382-5849

기수	성 명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22	주형철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현대5차(아) 501-1102	150-959	010-8826-3063
23	윤차영	서울 동작구 상도1동 431 삼성래미안3차 323-806	156-732	02-6673-0308
24	김영한	서울 용산구 문배동 3-3 이안용산 프리미어(아) B-2102	140-100	02-711-2320
24	최규철	서울 송파구 잠실동 35 트리지움(아) 326-603	138-891	02-836-4630
27	권석원	대구 달서구 용산동 보람(아) 102-304	704-130	016-337-5678
27	신해철	서울 동작구 사당동 롯데캐슬(아) 107-1601	156-090	02-537-5925
28	서근영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69 SK M-City 104-616	410-380	031-811-5864
30	이원섭	경기 평택시 서정동 288-6	459-813	031-665-8390
34	양희종	경기 김포시 북변동 풍년마을 신일(아) 229-1404	415-715	031-987-4570
41	장 훈	인천 서구 당하동 원당지구 동문(아) 605-1406	404-310	032-567-7886
37	유용철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1동 백마마을 삼성(아) 110-1701	410-708	031-814-0924
38	조희상	서울 중구 신당동 삼성(아) 112-202	100-763	02-2253-9584
40	유현우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대화마을 3단지(아) 301-1703	411-764	031-906-9309
41	김오현	서울 동작구 흑석2동 명수현대(아) 101-511	156-791	02-817-0714
42	고성환	서울 동작구 상도동 1-18 리버파크빌 301호	156-030	02-6081-7004
42	이동현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옥빛마을(아) 1202-1705	412-270	031-970-0447
47	최명진	서울 강남구 개포1동 주공(아) 125-305	135-805	051-336-2329
49	이인성	서울 금천구 독산3동 372	153-013	010-8443-2643

※ 우편물 반송이 너무 많습니다. 주소 변경시 총동창회 사무실로 꼭 연락하여 주십시오!

기수별 동기생회 임원

기수	구분	성명	연락처	기수	구분	성명	연락처
1기	회장	최규순	02-533-2485 011-253-3154	14기	회장	박진재	02-2292-5729 011-781-5726
	총무	·			총무	강원순	031-915-1040 016-365-1040
2기	회장	김동호	031-718-0662 010-8246-0765	15기	회장	권기동	031-971-3794 010-3035-3794
	총무	·			총무	최용환	031-397-2280 018-337-5784
3기	회장	정규혁	031-283-0742 011-232-1526	16기	회장	이상열	031-897-0034 011-735-4487
	총무	김필원	02-713-2139 (직)02-2266-1852		총무	양길수	031-266-5247 010-5076-5742
4기	회장	조시중	02-882-0171 010-2293-6750	17기	회장	강호근	011-712-0290
	총무	조봉구	02-856-2714 011-233-6243		총무	이철희	011-252-4989 (직)02-6298-8282
5기	회장	손정희	02-856-3231 010-3164-8531	18기	회장	천기광	02-3461-8843 017-428-5045
	총무	·			총무	구세환	02-2065-7401 017-516-0600
6기	회장	이방택	031-287-6276 010-2227-6272	19기	회장	이강욱	02-534-5150 016-203-6561
	총무	김원근	02-584-4827 016-268-4827		총무	김영철	02-372-0858 011-9278-0858
7기	회장	강상원	031-265-1790 010-7747-1797	20기	회장	김성일	010-7186-0910
	총무	박태환	031-456-7128 017-206-5354		총무	최병철	(직)02-749-8135 011-229-2636
8기	회장	윤대봉	031-962-7174 010-4332-7174	21기	회장	황일서	016-806-7188
	총무	백상희	02-521-6398 011-725-5171		총무	·	
9기	회장	이용세	031-266-3978 011-9636-0073	22기	회장	민형기	031-274-3241 010-5071-5410
	총무	천왕봉	031-274-9742 011-794-1741		총무	·	
10기	회장	송중호	031-424-0790 016-526-0780	23기	회장	이계훈	017-284-5736
	총무	김시호	02-6335-7295 016-333-7295		총무	류연도	010-9349-1332
11기	회장	심기섭	031-304-7108 011-9095-7108	24기	회장	박종헌	010-5073-5388
	총무	윤동섭	031-422-0490 019-243-0490		총무	최규철	010-5076-4630
12기	회장	엄수남	02-358-4386 016-275-4386	25기	회장	윤용현	010-5073-5062
	총무	김원인	031-938-7310 010-2445-7310		총무	이정표	010-5079-0801
13기	회장	문기철	031-308-1171 011-231-9535	26기	회장	이태인	010-5071-2103
	총무	김무신	02-2668-3343 016-383-3343		총무	오중기	010-5073-5197

기수	구분	성명	연락처	기수	구분	성명	연락처
27기	회장	이영만	011-9096-1815	42기	회장	이종서	010-5072-3318
	총무	백병연	011-9855-3638		총무	이동현	010-5071-0446
28기	회장	최차규	010-5073-6558	43기	회장	오동식	010-5081-3798
	총무	박철규	010-5073-6980		총무	이종원	010-5071-3633
29기	회장	이두희	010-5073-5428	44기	회장	고준기	010-5071-5479
	총무	최정근	010-5078-9595		총무	·	
30기	회장	박국서	017-235-4244	45기	회장	양동혁	010-5082-1319
	총무	조보근	010-5073-8995		총무	김도산	010-5086-2222
31기	회장	윤흥기	010-5074-4447	46기	회장	김용진	010-5075-8473
	총무	강경환	010-5071-3178		총무	서정민	010-5073-7005
32기	회장	최인영	010-389-9206	47기	회장	이영진	010-5072-2898
	총무	송인수	010-5085-9195		총무	문성훈	010-5085-9074
33기	회장	정남진	010-5074-4612	48기	회장	고종진	010-5077-1954
	총무	최현국	010-5075-6293		총무	원기탁	010-9577-5401
34기	회장	홍승호	010-5073-8574	49기	회장	이정영	010-5081-7904
	총무	김학준	010-5077-3434		총무	·	
35기	회장	박승룡	010-5080-7899	50기	회장	송준협	010-5079-1724
	총무	서해림	010-5081-5195		총무	전수진	010-5085-5299
36기	회장	손경수	010-5083-0436	51기	회장	김계한	010-5077-2547
	총무	유문근	010-5072-1349		총무	이현석	010-5089-3451
37기	회장	염성진	010-5074-9997	52기	회장	유영광	010-5082-6668
	총무	이경봉	010-5071-2831		총무	이동제	010-5083-0452
38기	회장	정종근	010-5077-2465	53기	회장	강지용	018-559-0737
	총무	김경민	010-5073-2186		총무	윤종성	016-9373-0402
39기	회장	최춘송	010-5077-5402	54기	회장	조원기	017-541-6266
	총무	김재권	010-5076-4877		총무	권선영	011-9481-5689
40기	회장	한경환	010-5079-7834	55기	회장	이재환	010-5080-8368
	총무	김중기	010-5085-8293		총무	강수정	011-9787-9173
41기	회장	김용태	010-5071-2833	56기	회장	조해광	010-5087-1119
	총무	신용규	010-5073-9708		총무	·	

※ 임원 변동시 총동창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 집 후 기

신록의 계절 6월!

계절이 돌아 또 다시 6월이 오면 우리의 편집업무가 종료됨을 기다렸는데……. 아니 벌써 6월이라니 가벼운 마음보다는 조금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선 '성무' 지 제36호, 제37호 2회 차에 걸친 원고수집 과정에서 바쁘신 중에도 저희들의 요청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주옥같은 글을 정성껏 보내주신 동문제위께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 편집위원들은 기고해주신 분의 의도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원안을 중시하여 수정을 자제하였으며, 또한 독자로 하여금 부담 없이 편안하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기고문을 배열하였습니다. 부득이 일부수정 시 일일이 사전 양해를 구하지 못한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 지는 공사인의 나눔의 장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얻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서로 나눔으로써 어제와 오늘의 자신을 재발견하고 현재의 자기 위치를 깨닫게 하는 좋은 매개체이지요. 이를 통하여 동문간의 우의를 다지고, 모교인 공군사관학교에 대한 애정을 북돋우며 '성무' 인으로서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의 마당이라 생각됩니다. 동문 회원 모두의 관심과 사랑 속에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이 기회에 편집 및 발간을 위해 수고하신 최광섭, 김평람 두 분의 편집위원과 교재창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편집인〉

기 고 안 내

공사 총동창회 회지인 "성무"지는 연 2회(매년 1월 1일, 7월 1일)에 걸쳐 발행되고 있습니다. 주로 회원들의 수필, 여행기, 사관학교 시절의 에피소드 및 생활 잡기(건강관리, 취미활동) 등을 주제로 한 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38호 성무지 원고는 2008. 10. 31.에 마감합니다. 많은 기고를 부탁드립니다.

발 행 일 : 2008. 7. 1.
발 행 인 : 김주식
편 집 인 : 최영상
발 행 처 :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주소 : (우 156-600)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우체국 사서함 5-1호
전화 : 02-823-1091, 팩스 : 02-823-1092
Homepage : http://www.kafaaa.or.kr
E-mail : 04airfa@hanmail.net

2009학년도(제61기) 공군사관생도 모집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08년 7월 7일(월)~7월 18일(금)
- 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www.afa.ac.kr

1차전형
- 시험일 : 2008년 8월 3일(일)
- 과목 : 면애(듣기 제외), 수리(문·이과 구분), 외국어(듣기, 말하기 제외)

2차전형
- 시험일 : 2008년 9월 1일(월)~9월 26일(금)
- 시험내용 : 신체검사, 면접, 체력검정, 논술

최종전형
- 기준 : 수능(800점), 학생부(100점), 면접(50점), 체력검정(30점), 논술(20점)
- 합격자발표 : 2008년 12월 17일(수)

주요 신체기준
- 시력 : 조종분야 나안 0.5 이상, 정책분야 교정 0.7 이상
- 신장 : 162.5cm~195cm(여자정책분야 160cm~195cm)

입시문의
Tel.043)290-5504, 297-9156 Fax.043)297-0479
www.afa.ac.kr

공군사관학교
Republic of Korea Air Force Academy

항공소년단 자원봉사단 가입 안내

■ **자원봉사 활동분야**

- 장비 및 시설 지원 활동
- 교육활동
  - 항공 이론 및 역사
  - 항공기능(RC, 열기구, 행 · 패러글라이더 등)
  - 조종사 비행 경험담
  - 레크리에이션
  - 해양훈련
  - 정신교육(심성수련)
- 행사 인력 지원
- 기타

■ **자원봉사 활동지역 :** 전국

■ **자원봉사단 모집기간 :** 수시

■ **항공소년단 자원봉사단이 되려면**

항공소년단 홈페이지(www.yfk.or.kr)에서 '항공소년단 자원봉사단' 회원가입 → 활동이 있을시 이메일 또는 개인 연락처로 연락 → 봉사활동

■ **후원금 입금 계좌**

- 우리 은행 1005-300-99624(5(예금주 : 한국항공소년단)

※ 기부금 후원금은 법인세법 24조, 소득세법 34조에 의거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항공소년단
YOUNG FALCONS OF KOREA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36-81 4층 / Tel. 02)953-7543 / www.yfk.or.kr

무한한 가능성

F-136 엔진은 GE와 Rolls-Royce에서
이미 검증된 고도의 기술을 바탕으로
F-35 Lightning II 전투기 프로그램의
진화되는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GE Rolls-Royce Fighter Engine Team은
국제 협력 생산 및 개발 경험을 기반으로
전 세계 JSF 협력 국가들의 엔진생산,
지원 및 유지 보수 능력 분야에 있어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ge.com/aviation 혹은
rolls-royce.com을 참조하세요.

GE Rolls-Royce
Fighter Engine Team

ROLLS ROYCE

JOINT STRIKE FIGHTER
F-35
LIGHTNING II
LETHAL SURVIVABLE SUPPORTABLE AFFORDABLE

항공우주의 새로운 미래,
대한항공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미래,
대한항공이 이끌어 가겠습니다.

F-15/16, A-10, CH-47, UH-60 등 창정비 및 성능개량 사업 수행
상용 항공기 화물기 개조 및 각종 중정비 수행
한국형 우주 발사체(KSLV-1) 및 인공위성 본체 구조물 사업
무인항공기 및 지상지원 시스템 개발
보잉, 에어버스 등의 주요 부품 설계 및 제작 파트너

국내 최고 항공 방위산업체인 대한항공이 항공우주 기술력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SKYTEAM

AEROSPACE DIVISION
TEL:02-751-7311 FAX:02-751-7347~9
http://www.kal-asd.com